

제 3 장 도약기(1989~2012) – 지역과 함께 세계로



개 관

1987년 10월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그해 12월에는 대통령 선거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민주화와 자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에 따라 정부의 통제하에 있던 대학은 자율권을 일정 부분 부여받았고, 1989년 이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총·학장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교수 재임용 제도도 폐지되었다.

1989년에는 총장 직선제가 도입되었는데 이후 교수협회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교수협의회에서는 총장선출규정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 총장 직선 선거를 주관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 발전계획(안)과 대안을 마련하는 등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충남대학교 학교 구성원들은 민의가 반영되는 총장 직선 제도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총장 선출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충남대학교에서도 1989년부터 총장 직선제 선거가 시행되어 제11대 오덕균 총장(1989년 3월~1993년 3월)을 비롯하여, 제12대 정덕기 총장(1993년 3월~1997년 3월), 제13대 윤형원 총장(1997년 3월~2001년 2월), 제14대 이광진 총장(2001년 3월~2005년 2월), 제15대 양현수 총장(2005년 3월~2007년 8월), 김지환 총장 직무대리(2007년 7월~2008년 1월), 제16대 송용호 총장(2008년 1월~2012년 1월) 등이 교수 혹은 교수와 교직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들은 직선 총장으로서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1989년 1월 28일에는 오덕균 교수가 제11대 총장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오덕균 총장은 “민주사회 건설의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자기개혁을 통해 일하는 총장, 봉사하는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과하겠으며,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남대학교 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1992~2001)이 수립되면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초가 다져졌고, 이를 위한 발전기획위원회가 설치·운영되기도 하였다. 단과대학과 대학원이 신설되었고, 국사학과와 고고학과·언어학과·자치행정학과·정보통신공학과·항공우주공학과·메카트로닉스공학과·정밀공업화학학과 등이 신설되는 등 학과의 증과와 증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법학연구소가 신설되고 고시관인 청룡관이 기숙사 내

에 설치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날로 확대되어 가는 국제교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로 국제교류부를 설치하였다. 국제교류부에서는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학술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세계 속에 충남대학교의 위상을 공고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1991년에는 수의학과가 수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동물병원이 설립되는 등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국사학과 정덕기 교수가 1993년 2월 제12대 총장선거에서 선출되었다. 정덕기 총장은 모교 출신 첫 총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교수·학생·교직원 모두 인화를 바탕으로 충남대학교가 21세기를 지향하는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다짐했다. 정덕기 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명문 충대 창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학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94년에는 충남대학교가 국책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산·학·연 협동체제의 구축, 고급 기술인력 양성,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 제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지역 산업체의 애로 사항 해결 등 실질적이고도 산업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동사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공과대학 신소재 분야 특성화 사업으로 25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종합평가에서 전국 3위의 우수대학으로 인정받는 영예를 얻었다(《충대신문》 1995년 3월 6일). 농과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고, 의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이 학과 평가에서 각각 우수평가를 받는 동시에 전국대학교육개혁평가에서 서울대학교와 나란히 우수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미국의 버클리에대학, 프랑스의 몽뻬리에대학, 중국의 북경대학, 일본의 쓰쿠바대학 등 세계의 명문 대학들과 맺은 자매결연을 통하여 교수 및 학생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정부 당국과 교섭하는 동시에 민간 자원을 유치하여 산학 공동연구관 신축을 비롯하여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공동실습관, 박물관, 제4공학관, 기초의학동물생태연구동 등의 시설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시설 증축에 주력하였다.

1995년 8월에는 대학병원을 법인화하였다. 의료법인 충남대학교병원은 교육법에 따른 의학에 관한 교육과 연구 및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충대신문》 1995년 9월 4일). 한편, 이해 9월에는 검찰의 ‘5·18책임자 공소권 없음’ 결정에 반대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충대신문》 1995년 10월 2일)도 일어났다.

1996년도에는 소프트웨어연구센터가 지역협력연구센터로, 무기소재화학연구소 산하의 화학연구정보센터가 전문연구정보센터로 선정되면서 충남대학교가 교육부 지정 교육개혁 우수대학으

로 선정되었으며, 농과대학이 인삼과 과채류 분야로 농림수산부가 추진하는 농림수산계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충대신문》 1996년 9월 2일)되어 충남대학교의 우수성을 내외로 떨쳤다(《충대신문》 1996년 11월 4일). 또한 교사박물관을 개설하고 교시탑을 보수하여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자 하였으며, 충남대학교 찬가를 제정하여 구성원들에게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1997년 2월 4일, 충남대학교의 제13대 총장임명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 교육학과 윤희원 교수가 당선되었다. 1997년 4월 7일 취임사에서 윤희원 총장은 충남대학교를 한국의 중앙지대에 우뚝 솟는 초일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에는 자연과학대학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기초과학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어 5년간 총 24억 원을 지원받았다. 1998년에는 뇌과학연구소를 신설하였으며, 다음 해인 1999년에는 두뇌한국21사업의 지역대학육성사업에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단이 선정되어 활동하였으며, 고기능성자성재료연구센터가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대전 해수욕장 신광장쪽에 임해수련원을 개원하여 교직원과 동문 및 학생의 학술활동과 수련회·오리엔테이션 등의 각종 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 12월 치러진 제14대 총장임명 후보자 선출선거에서 의과대학 정형외과 이광진 교수가 당선되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충남대학교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충남대학교를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총장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학사 행정과 교육환경의 전산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종합정보시스템의 설치로 학내의 모든 학사 및 행정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들은 윈도우 환경 하의 그림 운영 체제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게 되었다. 학생·교직원 등 이용자와 각 부서의 업무 분장에 따라 나누어져 있던 각종 행정 서비스도 단일체제로 전환되었고, 이용자가 한 장소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 높은 열린 공간 체제가 마련되었다. 또한 해외 학술 DB 검색망 및 컴퓨터 통신망이 개통되었고, 공동실험실습관 및 산학연교육연구관 등이 개관되었다. 이러한 연구 편의 시설의 준공으로 학술 정보 이용과 연구 소재 및 인력 정보 교류가 원활해졌고, 분야별 공동 연구는 물론, 산학연 공동 연구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공동실험실습관의 개관으로 연구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0여 년간 학술교류를 실시한 주변 연구소들과도 교류의 폭을 넓혀, 석·박사 과정을 공동으로 지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0년 5월 24일에는 박물관을 신축 개관하였다(《충대신문》 2000년 5월 15일). 변화하는 대학 교육의 환경에 걸맞게 종전의 개론식 과목 편성을 지양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관심영역별로 교양

과정 과목을 개편하였다. 현재까지 그 근본 취지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학부제에 이어 도입된 복수전공·연계 전공·복합 전공 제도의 도입에 따라 교양 과목의 이수 학점수 하향 조정, 영역의 축소 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대학 간 학생 교류 및 학점인정제를 추진하여 학생이 수업을 수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학술 교류에도 큰 발전을 이루도록 하였다. 연구비 수주액도 꾸준히 증가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었다. 2000년도 교수연구비는 전체 730건으로 전국 대학의 7·8위권에 해당되었다. 2000년에는 특허법무대학원을 개설하여 특허업무를 연구·담당하는 특성화 대학원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며, 2002년에는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돼지복제의 중심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충대신문》 2002년 8월 26일). 공과대학의 양현수 교수가 2005년 2월에 교수와 직원이 함께 참여한 선거에서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양 총장은 3월 17일 열린 취임식에서 국제교류와 세계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튼튼한 재정 확보, 언로 개방, 규정 정비 및 시스템 혁신, 지역사회와의 지적 인프라 공유 등의 공약 사항을 실천할 것임을 다짐했다.

2005년에는 인문대학에 부설 통역번역원과 한국어교육원, 언어임상연구원을 설립하였다. 2006년에는 자연과학대학에 수리과학연구소와 자연과학연구소가 신설되었다. 또한 2단계 BK21사업의 과학기술분야에서 5개 사업단(메카트로닉스 고급인력양성사업단·대덕특구연계 에너지환경소재 혁신인력양성사업단·산학연 네트워크첨단지능부품소재인력양성사업단·차세대통신인력양성사업단·차세대 정보기술SW인력양성사업단)과 2개 핵심사업팀이 선정되었으며,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지능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메카트로닉스인력양성사업단’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에는 고등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인지하여 충남대학이 차지하는 세계적 위상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역할 분석을 통해 충남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 VISION 2015”를 수립하였다. 이 중 교육부문은 학문단위의 재편과 학문단위별 교무계획의 수립, 강의 만족도 제고, 교육과정 개편, 교육역량 및 학생 지도 강화, 교육실습시설 첨단화와의 러닝(e-learning) 확대,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등을 기본 목표를 삼았다. 2006년부터 2년 연속 양성평등조치우수대학에 선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의학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생명시스템과학대학이 신축되었으며,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무장애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7년 3월 교수협의회의 명칭이 교수회로 변경되면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교수회는 교수·연구 및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학생의 지도·장학·후생 및 상벌에 관한 사항과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았다. 교수회에서는 대학 발전계획을 제시하는 등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수회는

2007년 이후 국립대법인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교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 2012년에는 대학 당국이 ‘총장직선제 개선안’이 포함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교과부와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7년 5월에 수용인원 4,600여 명의 학생생활관 건축이 민자를 유치하여 착공되었다(《충대신문》 2007년 6월 4일).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어 학내가 어수선한 가운데, 양현수 총장이 정책연구비 관련 논란의 책임을 지고 총장직 사퇴를 표명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양 총장은 검찰의 조사와 기소에 의해 8월 17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양현수 총장은 해직되었으며, 교무처장 김지환 교수가 총장직무대리로 총장 업무를 대행하였다. 교수회에서는 2007년 11월 14일 총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건축학부 송용호 교수가 당선되었다.

송용호 교수는 2008년 1월 21일자로 제16대 총장에 임명되어 2월 14일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송 총장은 취임사에서 학생과 교직원, 동문, 그리고 지역 주민이 모두 학교의 주인이 되는 ‘우리 총대’ 운동을 제안하였다. 또한 ‘DREAM(Democratically, Rebuild, Efficient, Active, Majestic)’ CNU 프로젝트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2008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예비 인가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였다. 이 외에도 의학전문대학원과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을 신설하였으며, 간호대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였다. 2009년에는 숙원사업이던 사범대학이 9개 학과로 설립되는 쾌거를 이루었다(《충대신문》 2008년 9월 8일). 또한 나노바이오융합기술연구소에서 나노소재기반 바이오의료진단기술에 관한 사업이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10년에는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과 신약전문대학원을 신설하였고, 재활병원 및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센터의 기공식이 있었으며, 인문관 증축 및 리모델링이 완성되었다. 2011년에 약학대학 6년제가 시행되면서 약학부를 약학과와 제약학과로 모집단위를 조정하였으며, 예술대학 오케스트라 연습실을 증축하였다. 재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500여 개 업체와 백마인턴십을 체결하고 기업 친화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우수강의 교수 포상 및 강의교재 개발비를 특별 지원하고, 연구기여 교수제 도입 등 우수연구교수 책임시수를 경감하였으며 세계적 저널논문게재 시 파격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충남대학교는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발표한 ‘2011 세계 500대 대학’ 순위에서 401-500위권 대학에 포함되는 성과(《충대신문》 2011년 9월 5일)를 거두었다.

충남대학교는 2012년, 단과대학 15개, 직할학부 1개, 일반대학원 1개, 전문대학원 5개, 특수대학원 7개로 중부권 최고의 거점 국립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우수 학생 유치와 면학 분위기 조

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며,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의 우수한 대학과 학생교환제도를 신설하여 외국대학에서 어학연수와 해외 인턴십을 통해 학점인정을 받도록 하였다.

이 시기 충남대학교는 대학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00년도에는 제4회 산학연 컨소시엄 평가 결과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2011년도에는 ‘2011년 대학취업역량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중국 상하이의 교통대학교 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세계대학 순위에서 400위권 대학,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로서는 1위에 선정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하는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인 HR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인재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대학 교육이 강의실과 연구실에서만 이루어지던 이전의 관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교육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졌다. 사회교육원의 확대 운영과 생활과학대학 주관의 생활문화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박물관에서는 충청남도 지방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박물관 대학이 열리기도 하였다. 박물관이 주관하는 ‘꽃길 축제’는 지역사회와 대학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민에게 휴식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는 알찬 기회로 자리를 잡았다.



제 1 절 교무·학사

1. 교육과정

충남대학교는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실천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대표적으로 1997년 국립대학교 간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협약 체결, 1998년 학부제 및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통한 전공 선택권 보장(1999년부터 학부제 실시) 등을 거론할 수 있으며, 교육 방법의 차원에서는 강의정원제·수강신청방법의 개선·사이버 강의의 확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선진화를 꾀하였다.

1) 졸업 이수 학점 변화

2001년 이전 입학자의 졸업학점은 140학점이었다. 그 중 사범계 학과의 전공과목에는 교직

과목 20학점이 포함되었다. 자연과학대학의 체육교육과는 150학점, 공과대학의 사범계 학과와 약학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160학점으로 졸업학점은 학과 특성에 따라 달랐다.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공에서 요구하는 공통과목 또는 전공과목 중에서 54학점 이상을 추가 이수하여야 하며, 두 전공에서 중복되는 과목의 이수는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전공과목(공통과목 제외)의 학점은 해당학과(전공)의 전공선택과목에서 이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동일 모집단위 내의 전공을 복수로 이수하는 자가 전공공통과목을 이미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에 대하여는 이수를 면제하되, 면제된 학점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졸업소요학점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2002년 신설된 5년제 건축학과의 경우에는 이수해야 할 졸업학점이 170학점이며, 간호학과는 150학점으로 조정되었다.

2003년에는 졸업이수학점 중 전공영역 학점을 상향하여 전공을 심화하였다. 졸업이수학점의 전공영역 학점이 예체능, 약학, 법학을 제외하고 54학점이었던 것을 60학점에서 90학점까지 강화하였다. 반면에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54학점에서 48학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사회과학대학의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자치행정학과와 공과대학 환경공학과가 졸업학점을 130학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제외), 생활과학대학의 모든 학과(전공)는 전공필수 이수학점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현장실습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였다. 부전공이수자의 경우 주전공 이수학점은 주전공 학과(전공)의 복수(부)전공 이수자의 이수학점에 맞추어 이수하고, 부전공 이수학점은 부전공학과(전공)의 교직 기본이수영역 과목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는 부전공학과의 교과교육영역 2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했다.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공에서 요구하는 공통과목 또는 전공과목 중에서 48학점 이상을 추가 이수하도록 하였다.

2006년에는 사범계 학과의 전공과목에 교직과목 20학점을 포함시키고 졸업학점을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전공영역은 강화하였다. 단 교육계열은 150학점, 의과·수의예과 72학점, 건축학과 164학점, 의학과 162.5학점, 간호학과 150학점, 약학대 160학점, 법과대 140학점이 졸업학점이다. 공과대학 및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제외)의 모든 학과(전공)와 생활과학대 일부 학과(전공)는 Pass/Fail 과목으로 운영되는 현장 실습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였다. 2007년에는 사범계 학과의 교직과목을 전공과목이 아닌 일반선택으로 조정하여 20학점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였다. 공과대학 및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제외)의 모든 학과(전공)와 생활과학대학의 일부 학과(전공)는 Pass/Fail 과목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였다. 2008학년도 입학자(편입학자 포함)부터 사범계 학과 및 교직 설치 학과의 교직 이수자는 교직 이수를 위한 부전공 이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부전공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이수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

2009년에는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까지 교직과목 20학점이었던 사범계학과 교직과목을 일반선택으로 변경하고, 2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였다. 대학의 졸업학점은 130학점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및 체육교육과와 간호대학은 140학점, 사범대학의 교육학과, 건설공학교육과, 기계금속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는 150학점, 약학대학 약학부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160학점, 공과대학 건축학 전공(5년제)은 164학점, 약학대학은 168학점으로 하였다. 또한 의예과 및 수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2학점 이상으로 하였다. 학생은 복수전공·부전공을 포함하여 이수한 전체 교과목 성적의 평점 평균이 1.75이상이어야 하고, 따로 정하는 미래설계 상담제 관련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학교육심화과정 등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전공)의 학생 및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에 참여하는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 및 별도의 인증조건을 충족하여야 했다. 2011년에는 연계 전공으로 도덕·윤리전공, 공통사회전공, 공통과학전공의 복수전공 이수자는 이수학점을 종전의 48학점에서 50학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 교육과정의 변화 및 운영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기초과정, 전공과정, 복수전공과정, 부전공과정, 연계전공과정, 교직과정, 평생교육사과정 등으로 구분 운영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교양과정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 교육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충남대학교도 변화하는 대학교육의 환경에 걸맞게 학문분류 방식의 교양과목 편성 원칙을 지양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관심 영역별로 분류하여, 종전의 개론식 과목 편성을 지양하는 교양과정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교양과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근본 취지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학부제와 후에 복수전공, 연계전공, 복합전공 제도의 도입에 따라 교양과목의 이수학점 수 하향 조정, 영역의 축소 조정 등을 거쳤다.

이에 충남대학교는 교양과정을 개편하기 위하여 1990년에 「교양교육과정개선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기초로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학내외의 광범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1991학년도에 교양 과정을 개편하였다.

- ① 교양교육의 목표는 인간주의, 지성주의, 실용주의의 조화에 둔다.
- ②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되, 가급적 미래지향적인 개편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③ 기본모형으로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며, 중핵교육과정 모형을 채택한다(단, 현실에 맞게 수정함).
- ④ 대학별, 학문계열별 자율성 및 특수성을 존중한다.
- ⑤ 충남대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교과목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교양교육교과목의 개설시기를 1~3학년으로 분산한다.
- ⑦ 공통필수과목은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선택 폭은 최대화한다.
- ⑧ 이수단위학점은 <3학점 원칙>을 기준으로 하되 과목 성격에 따라 1, 2학점을 허용한다.

교양교과목은 9개 영역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제1영역: 국어와 작문
- 제2영역: 외국어
- 제3영역: 철학과 사상
- 제4영역: 역사와 문화
- 제5영역: 인간과 사회
- 제6영역: 과학과 기술
- 제7영역: 기초과학
- 제8영역: 문학과 예술
- 제9영역: 체육과 보건

- ① 제1영역에서 3학점을 공통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2영역에서 인문·사회계열은 9학점, 자연계열 및 예술·체육계열은 6학점을 공통필수로 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제2외국어 3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 ③ 인문·사회 및 예술계열
 - 가. 제3, 4, 5영역(3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제6, 7영역(2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제8, 9영역(2개 영역) 중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나. 학문계열별로 특정 영역 또는 특정 과목에 대한 필수지정을 할 수 있다. 필수지정은 1개 영역에서 2과목까지이며, 전체영역에서 5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나머지 여유 학점은 제1~9영역에서 자유 선택하여 이수하게 한다.

④ 자연계열 및 체육계열

가. 제3, 4영역(2개 영역) 중에서 1과목 이상, 제5영역에서 1과목 이상, 제6, 7영역(2개 영역) 중에서 1과목 이상, 제8, 9영역(2개 영역) 중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학문계열별로 특정 영역 또는 특정 과목에 대한 필수지정을 할 수 있다. 필수지정은 1개 영역에서 2과목까지, 전체영역에서 7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계의 경우 제7영역에서만은 과목과 관계없이 최고 18학점까지 필수지정을 허용하고(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학점까지 초과 인정할 수 있음) 전체 필수지정 학점은 18(21)학점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나머지 여유 학점은 제1-9영역에서 자유 선택하여 이수하게 한다.

라. 의예과는 별도로 지정한다.

⑤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전체과목 학점의 30%로 한다.

한편 1997학년 입학생부터 교육수요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부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학부에 소속된 학생들이 각 전공에 배정받기 이전에 전공 탐색 차원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도록 공통필수 과목제가 전공과목에 도입되었고 교양과목의 이수학점 수가 하향 조정되었다.

1999년에 복수전공, 연계전공, 복합전공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교육과정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수 영역은 종전의 9개 영역에서 교척과목 영역을 포함하여 6개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개편 축소된 교육과정은 공통기초 증핵교육과정(Common Core Curriculum)으로서 학생들의 기본 학습 능력과 수학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과목의 배분에 있어서는 학문계열의 배분이수제(Distribution Requirement)를 채택하여 언어와 문학, 역사와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으로 구분하여 5개 영역으로 배분하였다. 과목 편성은 개론 또는 입문과목을 위주로 하고, 도구과목 또는 학습 기능 과목을 첨가하여 편성하였다. 그리고 정보화, 국제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어와 컴퓨터 강좌를 필수로 하고 특히 학생들의 문장력 지도를 위한 작문관련과목을 1영역의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였으며, 제1영역의 제2외국어를 포함한 10과목 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였다. 또한 단일 학문 분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과목도 그 과목이 핵심적 강좌가 아니면 일단 배제하였으며, 학점시수 감소에 따른 유사과목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였고, 학제적 과목 등은 권장하여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 밖에도 교양교육을 담당할 교수의 수와 개설강좌 수를 고려하여 편성하였다.

2006년에는 폭넓은 지식을 갖춘 최상의 인격체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윤리

의식과 도덕성을 함양하고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냉철한 지성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양 교육을 개편하였다. 교양과목의 영역분류는 기존의 교채과목을 제외하였으며, 제1영역의 영어와 문학이 언어와 문학으로 변경되었다. 모집단위별 교양과목 최저이수학점은 졸업이수학점 기준에 의하여 24학점 이상 모집 단위별로 정하였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든 학생은 영어 관련 과목 중에서 6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계열특성에 맞도록 인문·사회계 학과의 학생은 제1영역의 국어작문 관련 과목(국어작문Ⅰ, 국어작문Ⅱ, 한국어문학) 중에서 1과목과 나머지 과목 중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자연계 학과의 학생은 제1영역의 국어작문 관련 과목(국어작문Ⅰ, 국어작문Ⅱ, 한국어문학) 중에서 1과목과 제4영역의 수학 관련 과목(수학Ⅰ, 수학Ⅱ, 기초수학, 일반수학) 중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다. 의예과 및 수의예과 학생은 자연계에 준하여 이수하되, 제1영역부터 제3영역 내에서 6학점, 제4영역에서 15학점, 제5영역에서 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다. 예·체능계 학과의 학생은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여유학점은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 학생이 자유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었다. 공학교육인증과정의 학생은 공학교육인증과정의 교양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2008학년도 이후의 입학자 교양과목의 영역분류는 전과 동일하나 이수 방법은 변경되었다. 모든 학생은 영어 관련 과목(통합영어Ⅰ, 통합영어Ⅱ, 시사영어, 고급영문읽기) 중에서 6학점 이상과 국어작문 관련 과목(국어작문1, 국어작문2, 한국어문학) 중에서 3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교양과목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이 포함되도록 이수하되, 인문사회계 학생은 제1영역 이수 시 국어작문 관련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중에서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했다.

2010년도 교과목 편성은 공통기초 중핵교육과정으로서 학생들의 기본학습 능력과 수학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유형을 채택하였다. 과목의 배분에 있어서는 학문계열 배분이 수제를 채택하여 언어와 문학·역사와 철학·사회과학·자연과학·예체능으로 구분하여 5개 영역으로 배분하였다. 과목 편성은 개론 또는 입문과목을 위주로 하고, 도구 과목 또는 학습 기능 과목을 첨가하여 편성하였다. 정보화, 국제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어강좌를 필수로 하고, 특히 학생들의 문장력 지도를 위한 작문 관련 과목을 1영역의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였으며, 제1영역의 제2외국어 등을 포함한 나머지 교과목 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였다(인문·사회계열). 단일학문 분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과목도 그 과목이 핵심적 강좌가 아니면 일단 배제하였으며, 학점시수 감소에 따라 유사과목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였고, 학제적 과목 등은 권장하여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교양교육을 담당할 교수의 수와 개설강좌 수를 고려하여 편성하였다.

〈표 32〉 이수영역 및 배정학점 변화

1998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에 의한 이수영역	1999~2005학년도 교육과정에 의한 대체이수영역	2006~2007학년도 교육과정에 의한 대체이수영역
제1영역(국어와 작문) [3학점 필수]	제1영역의 국어작문 I, 국어작문 II 과목 중에서 이수	제1영역의 국어작문 I, 국어작문 II 과목 중에서 이수
제2영역(외국어) 인문·사회계: 9학점 필수 자연계·예체능: 6학점 필수	교책영역의 영어과목과 제1영역 (언어와 문학)의 과목 중에서 이수 (단, 국어작문 I, II 제외)	제1영역의 영어과목과 언어와 문학의 과목 중에서 이수(단, 국어작문 I, II 제외)
제3영역(철학과 사상) 제4영역(역사와 문화)	제2영역(역사, 철학)의 과목 중에서 이수	제2영역(역사, 철학)의 과목 중에서 이수
제5영역(인간과 사회)	제3영역(사회과학)의 과목 중에서 이수	제3영역(사회과학)의 과목 중에서 이수
제6영역(과학과 기술) 제7영역(기초과학)	제4영역(자연과학)의 과목 중에서 이수	제4영역(자연과학)의 과목 중에서 이수
제8영역(문학과 예술) 제9영역(체육과 보건)	제5영역(예술과 체육)의 과목 중에서 이수	제5영역(예술과 체육)의 과목 중에서 이수

(2) 기초과정

기초과정의 교육목표는 동일모집단위(계열, 학부, 학과) 전공이수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여 전공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이루는 데 있었다. 교과목 편성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 ① 기초과정 편성여부는 모집단위별로 협의하여 정하며, 편성시 이수학점은 12학점 이내로 1학년 1, 2학기에 고루 편성한다.
- ② 기초영역으로 분류된 과목을 다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으로의 중복 편성은 할 수 없다.
- ③ 복수(부)전공자는 복수(부)전공학과의 기초영역 이수는 면제한다.
- ④ 기초과목에 대한 폐지 재이수는 대체 지정된 기초과목으로만 가능하며, 기초과목에 대한 이수 면제 시 이수 면제된 학점은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3) 전공과정

전공과정은 각 학과 또는 전공의 전문 학술연구에 직접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서, 모집단위 내 모든 전공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전공공통과목」과 학과 또는 전공별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통합운영하는 학과(전공)는 「전공과목」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타 학과의 전공과목 중 「전공선택인정과목」을 지정하여 전공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전공공통과목과 전공선택과목 또는 전공선택인정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학과(전공)별로 정한 졸업이수학점 배분 구조표에 따라 정한 최소 전공인정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했다.

(4)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자기설계전공

① 복수전공

1999년 도입된 복수전공은 학생이 입학하여 최초로 배정받은 학과 또는 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을 추가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였다.

가. 이수 범위: 자연과학대학의 의예과 및 수의예과, 공과대학의 건축학과(5년제), 법과대학 법학전공, 약학대학 각 학과, 의과대학 각 학과, 예술대학의 회화과·조소과·산업미술학과·관현악과, 수의과대학의 수의학과, 생활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나. 이수 대상: 복수전공이 제한된 학과(전공)의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재학생)은 제2학년 2학기부터(3개 학기 이상 이수자) 복수전공을 지원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이수 방법: 복수전공 이수를 허용한 학과(전공)의 전공과목(공통과목+전공필수과목+전공선택과목+전공선택인정과목) 중에서 학과(전공)별 최소 전공인정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원자격을 복수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교과교육영역 4학점(공통과목은 5학점)을 이수하고, 교직 기본이수 영역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전공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두 전공 간에 중복되는 과목이 있을 때에는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주전공 및 복수전공 과목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라. 학위 수여 등: 복수전공 이수자에 대하여는 전공별로 각각 학위를 수여하며, 사범 대학 각 학과 학생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교원자격표시 과목과 관련된 학과(전공)를 복수 전공한 때에는 각각의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② 부전공

부전공은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이다.

가. 이수 범위: 자연과학대학의 의예과 및 수의예과, 공과대학의 건축학과(5년제), 법과 대학 법학전공, 약학대학 각 학과, 의과대학 각 학과, 예술대학의 회화과·조소과·산업미술학과·관현악과, 수의과대학의 수의학과, 생활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나. 이수 대상: 부전공이 제한된 학과(전공)의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재학생)은 제2학년 2학기부터(3개 학기 이상 이수자) 부전공을 지원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이수 방법: 부전공이수자는 당해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부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교과목 구분

- 부전공필수과목: 부전공필수과목은 각 학과 교과목번호 앞에 *로 표시하여 지정하였다.
- 부전공선택과목: 부전공학과의 부전공필수과목(*표시과목)을 제외한 전공과목(공통과목+전공필수과목+전공선택과목+전공선택 인정과목)을 임의로 선택 이수하는 과목을 말한다.

마. 학위 수여 등: 부전공이수자에 대하여는 학위증에 부전공 이수 사실을 기재한다. 단 2008학년도 입학자(편입학자 포함)부터는 사범계학과 및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는 교직이수를 위한 부전공 이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부전공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이수 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연계전공

1999년 도입된 연계전공제도는 2개 이상의 학과·학부·전공 간 합의하여 운영하는 전공을 연계전공이라 하며 소속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연계전공을 복수(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었다. 단, 교직설치학과인 도덕·윤리, 공통사회, 공통과학은 참여 학과 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했다. 연계전공에 대한 복수(부)전공 이수 방법 및 학위 수여와 관련한 사항은 복수(부)전공과 내용이 같았다.

<표 33> 연계전공명에 따른 연계학과(전공)

연계전공명	연계학과(전공)	주 관	연계전공명	연계학과(전공)	주 관
생물정보학	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생화학전공 생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컴퓨터전공	생물학전공	미국지역학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무역전공 법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정보학과	영어영문학과
나노기술	재료공학전공 금속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정밀공업화학전공 섬유공학전공 전자공학교육과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금속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재료공학전공	중국통상	중어중문학과 무역전공	중어중문학과
기초의과학	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생화학전공 생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화학전공	교육공학	교육학과 언론정보학과 경영학과 컴퓨터전공 기술교육과	교육학과
목조건축 및 인테리어	임산공학전공 건축공학과	임산공학전공	식물프론티어 바이오	생물학전공 원예학전공 작물과학전공	생물학전공

연계전공명	연계학과(전공)	주 관	연계전공명	연계학과(전공)	주 관
디 자 인				응용 생물학 전공 약학 전공	
도 덕 · 윤 리 ※ 교 직 윤 영	철 교 육 학 과	철 학 과	유 럽 지 역 학	철 학 과 독 어 독 문 학 과 사 학 과 정 치 외 교 학 과 경 영 전 공 무 역 전 공 법 학 전 공	철 학 과
공 통 사 회 ※ 교 직 윤 영	사 회 학 과 행 정 학 과 경 제 학 과 사 학 과	경 제 학 과	환 경 조 경 학	산 림 환 경 자 원 학 전 공 원 예 학 전 공 지 역 환 경 토 목 전 공	산 림 환 경 자 원 학 전 공
공 통 과 학 ※ 교 직 윤 영	화 학 전 공 물 리 학 전 공 생 물 학 전 공 지 질 환 경 과 학 전 공 해 양 환 경 과 학 전 공 응 용 생 물 학 전 공	화 학 전 공	글 로 벌 이 트 레 이 드	무 역 학 과 경 영 학 과 국 제 경 영 학 과	무 역 학 과

④ 교직이수

사범계 학과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 사범계 학과 또는 일반교직과정 설치학과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2007년도 이전 입학자에 한하여 교직부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교직부 전공의 경우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2006-2007학년도 사범계학과는 입학 정원의 50%, 교직과정설치학과는 입학 정원의 10%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었으며, 2008학년도 사범대학이 신설되면서 교직부전공제도가 폐지되었다. 교직과정 이수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가. 교직과정은 사범대학에서 양성되지 않는 과목 또는 부족교원의 충원을 위한 준사범적 교원의 양성제도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설치 승인을 받은 학과(전공) 학생들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이수하는 과정이다.

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중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계획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다. 교과목이수: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평점 환산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라. 교직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 학점, 기본이수영역은 정한 바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기본이수영역과목이 교양과목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학점만큼 전공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까지 교직과목 20학점이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부터 교직과목 2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⑤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과정은 평생교육기관(단체)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등에서 평생교육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위하여 이수하는 과정이다.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전공), 학년에 관계없이 학기 초 평생교육사 이수 신청을 하여 이수해야 했다. 평생교육사는 2급과 3급으로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과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급 이수자는 21학점, 3급은 30학점을 이수하여야 했다.

⑥ 자기설계전공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자기설계전공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자기설계전공의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한 기준에 따랐다.

3) 강의 평가 및 성적 평가

수업의 질 제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의평가” 제도의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학점 인플레 문제를 개선하여 LINC사업, ACE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기관평가인증 등 각종 평가에서 유리하게 대비함은 물론 성적의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였다. 학칙 제34조(강의평가)의 2항에 의해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매 학기 성적 공시 기간에 강의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여 강의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제36조(성적평가)제2항 제1호에 의해 성적평가 시 상대평가 성적등급 별 분포비율 기준을 적용하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학장이 승인한 전공과목 및 기초과목”을 삭제하고 이론 강의를 병행하지 않는 실험(실습·실기)과목과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과목, 교직과목, 평생교육사 과목, 군사학과목,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의 과목(신설 2010년 2월 16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으로 하여 성적평가 기준을 강화하였다. 학업성적은 각 대학원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대학은 D⁰급 이상을, 대학원은 C⁰ 이상을 급제점으로 하였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과정은 D⁰ 이상을 급제점으로 하였다. 각 대학원의 성적평점평균과 등급에 관하여 각 대학원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랐다.

4) 정규교육과정 외 인정 학점

이 시기 충남대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외 영어능력점수, 사회체험활동, 의약바이오센터교육프로그램을 학점으로 인정했다. 영어능력 학점인정은 학생이 재학 중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충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의토익 포함)에 일정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영어능력인정과목” 3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했는데,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은 TOEIC 또는 TOEFL, TEPS로 하되, TOEIC 시험을 기준으로 700점 이상을 졸업학점 인정의 합격선으로 한다. TOEFL 및 TEPS 점수는 TOEIC 점수와 대비한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TOEIC 기준 800점 이상자에게 장학생 선발, 취업추천,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선발,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었다.

사회체험활동은 백마인턴십, 해외체험활동, 학교기업 참여가 인정되었다. 백마인턴십은 총장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국내 기업체 등 기관에 파견하여 현장실무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해외체험활동은 총장이 인정하는 다른 국가의 기관, 교육기관이나 어학기관에서 하는 해외인턴십과 해외어학연수가 해당된다. 그 밖에 학교기업 참여를 할 경우에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사회체험활동의 학점인정은 총 36학점 이내로 한다. 이 경우에 백마인턴십은 18학점을, 해외체험활동은 36학점을, 학교기업은 30학점을 각각 초과하면 안 되었다. 당시 사회체험활동의 이수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였다. 사회체험활동의 성적은 합격(P), 불합격(F)으로 평가하여 표기했다.

수의학과, 약학부 소속 학생을 제외한 의약바이오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약바이오센터에서 설강(또는 지정)하는 과목을 매 학기 1과목 이상을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당 이수학점은 3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했다.

5) 학생 교류와 학점 인정제

충남대학교가 지역 내 대학과 학술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간에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것은 1994년의 「대전·충남지역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이 최초였다. 이 협정에서는 대학원의 학점교환제를 포함하여 대학 간 학술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같은 해에 한국과학기술원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음으로써 학부 학생들의 교류와 학점교환제가 실시되었다. 그 후 1997년도까지 8개 학기(계절학기 포함) 동안 연인원 총 135명의 한국과학기술원 학생들이 충남대학교의 강좌를 수강한 바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이 가능해진 것은 1997년도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97년 2월 24일에 충남대학교와 10개 국립대학교 간 학생 교류와 학점 인정 협약을 맺는 한편, 5월에는 전남대학교에서 구체적 시행 방안을 협의하였다. 협약의 대상 학교는 충남대학교를 포함하여 서울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등 10개 국립대학교이며, 이 협정에서 대학들은 학생 교류는 물론 교직원의 교류, 정보 및 자료 교환, 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추진, 연구 기자재 및 시설물의 공동 이용 등을 합의하였다. 1997년 7월 1일에는 상명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원생부터 학점교환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2001년 학기 계절학기부터는 한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 2001년 2학기부터는 순천향대학교, 2001년 동기계절학기부터는 공주대학교로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2012년에는 총 17개교(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한밭대, 한국과학기술원, 한남대, 순천향대, 공주대, 숙명여대, 중앙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대학원생 또는 학부 학생들의 교류 및 학점교류를 하였다.

6) 계약학과 운영

2012년부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충남대학학칙 제6조 2항에 따라, 계약학과인 산업교육위탁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였다.

〈표 34〉 계약학과 명칭, 정원 및 학위

학위과정	명 칭	정원	학위명	주관대학	운영학과	비 고
학사	계약학과	3	약학사	약학대학	계약학과	미운영
학사	해군학전공	30	군사학사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채용조건형 (해군소위 임관)
석사	산업시스템공학과	20	공학석사	산업대학원	산업시스템공학과	재교육형
석사	차세대전자기관 회로학과	15	공학석사	공과대학	차세대전자기관 회로학부	채용조건형 (삼성전기 ACI 입사)
석사	경영학과 기술경영 전공	20	경영학석사	경상대학	경영학부	재교육형

2. 입시 제도

대학입시의 관리를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교육개혁심의회 결정에 따라 대학별 독자적인 입학시험운영이 1990년 이후부터 시행되었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대입학력고사, 고교 내신, 면접고사를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종전의 대입에서 반영 비율이 높지 않았던 논술고사 대신에 대학별 면접고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선시험, 후지원’이 아니라 ‘선지원, 후시험’ 방식을 채택하였다. 학력고사를 보기 전에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 당일에는 해당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 방식을 택해 극심한 눈치작전 등 선시험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면접고사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역시 대학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아 대학의 신입생 선발권 보장이란 취지에 부합하지는 못했다.

수능 이후기인 1994년부터는 학력고사가 암기 위주의 단편적 지식 측정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고사가 도입되었으며, 이 시기는 14년 만에 본고사가 부활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수능은 통합 교과서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했는데, 수험생의 선택권은 넓히고, 출제 과목 수는 줄여 입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응시 과목은 언어·수리·외국어·사회/과학/직업탐구·제2외국어/한문영역에서 선택 가능하였다. 이 시기 선발 방법은 주로 수능과 고교내신, 대학별 전형 을 병행하는 양상을 띠었다. 충남대학교도 1994년부터 실시되는 대학입시제도에서는 보다 다양한 평가방식을 취하였다. 학생선발의 기본 자료로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필수로 하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성적과 대학별 고사 성적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내신성적은

40% 이상이 반영되도록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고사의 실시 여부, 반영비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1회 또는 2회,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학생은 지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중에서 성적이 좋은 쪽으로 제출할 수 있었다. 전문대학도 필요한 경우에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활용할 수 있었다.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입시 유형은 고등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방식,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합산하는 방식, 내신성적과 대학별 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방식, 3가지 평가성적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 등 4가지 방식으로 하였다.

본고사가 부활하였으나 애초 본고사가 가진 문제로 인하여 학교 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1997년부터 국공립대 본고사를 폐지하고 사립대 입시를 전면 자율화한다’는 것이었다. 본고사는 1996년까지만 실시되고 다시 폐지되었다. 이어 1995년 교육개혁안에 포함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1996년에는 대학별 모집단위를 학교별 모집단위에서 학부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때부터 대학 1, 2학년은 학부 소속으로 다니고 3학년에 올라가면서 세부전공을 정하도록 했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으로 본고사가 전면 폐지됐고 고교내신은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됐으며 전·후기 2회로 제한했던 수험생 지원 기회는 4~5회까지 가능케 되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고사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또한 1998년 1월 4일 정부는 ‘2000년부터 교과과정을 30%로 축소한다’는 7차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교 1학년까지는 기본 소양교육을, 고교 2학년부서는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이 다양한 수능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학과 특성에 맞는 과목 영역 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고교 교육과정과 동떨어진 통합교과, 고차원적인 수능시험문제 출제로 인해 고교교육의 파행 운행과 사교육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신입생 선발 방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자율 결정에 의하였다. 이때의 대입제도는 ‘대입시험’에서 ‘대입전형’으로 바뀌었으므로 대입제도의 운영 틀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특징은 특차모집을 폐지하고 특별전형 확대, 무시험전형제 도입, 수시모집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선발 방법으로는 수능과 학생부, 논술에 추천서, 심층면접 등이 추가돼 대학의 자율권이 확대됐다. 교과 성적 자료 이외에도 비교과 영역의 다양한 전형자료들을 대입 선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모집 방법과 시기도 특별전형·수시모집·정시모집 등으로 다양해졌다.

2006년도에는 일반전형이 축소되고 특별 전형과 수시 전형이 확대되었다. 정시모집의 특별 전형으로는 면접 100%와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선발하는 글로벌CNU 전형이 신설되었다.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300점 만점으로 100% 선발하는 ‘가군’과 수능 300점과 학생부 200점 총 500점 만점으로 선발하는 ‘나군’으로 분할모집 하였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반영비율은 인문계의 경우 언어는 40%에서 32%로, 수리는 8%에서 16%로 조정되었고 자연계는 언어가 8%에서 16%로, 수리는 40%에서 32%로 각각 조정되었다. 2007년도 수시 2학기 모집에서는 도서벽지출신자 77명과 정원 외로 특수교육대상자 9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였다.

2008년 수시2학기 모집에서는 특기자특별전형을 전문분야우수자로 변경하였으며 면접·수학 능력평가(100%)로 선발하는 외국고교과정 이수자전형과 교과(70%) + 비교과(10%) + 면접(20%)의 실업고출신 고교장추천자전형이 신설되었다. 또한 정시 ‘나군’에서 선발했던 정원 외 실업계 출신자를 수시 2학기로 변경하여 선발하였다. 그리고 정시 ‘나군’에 속해있던 음악계를 정시 ‘가군’으로 모집군을 변경하였다. 2009년도에는 수시2학기 모집 특별전형에 검정고시출신자 전형이 신설되었고, 정시 ‘나군’의 체육계를 정시 ‘가군’으로 모집 군을 변경하였다.

2010년도에는 입학사정관에 의한 신입생 선발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시험 성적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부등 정량적인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환경, 특기, 대인관계, 논리력, 창의력 등 개인의 잠재력까지 정성적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신입생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PRISM 인재 111명과, 농어촌학생 전형 150명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며 선·효행 및 사회봉사자전형, 전문계고 출신자(지역협력공업계고교장 추천자 포함)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검정고시출신자 전형은 입학사정관 참여전형이다. PRISM인재는 국내 일반 또는 자율고등학교 졸업에 정자로 열정(Passion), 책임의식(Responsibility), 학문적 소양(Intelligence), 성실한 자세(Sincerity), 전공수학 역량(Matching)을 갖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만 지원 가능하며 직업교육(전문계) 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다.

2011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도 확대로 선·효행 및 사회봉사자 76명, 사회적배려대상자 37명, 검정고시출신자 23명, PRISM인재 265명, 농어촌학생(수시) 100명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하였다. 2012년에는 수시모집 전형에서 ‘국가공헌자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효행 및 사회봉사자와 PRISM 인재가 ‘PRISM 인재’로 통합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기회균등선발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로 전형했던 선효행 및 사회봉사자가 삭제되고 검정고시출신자 22명, PRISM인재 371명, 농어촌학생 100명을 선발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의 변화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광복 이후 입시제도 변화

연도(학년도)	내 용
1945~1953	대학별 단독고사
1954	국가연합고사+대학별 고사
1955~1961	대학별 본고사+고교내신(권장)
196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1963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대학별 본고사
1964~1968	대학별 단독고사
1969~1972	대입 예비고사+대학별 본고사
1973~1980	대입 예비고사+대학별 본고사+고교내신
1981	대입 예비고사+고교내신
1982~1985	대입 학력고사+고교내신
1986~1987	대입 학력고사+고교내신+논술고사
1988~1993	대입 학력고사+고교내신+면접고사
1994~1996	대입 수학능력시험+고교내신+대학별 본고사
1997~2001	대입 수학능력시험+학교생활기록부+논술고사
2002~2007	대입 수학능력시험+학교생활기록부+논술고사+심층면접+추천서 등
2008~2012	대입 수학능력시험(등급제)+고교내신 등급제+대학별 다양한 전형

3. 교원 임용 제도 및 연구 활성화 제도 제(개)정

충남대학교는 취업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현장 적응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연구소와 산업현장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대학 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금교원, 학연교원, 산학협력교원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원로 교수들의 식견과 덕망을 활용하기 위한 명예교수 제도도 더욱 활성화하였다. 한편 현직 교원들의 자질 향상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년제의 도입, 교원업적 평가제의 도입 및 교원의 신분 안정과 관련된 교원 정년보장제를 도입하였다.

교원 임용 제도 및 연구 활성화 제도에 제(개)정 내역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87년 4월 명예교수 제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그 해부터 명예교수를 임용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 더욱 활성화하였다. 1990년 5월 겸임교수 제도가 도입되었다. 겸임교원은 국가기관·교육 및 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거나 국가인정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충남대학교에서 교육 또는 공동연구 등을 수행

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이다. 이 제도는 초기에 대덕 연구단지의 고급인력을 대학교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990학년도부터 도입 실시하였다.

겸임교수 활용지침이 1990년 5월에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겸임교수는 3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강의를 하며 수강생이 최소한 1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대학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논문지도,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기타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등에 겸임 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활용 안에 따라 1990년 9월에 25명(이 중 3명은 총장 발령)이 겸임교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충남대학교 13명의 교수가 연구단지 내 연구소의 겸임연구원으로 발령을 받게 되고, 나아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이 제도는 과거에는 일시적인 교류에 불과했던 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1990년 11월에는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이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대학교 훈령 제679호로 공포되었다. 1992년에는 정년보장제도가 개정되었다. 1976년 도입된 교수 재임용제도 하에서 재임용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되자 교육부는 1992년부터 부교수와 교수에 한하여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임강사, 조교수는 종전처럼 기간제 임용을 하나 부교수와 교수는 심사에 의해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4년에는 9월 훈령 제813호로 초빙교원에 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실시하게 되었다. 초빙교원은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국가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외국인으로서 일반 또는 특수한 교과를 외국어로 전담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또는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으로 국·내·외의 사립대학에서 초빙된 교수 및 총장이 학술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초빙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는 자격심사, 교육·연구경력심사, 면접심사로 구분 실시하였으나,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빙교원은 강의 또는 실험 실습 담당, 대학(원)생 연구지도, 특별강의 및 세미나, 충남대학교 전임교수와 공동연구 및 충남대학교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의 수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교원은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충남대학교에서의 교육·연구 또는 학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이다. 기금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충남대학교 교원과 동일하며 교육·연구 또는 학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대학(원)장은 대학(원)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994년에는 연구교원 제도를 정비하였다. 같은 해 4월 29일 제정 공포된 훈령 제809호를 근거로 정비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학문 영역의 개척과 교육의 질적 심화 및 발전을 위하여 일

정한 기간 동안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연구교원에는 연구소 전임연구교원과 연구년제 연구교원으로 구분되는데, 연구소 전임연구교원의 연구기간은 관련 연구사업 계획기간에 한하며, 연구년제 연구교원의 연구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있다.

2000년 8월 21일에 훈령 제1006호로 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제정된 교원업적평가 제도는 능력급국비연구비를 지급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나 각 학문 영역의 특성이 다양한 점 때문에 평가 기준 설정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교원도 연봉제로 계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교원업적평가는 어떤 형태로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에는 명예교수의 자격에 관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규정은 명예교수의 자격에 관하여 충남대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당초 25년 이상 근속 조항을 20년 이상으로 낮추었다가 다시 15년으로 외형적으로는 자격조건을 완화시켰으나 교육상·학술상의 업적을 별도조건이 아닌 동시에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여 질적으로는 명예교수의 자격을 강화시켰다.

2009년에는 학연교원 제도가 신설되었다. 학연교원은 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 동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동 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연구 및 학사업무를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충남대학교는 2009년 분석대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소속 교원 중 학연교원을 임용하고 있다.

2011년 신설된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한다. 총장은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절차를 거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할 수 있고 산학협력 실적이 저조한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학 및 대학원의 신설과 변경

이 시기에는 충남대학교의 질적 양적 팽창과 사회와 학문변화에 따라 많은 학과 및 대학, 대

학원이 변화 발전하였고 신설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989년에는 문과대학 학과 신설,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보건대학원 신설, 일부 학과 명 변경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문과대학에 국사학과, 신문방송학과, 약학대학에 제약학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정치외교학과, 회계학과, 음악과, 미술학과, 박사학위과정에 수의학과, 교육대학원에 상담심리교육전공을 각각 신설하였다. 보건대학원이 신설되었고, 문과대학 도서관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법과대학의 법학과가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예술대학의 미술학과가 회화과와 조소과로 학과명을 변경하였다.

1991년에는 학과 성장에 따른 대학 분리, 학과 신설, 학위과정 설치, 학과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 1982년 3월 1일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개설된 이래, 1987년 3월 1일에는 석사과정, 1989년 3월 1일에는 박사과정을 개설하면서 발전해오던 수의학과가 1991년 3월 수의과대학으로 분리 신설되었다. 그리고 문과대학에 고고학과가 신설되었으며,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임산공학과, 무역학과, 문헌정보학과, 환경공학과, 박사학위과정에 공업화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생화학과, 고분자공학과가 각각 신설되었다. 또한 석사학위과정의 전자계산기공학과가 컴퓨터공학과로, 석·박사학위과정의 식품가공학과가 식품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2년은 공과대학 학과 신설, 입학과의 명칭 변경, 학·연협동연구과정 신설, 박사학위과정 신설 등이 진행되었다. 공과대학에 정보통신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를 신설하고 농과대학의 입학과가 산림자원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에 학·연협동연구과정이 신설되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컴퓨터공학과, 농업경제학과, 해양학과, 회계학과, 교육대학원에 전자계산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을 신설하였다.

1993년은 문과·공과대학의 학과 신설,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 신설, 특수대학원의 전공 신설, 학과 명칭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 문과대학에 언어학과, 공과대학에 전파공학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국사학과, 박사학위과정에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사회학과, 교육대학원에 미술교육전공, 보건대학원에 산업보건학전공을 신설하였으며 교육심리 및 교육방법전공이 교육심리 및 교육 과정전공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1994년에는 교육부로부터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이 국책공과대학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외에 학과 신설, 전공 분리개편 등이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공과대학을 국책공과대학으로 지정하였다. 사회과학대학에 사회복지학과, 공과대학에 컴퓨터공학교육과,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미생물학과, 간호학과, 보건대학원에 의료기술학전공, 교육대학원에 농업교육전공 중 농업기계 교육분야가 신설되고 국어교육전공이 국어교육전공과 한문교육전공으로 분리 개

편되었다. 그리고 농과대학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신설되었고, 자연과학대학의 전산학과가 컴퓨터과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5년에는 학부 신설, 석·박사과정 신설, 학과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학과 특성화 절차가 진행되었다. 자연과학대학에 무용학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천문우주과학과가 신설되었고,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에서 임학과가 산림자원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섬유공학과, 금속공학과,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및 정밀공업화학과를 신소재공학계열로 특성화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1996년에는 학부제 개편이라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공과대학은 금속공학과와 재료공학과를 통합하여 재료공학부로,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를 통합하여 화학공학부로,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통합하여 기계공학부로 개편하였고, 법과대학은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를 통합하여 법학부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신문방송학과, 사회체육학과, 항공우주 및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박사학위과정에 무역학과, 정치외교학과, 임산공학과, 교육대학원에 유아교육전공,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선박해양공학과, 지질공학과가 신설되었고 전자계산교육전공이 컴퓨터과학 교육전공과 컴퓨터공학교육전공으로 분리되었다.

1997년에도 1996년에 이어 학부제 개편이 계속되었다.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를 통합하여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농과대학 농학과와 원예학과를 통합하여 식물자원학부로, 산림자원학과와 임산공학과를 통합하여 환경임산자원학부로, 축산학과와 낙농학과를 통합하여 동물자원학부로, 농생물학과와 농화학과를 통합하여 응용생물화학부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자치행정학과, 제약학과, 전파공학과, 박사학위과정에 공업교육과가 신설되고, 항공우주 및 메카트로닉스공학과가 항공우주공학과와 메카트로닉스공학과로 분리되었으며, 대학원 학과 간 협동과정에 의공학분야 석·박사학위과정과 보건학 박사학위과정이 신설되었다.

1998년에는 학과를 통합하여 학부로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외에 학과 신설, 석·박사학위과정 신설이 진행되었다.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천문우주과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해양학과를 통합하여 기초과학부로 개편하였고, 자연과학대학에 수의예과를 신설하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정보통신공학과, 박사학위과정에 천문우주과학과, 환경공학과를 신설하였다.

1999년에도 학과 통합을 통한 학부 개편 절차가 마련되었다. 또한 대학원 협동 과정이 개설되었고, 충남대학교가 “고급두뇌21 지역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복수전공, 연계전

공 및 복합전공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교육과정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시장개방’, ‘대학자율화’ 및 ‘국제적 인적자원 개발’과 같은 고등교육 분야의 정책변화에 따른 세계화와 교육개방으로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수혜 기회가 확대되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를 기초과학부에 통합하였으며,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화학공학부, 재료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를 분리하고, 재료공학, 금속공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정밀공업화학, 섬유공학과를 신소재공학부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농과대학 응용생물화학부와 식품공학과를 통합하여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로, 농공학과와 농업기계공학과를 통합하여 농공, 농업기계공학부로, 약학대학 약학과와 제약학과를 통합하여 약학부로 개편하였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언어학과, 고고학과, 사회복지학과, 무용학과, 특허협동 과정을, 박사학위과정에 제약학과를 각각 신설하고 교육대학원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였다.

2000년에는 대학원 신설, 대학 명칭 변경, 학과 통합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법무대학원을 신설하였다. 가정대학이 생활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가정관리학과도 소비자생활정보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를 통합하여 정보통신공학부로, 농과대학 농공·농업기계공학부가 농업공학부로 개편되었다.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일어일본학과, 소비자생활정보학과를, 박사 학위 과정에 심리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파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체육학과를 신설하고, 대학원 학과 간 협동과정 석사과정에 기록보존학협동 과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금속공학과, 섬유공학과, 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산업공학과, 식량공학과, 지질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를 통합하여 산업공학으로 개편하였다.

2001년에는 학과 명칭 변경, 학과 폐지 및 통합 등이 진행되었다. 농과대학을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공과대학 공업교육계열 컴퓨터공학교육과가 폐지되면서 정보통신공학부로 통합되고 사회과학대학의 신문방송학과가 언론정보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정보통신공학과를 신설하였다.

2002년에는 대학원 신설, 학과 명칭 변경, 5년제 학과 신설 등이 진행되었다. 평화안보대학원을 신설하였다.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부를 전기정보통신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기전자전파전공, 컴퓨터전공을 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기 공학전공, 컴퓨터전공,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으로 조정하고,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건축공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5년제인 건축공학과를 신설하였으며,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전공을 작물생산과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대

학원 박사과정에 일어일문학과, 언어학과,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에 한문학과를 신설하였다. 같은 해 8월 7일에는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터를 개소하였고, 2002년 9월 6일 국책사업단과 신소재연구소를 통합하여 나노·신소재공학원으로 개편하였다.

2003년에는 경상대학의 경상계열 학과를 학부 체재로 개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무역학부가 경영학부 경영전공, 회계전공, 국제경영전공과 경제·무역학부 경제전공, 무역전공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의 수학전공, 통계학전공, 물리학전공, 천문우주과학전공, 화학전공, 생화학전공, 생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지질환경공학전공, 해양환경과학전공이 세분화되어 수학·정보통계학부 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물리·천문우주과학부 물리학전공, 천문우주과학전공, 화학·생화학부 화학전공, 생화학전공,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미생물학전공으로 개편하였고, 지구환경과학부를 지질환경과학전공, 해양환경과학전공으로 조정하였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국사학과, 고고학과, 자치행정학과를 신설하였고, 학과간 협동과정의 박사과정에 나노기술협동과정과 특허법무협동과정, 석사과정에 나노기술협동과정이 신설되었고 평화안보대학원에 군사학도가 신설되었다.

2004년에는 인문대학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 또한 총장 직할 학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문과대학을 인문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생물학전공, 미생물학전공)를 총장 직할 생명과학부(생물학전공, 미생물학전공)으로 조정하고, 공과대학 공업계열(건축공학교육과, 금속공학교육과, 기계공학교육과, 전기공학교육과, 전자공학교육과, 토목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을 건축·토목공학교육학과군(건축공학교육과, 토목공학교육과), 전기·전자공학교육학과군(전기공학교육과, 전자공학교육과), 기계·금속공학교육학과군(기계공학교육과, 금속공학교육과), 기술·화학공학교육학과군(기술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으로 조정하였으며, 건축·토목·환경계열학과군(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축학과)을 건축학부(건축학전공 5년제, 건축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학과군(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선박·항공계열학과군(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을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과군(선박해양 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으로 조정하고, 신소재공학부 금속공학전공을 응용소재공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공학부를 생물자원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원 자연과학계열 컴퓨터과학과를 폐지하고 이를 공학계열 컴퓨터공학과로 통합하였으며 산업대학원 15개 전공을 15개 학과로 변경하였다. 4월 26일에는 충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을, 같은 해 12월 2일에는 산학연지원단을 신설하였다.

2005년에는 인문대학의 계열 조정을 비롯하여 학과 신설, 학부 조정 등이 있었다. 인문대학 인문계열(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사학과, 고고학과, 철학과)을 어문자율전공계열(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

어일문학과, 한문학과와 인문계열(사학과, 국사학과, 철학과, 고고학과, 언어학과)로 조정하였고, 공과대학에 도시계획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에 포장공학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학부(축산학전공, 낙농학전공)를 동물자원과학부(동물자원생명과학전공, 낙농산업과학전공)로 조정하였다. 대학원은 석사학위 일반과정에 관현악과, 산업미술학과, 학과간협동과정에 언어병리학협동과정을 신설하고, 박사 학위 일반과정에 언론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학과간 협동과정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군사학협동과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에 공동교육학전공, 공동사회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을 신설하고 행정대학원에 통일·북한학전공을 신설하였으며, 보건대학원을 보건·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바이오산업과학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산업대학원에 기계시스템공학과와 평화안보대학원에 과학수사학과(과학수사학전공, 범죄학 전공)를 신설하였다.

2006년 3월 1일 토목·환경공학과군(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을 토목·환경공학부(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로,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을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로,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과군(항공우주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을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부(항공우주공학전공, 선박해양공학전공)로 조정하고, 신소재공학부(재료공학전공, 응용소재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섬유공학전공, 정밀공업화학전공, 화학공학전공)를 나노공학부(나노소재공학전공, 나노정보시스템공학전공)와 바이오응용화학부(고분자바이오재료전공, 유기소재·섬유시스템전공, 정밀응용화학전공, 생명화학공학전공)로, 건축·토목공학교육학과군(건축공학교육과, 토목공학교육과), 전기·공학교육학과군(전기공학교육과, 전자공학교육과), 기계·금속공학교육학과군(기계공학교육과, 금속공학교육과)으로 조정하였으며, 기술·화학교육학과군(기술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을 공업교육학부(건설공학교육전공,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전공, 기계·금속공학교육전공, 화공·섬유공학교육전공, 기술교육전공)로 조정하였다. 평화안보대학원 평화안보학과에 국제지역학전공, 군사학과에 군수·획득관리전공, 군상담심리전공을 신설하였고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와 농업생명과학대학 포장공학과를 폐지하였다.

같은 해 3월 3일 국제교류관 및 언어교육원을 개관하였고, 5월 1일 기타 행정조직(부하장, 부원장)을 설치·운영하였다. 5월 18일 메카트로닉스인력양성사업단이 누리사업에 선정되었고, 6월 28일 인문대학 부설 언어임상연구원을 언어치료센터로 명칭 변경하였다. 8월 22일 농업생명과학대학 영동학술림을 개관하였고, 12월 7일 국방연구소를 신설하고, 소프트웨어연구센터를 소프트웨어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충남대학교는 고등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인지하여 충남대학교가 차지하는 세계적 위상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역할 분석을 통해 충남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 VISION 2015”를 2006년에 수립하였다. 이 중 교육부문은 학문단위의 재편과 학문단위별 교무계획의 수립, 강의 만족도 제고, 교육과정개편, 교육역량 및 학생 지도 강화, 교육 실습시설 첨

단화와 e-learning 확대,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로 기본목표를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에는 충남대학교 학칙과 8개 대학원 학칙을 통합한 단일 학칙을 제정하고 충남대학교 교무규정 등 교무관련 규정을 통합한 학사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공과대학은 학과군을 학부로 개편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6> 공과대학 학과군 개편

2006. 2. 28. 당시 재적 학부 및 전공		2006. 3. 1. 이후 변경 학부 및 전공	
모집단위명	학과 및 전공	모집단위명	학과 및 전공
건설계열학과군 (1999~2001학년도)	건축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과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과		환경공학전공
건축토목환경계열학과군 (2002~2003학년도)	건축학과(5년)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과		토목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군 (2004~2005학년도)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과		환경공학전공
기계공학부 (1996~1998학년도)	기계공학과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 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전공
기계·선박·항공계열학과군 (1999~2003학년도)	기계공학과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 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부	선박해양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공학전공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 공학과군 (2004~2005학년도)	기계공학과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 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과군 (2004~2005학년도)	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부	선박해양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공학전공
재료공학부 (1996~1998학년도)	재료공학과	나노공학부	나노정보시스템공학전공
화학공학부 (1996~1998학년도)	화학공학과	바이오응용화학부	생명화학공학전공
	고분자공학과		고분자바이오재료전공
	정밀공업화학공학과		정밀응용화학전공

2007년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모집중단으로 의예과를 폐지하였다. 대학원 한문학과에 박사과정 신설,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의 화학과와 생화학과를 화학·생화학과로, 생물학과와 미생물학과를 생명과학과로, 약학과와 제약학과를 약학과로, 금속공학과와 재료공학과를 신소재공학과로, 기계공학과 및 기계설계공학과와 메카트로닉스공학과를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로, 전자공학과 및 전파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를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로, 화학공학과 및 고분자공학과와 공업화학과를 바이오응용화학으로 각각 통합하였고, 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의 박사과정에 과학수사학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의 체육교육전공(체육, 무용)을 체육교육전공으로 통합하였다. 공과대학 바이오응용화학부의 생명화학공학전공을 화학공학전공으로, 고분자바이오재료전공을 고분자공학 전공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학부의 작물생산과학전공을 작물과학전공으로 변경하였다.

2008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 인가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09년은 대학원 신설, 학부 및 학과의 조정, 특수대학원 신설 등이 있었다.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을 신설하고, 사범대학, 간호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였다.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경제전공, 무역전공)를 경제학과, 무역학과로, 경영학부(경영전공, 회계전공, 국제경영전공)를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학(5년)전공, 건축공학전공)를 건축학과(5년), 건축공학과로, 바이오응용화학부(고분자공학전공, 유기소재·섬유시스템전공, 정밀응용화학전공, 화학공학전공)를 고분자공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정밀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전기정보통신공학부(전기공학전공, 컴퓨터전공,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를 전기정보통신공학부(전기공학전공, 컴퓨터전공, 전자공학전공, 전파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로 조정하고, 자연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를 스포츠학과, 공과대학 나노공학부 나노정보시스템공학전공을 나노공학부 재료공학전공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산업대학원에 원자력에너지학과를 신설하였다.

2010년에는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과 신약전문대학원을 신설하였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건축학과를 신설하였다. 2011년에는 약학부 모집단위 조정, 박사학위과정 설치, 학과 재편 등을 진행하였다. 약학대학은 6년제로 시행하면서 약학부를 약학과와 제약학과로 모집단위를 조정하였으며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산업미술학과를 신설하였다. 생활과학대학은 생활과학계열을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소비자생활정보학과로 변경하였고 자유전공학부는 인문·사회과학전공과 과학기술전공으로 변경하였다. 경상대학은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를 경영학부로 모집단위를 조정하였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은 모집단위와 학과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표 37> 변경된 학과명(2010.3.1. 기준)

2009. 2. 28. 당시 재적 학부(학과) 및 전공		2010. 3. 1. 이후 변경 학과	
모집단위명	학과명 및 전공명	모집단위명	학과명
수학·정보통계학부	수 학 전 공	수학과	수 학 과
	정 보 통 계 학 전 공	정보통계학과	정 보 통 계 학 과
물리·천문우주과학부	물 리 학 전 공	물리학과	물 리 학 과
	천 문 우 주 과 학 전 공	천문우주학과	천 문 우 주 과 학 과
화학·생화학부	화 학 전 공	화학과	화 학 과
	생 화 학 전 공	생화학과	생 화 학 과
지구환경과학부	지 질 환 경 과 학 전 공	지질환경학과	지 질 환 경 과 학 과
	해 양 환 경 과 학 전 공	해양환경학과	해 양 환 경 과 학 과
토목·환경공학부	토 목 공 학 전 공	토목공학과	토 목 공 학 과
	환 경 공 학 전 공	환경공학과	환 경 공 학 과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기 계 공 학 전 공	기계공학과	기 계 공 학 과
	기 계 설 계 공 학 전 공	기계설계공학과	기 계 설 계 공 학 과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 카 트 로 닉 스 공 학 과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부	항 공 우 주 공 학 전 공	항공우주공학과	항 공 우 주 공 학 과
	선 박 해 양 공 학 전 공	선박해양공학과	선 박 해 양 공 학 과
나노공학부	재 료 공 학 전 공	재료공학과	재 료 공 학 과
	나 노 소 재 공 학 전 공	나노소재공학과	나 노 소 재 공 학 과
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 기 공 학 전 공	전기공학과	전 기 공 학 과
	컴 퓨 터 전 공	컴퓨터공학과	컴 퓨 터 공 학 과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	전자공학과	전 자 공 학 과
		전파공학과	전 파 공 학 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 보 통 신 공 학 과	
식물자원학부	작 물 과 학 전 공	응용식물학과	응 용 식 물 학 과
	원 예 학 전 공	원예학과	원 예 학 과
환경임산자원학부	산림환경자원학전공	산림환경자원학과	산 림 환 경 자 원 학 과
	임 산 공 학 전 공	환경소재공학과	환 경 소 재 공 학 과
동물자원과학부	동물자원생명과학전공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 물 자 원 생 명 과 학 과
	낙 농 산 업 과 학 전 공	동물바이오시스템학과	동 물 바이오 시스템 과 학 과
생물자원공학부	지 역 환 경 토 목 전 공	지역환경토목학과	지 역 환 경 토 목 학 과
	생 물 산 업 기 계 전 공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2009. 2. 28. 당시 재적 학부(학과) 및 전공		2010. 3. 1. 이후 변경 학과	
모집단위명	학과명 및 전공명	모집단위명	학과명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응용 생물학 전공	응용생물학과	응용 생물학 과
	생물 환경 화학 전공	생물환경화학과	생물 환경 화학 과
	식품 공학 전공	식품공학과	식품 공학 과
생명과학부	생물학 전공	생물학과	생물학 과
	미생물학 전공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5. 대학 및 대학원 현황

1) 연도별 각 대학 입학 정원 변화

〈표 38〉 연도별 각 대학 입학 정원 변화(2004~2012)

구 분	대학별 입학 정원								
	'04학년도	'05학년도	'06학년도	'07학년도	'08학년도	'09학년도	'10학년도	'11학년도	'12학년도
인문	505	455	455	455	455	440	437	429	429
사회	330	299	299	299	299	299	297	291	291
자연	770	706	693	638	621	601	596	584	530
경상	480	425	425	425	425	426	424	418	418
공과	1,320	1,189	1,180	1,180	1,165	1,001	995	981	981
농생	470	440	380	364	366	366	366	366	366
법과	100	100	100	100	100				
약학	40	40	40	40	40			50	50
의과	50	50	50	50	60				
생활	130	117	112	112	112	112	111	110	110
예술	170	155	155	155	152	153	152	146	146
수의									54
생명	110	110	85	85	85	85	85	85	85
간호대						70	90	90	90
사범대						200	200	200	200
자유전공학부						50	50	50	50
합계	4,475	4,086	3,974	3,903	3,878	3,803	3,803	3,800	3,800

2) 대학원 설치 현황(2012년 2월까지 기준)

(1) 일반대학원

① 일반과정

<표 39> 계열별 석·박사 학과명

석사 학위 과정		박사 학위 과정	
계열	학과	계열	학과
인문사회 계열 (26개 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 언어학과 고고학과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정보학과 자치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농업경제학과	인문사회 계열 (27개 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 언어학과 고고학과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자치행정학과 언론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농업경제학과 법학과
자연과학 계열 (24개 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지질학과 해양학과 통계학과 천문우주과학과 화학·생화학과 생명과학과 농학과	자연과학 계열 (23개 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지질학과 해양학과 통계학과 천문우주과학과 화학·생화학과 생명과학과 농학과

석사 학위 과정		박사 학위 과정	
계열	학과	계열	학과
	원예학과 산림자원학과 농생물학과 축산학과 낙농학과 농공학과 농화학과 농업기계공학과 임산공학과 식품공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원예학과 산림자원학과 농생물학과 축산학과 낙농학과 농공학과 농화학과 농업기계공학과 임산공학과 식품공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공학 계열 (15개 학과)	공업기술교육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전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바이오응용화학학과 건축학과	공학 계열 (14개 학과)	공업기술교육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전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바이오응용화학학과
예·체능 계열 (7개 학과)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무용학과 미술학과 음악과 관현악과 산업미술학과	예·체능 계열 (4개 학과)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무용학과 산업미술학과
의학 계열 (3개 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의과학과	의학 계열 (3개 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의과학과
5계열	75개 학과	5계열	71개 학과

② 학과간협동과정

<표 40> 석·박사 학과간협동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의공학과, 기록학과, 언어병리학과, 약무임상약학과	의공학과, 보건학과, 언어병리학과, 군사학과, 과학수사학과, 약무임상약학과, 국제지역학과
4개 과정	7개 과정

(2) 전문대학원

<표 41> 전문대학원 학과명

대학원명	학 과[전공]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분석과학기술학과 [기초과학전공, 응용과학전공]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녹색에너지기술학과 [신에너지소재전공, 신에너지공정전공]
신약전문대학원	신약개발학과

(3) 특수대학원

<표 42> 특수대학원 학과 및 전공명

대학원명	학 과	전 공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교육심리 및 교육과정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프랑스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일본어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간호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대학원명	학 과	전 공
		기계·금속교육전공 화학·섬유교육전공 건설교육전공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기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도덕·윤리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자치행정학전공 통일·북한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전공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산업공학과 식품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공공디자인정책학과 원자력에너지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전파공학과 바이오응용화학학과 외식산업학과	
특허법무대학원	특허법무학과	특허법무전공
	일반법무학과	일반법무전공
평화안보대학원	국제학과	국제지역 및 교류협력전공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전공 영어 및 국제문화전공
	군사학과	국방정책전공 군사학전공 군수·획득관리전공 군상담심리전공
	과학수사학과	범죄수사학전공 과학수사학전공

Ⅰ 대학원 재학생 수

<표 43>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재학생 수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신 약	소 계
석 사	박 사	소 계	법 학	의 학	분석과학 기 술	녹색에너지 기 술			
1,930	945	2,875	285	320	58	46	21	730	

<표 44> 특수대학원 재학생 수

특수대학원								졸업자수 누 계	합 계
경 영	교 육	행 정	보 건	산 업	특허법무	평화안보	소 계		
167	490	118	67	200	45	112	1,199	4,804	27,280

Ⅰ 대학생 재적생 수

<표 45>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재적생 수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신 약	소 계
석 사	박 사	소 계	법 학	의 학	분석과학 기 술	녹색에너지 기 술			
2,158	1,089	3,247	300	329	64	49	24	766	

<표 46> 특수대학원 재적생 수

특수대학원								졸업자수 누 계	합 계
경 영	교 육	행 정	보 건	산 업	특허법무	평화안보	소 계		
204	566	170	76	220	56	158	1,450	5,463	27,280

6. 학위제도
1) 학사학위

<표 47> 학사학위

학위종별	졸업대학	학 과(부)
문 학 사	인 문 대 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언어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고고학과, 철학과

학위종별	졸업대학	학 과(부)
	사 회 과 학 대 학	사회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사 범 대 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자 유 전 공 학 부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과학전공, 리더십과 조직과학전공)
	연 계 전 공	공동사회, 도덕·윤리
교 육 학 사	사 범 대 학	교육학과
문헌정보학사	사 회 과 학 대 학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사	사 회 과 학 대 학	사회복지학과
이 학 사	자 연 과 학 대 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천문우주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지질환경과학과, 해양환경과학과, 기초과학부, 수학·정보통계학부, 물리·천문우주과학부, 화학·생화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사 범 대 학	수학교육과
	생 명 시 스템 과 학 대 학	생명과학부, 생물과학과, 미생물 분자생명과학과
	자 유 전 공 학 부	자유전공학부(과학기술전공)
	연 계 전 공	생물정보학, 공통과학, 기초의과학
체 육 학 사	자 연 과 학 대 학	스포츠과학과
	사 범 대 학	체육교육과
무 용 학 사	자 연 과 학 대 학	무용학과
경 제 학 사	경 상 대 학	경제학과, 경제·무역학부(경제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경 영 학 사	경 상 대 학	경영학부,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 무역학과(2008이전 입학자)
무 역 학 사	경 상 대 학	경제·무역학부(무역전공), 무역학과(2009이후 입학자)
	연 계 전 공	글로벌이트레이드
공 학 사	공 과 대 학	건축공학과(4년),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나노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정밀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전기정보통신공학부, 공업교육학부,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나노공학부, 바이오응용화학부, 토목·환경공학부,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사 범 대 학	건설공학교육과, 기계·금속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
공 학 사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생물자원공학부, 지역환경토목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연 계 전 공	나노기술(삭제), 의약화학(삭제), 목조건축 및 인테리어디자인
건 축 학 사	공 과 대 학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학과

학위종별	졸업대학	학 과(부)
농 학 사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식물자원학부, 환경임산자원학부, 동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응용식물학과,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환경소재공학과,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바이오시스템학과, 응용생물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과
수 의 학 사	수 의 과 대 학	수의학과
법 학 사	법 과 대 학	법학부
행 정 학 사	사 회 과 학 대 학	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정 치 학 사	사 회 과 학 대 학	정치외교학과
약 학 사	약 학 대 학	약학부
전 문 약 학 사	약 학 대 학	약학과, 제약학과
의 학 사	의 과 대 학	의학과
간 호 학 사	간 호 대 학	간호학과
생 활 과 학 사	생 활 과 학 대 학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음 악 학 사	예 술 대 학	음악과, 관현악과
미 술 학 사	예 술 대 학	회화과, 조소과, 산업미술학과
지 역 학 사	연 계 전 공	미국지역학, 중국통상, 유럽지역학
식 물 생 명 공 학 사	연 계 전 공	식물프론티어바이오
교 육 공 학 사	연 계 전 공	교육공학
환 경 조 경 학 사	연 계 전 공	환경조경학

2) 석사학위

〈표 48〉 석사학위

학위종별(후드색)	학 과	학위종별(후드색)	학 과
문학석사 (흰색)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한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언어학과 고고학과 사회학과	공학석사(주황색)	의공학과 나노기술학과 산업대학원 각 학과
		공학전문석사(주황색)	녹색에너지기술학과
		농학석사(담황색)	농학과 축산학과 식품공학과 원예학과 산림자원학과 낙농학과 농생물학과

학위종별(후드색)	학 과	학위종별(후드색)	학 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일어일문학과 기록학과		농화학과 임산공학과
		수의학석사(회색)	수의학과
		법학석사(자주색)	법학과 특허학과 특허법무대학원 각 학과
교육학석사 (하늘색)	교육학과 공업기술교육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법학전문석사(자주색)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행정학석사(파랑색)	행정학과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이학석사 (노랑색)	수학과 물리학과 컴퓨터과학과 통계학과 지질학과 해양학과 천문우주과학과 화학·생화학과 생명과학과 분석과학기술학과(응용과학전공) 의과학과	자치행정학석사 (파랑색)	자치행정학과
		정치학석사(남색)	정치외교학과
		경영학석사(연한밤색)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제학석사(붉은밤색)	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
이학전문석사 (노랑색)	신약개발학과	의학석사(초록색) 의무석사(초록색)	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체육학석사 (진녹색)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간호학석사(살구색)	간호학과
무용학석사 (주황색)	무용학과	약학석사(진초록색)	약학과 약무임상약학과
공학석사 (주황색)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환경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바이오응용화학학과	생활과학석사(노랑색)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음악학석사(분홍색)	음악과 관현악과
		미술학석사(밤색)	미술학과 산업미술학과
		문헌정보학석사(흰색)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석사(흰색)	사회복지학과
		언어병리학석사 (에머랄드색)	언어병리학과
		보건학석사(주황색)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국제학석사(연녹색)	평화안보대학원국제학과

학위종별(후드색)	학 과	학위종별(후드색)	학 과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 공업화학 나노기술학과(삭제)	군사학석사(연녹색)	평화안보대학원군사학과
		과학수사학석사 (연녹색)	평화안보대학원과학수사학과

3) 박사 학위

〈표 49〉 박사학위

학위종별(후드색)	학 과	학위종별(후드색)	학 과
문학박사 (흰색)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한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언어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고고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공학박사 (주황색)	의공학과 나노기술학과 녹색에너지기술학과
		농학박사 (담황색)	농학과 축산학과 식품공학과 원예학과 산림자원학과 낙농학과 농생물학과 농화학 임산공학과
철학박사(진곤색)	철학과	수의학박사(회색)	수의학과
교육학박사 (하늘색)	교육학과 공업기술교육학과	법학박사(자주색)	법학과 특허학과
		법학전문박사(자주색)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이학박사 (노랑색)	수학과 물리학과 컴퓨터과학과 통계학과 지질학과 천문우주과학과 해양학과 화학·생화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미생물학과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행정학박사(파랑색)	행정학과
		자치행정학박사(파랑색)	자치행정학과
		정치학박사(남색)	정치외교학과
		경영학박사(연한밤색)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제학박사(붉은밤색)	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

학위종별(후드색)	학 과	학위종별(후드색)	학 과
	과학수사학과 분석과학기술학과(응용과학전공) 의과학과 신약개발학과	의학박사(초록색)	의학과
이학박사 (초록색)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MD/PhD)	약학박사(진초록색)	약학과 약무임상약학과
공학박사 (주황색)	공업기술교육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전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바이오응용화학학과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 공업화학과 나노기술학과	간호학박사(살구색)	간호학과
		보건학박사(주황색)	보건학과
		언론학박사(남색)	언론정보학과
		문헌정보학박사(흰색)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박사(흰색)	사회복지학과
		언어병리학박사 (에머랄드색)	언어병리학과
		군사학박사(연녹색)	군사학과
		미술학박사(밤색)	산업미술학과
		무용학박사(주황색)	무용학과
		국제지역학박사(노랑색)	국제지역학과

7. 대학 자체 평가 기획위원회 운영

1980년대 말부터 대학교육도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충남대학교에서는 1989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마련한 대학평가 편람에 준해서 자체적으로 사전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었다. 이 평가에서는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학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교육자료 및 행·재정 등의 분야에서 대학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비교, 분석, 평가하였다.

1991년에는 교육부가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향상과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한 대학별, 학과별 평가인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충남대학교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평가는 먼저 대학이 자체적으로 「대학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평가팀은 그 보고서에 근거하여 서

면평가를 실시한 뒤 현장실사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충남대학교는 이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이외에 충남대학교는 1994학년도부터 국책지원 공과대학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도별 자체평가를 1999학년도까지 실시하였으며, 1994학년도에는 대학부설 기초과학연구소의 지원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실시한 자연과학대학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자연과학대학 부설 기초과학연구소가 지역거점연구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997학년도에는 자연과학대학이 교육부가 추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과학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어 연도별 자체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7년에 다양한 평가의 기본계획수립 및 조정, 평가연구 및 연구기구에 관한 사항, 교육부 및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충남대학교 평가기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규정을 마련하였다. 평가기획위원회는 학사행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충남대학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분석 및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종합평가위원회, 학문분야평가위원회, 성과분석위원회로 구분된 소위원회의 평가 영역은 종합평가, 학문분야평가, 주요 사업의 성과분석으로 나뉘며 종합평가는 매 학년도 11월 이전에, 학문분야평가는 매학년도 12월 이전에,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매 학년도 8월 이전에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평가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평가관련 규정의 개폐, 평가 연구기구의 설치와 폐지, 교내외 정기 및 수시평가, 기타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자체종합평가 추진계획(안), 학문분야평가 추진계획(안), 부속기관평가 추진계획(안), 충남대학교자체평가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서면 결의하였고 일반대학 교직과정 자체평가보고서, 대학 학문분야(경제학분야) 자체평가보고서를 심의하였다. 2009년도에는 자체종합평가 결과와 학문분야평가 결과를 심의하였다. 2010년도에는 자체 종합평가 결과, 학문분야평가 결과를 심의하였다. 2011년도에는 자체종합평가 결과, 학문분야평가 결과, 부속기관평가 결과를 심의하였다. 평가기획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교직원 및 학생 정원조정, 시설환경 개선지원, 재정지원 등 학내 제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8. 국제화 사업 및 국책 사업

1) 국제화 사업

충남대학교의 국제화 사업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0년대에 활발한

국제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은 1980년대에 마련된 기초에서 찾을 수 있다. 충남대학교가 최초로 학술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은 1981년 12월 11일에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대만의 「국립대만사범대학」이다. 그 후 이러한 교류사업을 전담 추진할 기구로 「국제교육부」를 1985년에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충남대학교에 기획실이 설치되면서 국제교육부는 해체되고 그 업무는 기획실로 이관되었다.

1991년 2월 20일에 학무회의의 심의의결로 국제교류위원회의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국제교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국제화 사업을 수행하여 예산 절감 및 학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 교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외국대학과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대학과의 교수 및 학생의 교류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 대학과의 국제회의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날로 확대되어 가는 충남대학교의 국제교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충남대학교는 국제 교류 업무를 전담할 기구로 국제교류부를 설치하였다. 새로 설치된 국제교류부는 ① 학술교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② 국제학술교류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③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 ④ 국제홍보,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환, ⑤ 기타 국제학술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교류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도 효과적인 국제교류사업의 증대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1년 6월에는 충남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로 국제학술교류 추진 기본방침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단과대학 단위별 교류 또는 대학교 단위 교류를 교류의 기본으로 한다.
- ② 단과대학의 교류 대학은 5개교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에 한하여 단과대학은 미수교국가를 제외한 외국대학과의 교류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단과대학 단위별 교류(단서 조항 제외) 협정서에는 단과대학장 및 총장의 연서명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교류 대상국을 확대하되, 1국에 2개교(미국 및 일본 제외)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이와 같이 충남대학교의 국제교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제교류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국제교류의 실제적인 일을 담당할 국제교류부를 둬으로써 충남대

학교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또한 1991년에 정부로부터 우수연구센터로 지정되어 신소재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금속응고신소재 연구소가 영국 및 유럽의 신소재 분야 연구 및 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국내 신소재 기술개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목적으로 1995년 9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현지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향후 9년간 운영에 들어간 것은 충남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학교는 13개국 40개 학교였던 것이 2012년 현재 39개국 162개 대학과 8개 연구소로 총 170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대학교는 이렇게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자매학교를 비롯한 외국대학 및 학술기관과의 공동연구는 물론이고 연간 40여 회에 달하는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였다. 이러한 결과 재직 교수의 70%이상이 외국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 논문발표를 하였다.

2) 국책 사업

대학의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던 각종 부문의 대학 평가에서 충남대학교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1994년 중부권의 국책대학으로 선정되어 1998년까지 국고 총 250억 원과 대전시 지원금 20억 원을 받았다. 국책지원대학이란 각 지역별로 대학이 중심이 되어 21세기를 대비한 국가 산업 발전 및 첨단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 기반 정책이었다. 때문에 국책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충남대학교의 우수성과 발전가능성이 객관적 평가를 통해 증명된 것이자 21세기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남대학교의 국책지원사업은 산·학·연 협동체제의 구축, 고급 기술인력 양성,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 제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지역산업체의 애로 사항 해결 등 실질적이고도 산업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IMF 사태 등으로 대응 투자의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환율 및 물가의 폭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획했던 사업의 대부분을 축소하거나 폐기하게 되어 국책 사업의 균형을 전반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추진된 중점지원사업을 ① 학생·교육 분야, ② 교수·연구 분야, ③ 산·학·연 협력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교육 분야에서는 우수학생 유치 및 지원, 우수학생 공급, 교육과정 개선, 능력향

상 교육 수행, 교육지원 강화 등으로, 국책장학금 지급, 학생 해외 어학특별교육 및 해외기업체 연수지원, 실험실습교육 강화, 교육여건 및 실험실습여건 개선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신소재 계열 신입생 82%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 일을 위해서 집행된 국고지원예산의 약 72%를 투입하였다.

둘째, 교수·연구 분야에서 우수교수·연구인력 확보, 교수 및 학술활동 활성화, 교수 및 연구 능력 향상 등으로 전임교원 충원, 국책교수 확보, 산업체 협력연구원 확보, 연구활동지원과 연구결과의 공업화 지원, 교수 해외 연수, 현장 연수 지원 및 신소재 공학교수법 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산·학·연 협력 분야로 중부권 애로 기술 연구 전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산업교육센터의 설립, 공동기기센터의 설립, 신소재 연구소 및 자성재료 연구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산학연 교육연구관 준공 및 입주, 창업보육지원의 활성화, 산·학·연 협력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교육기자재 확충에 2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중부권최대의 산·학·연 교육연구관을 설립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지원 및 창업보육 등 각종 국책대학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2001년 말에는 산·학·연 교육관에 총 35개의 벤처 회사가 입주하였다. 1999년에는 산·학 협력사업의 지원 및 신소재 분야 국책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 「산·학·연 교육연구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충남대학교가 선정된 국책사업 중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책지원사업 공과대학분야에서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이 신소재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었다(1994~1998).

둘째, 1996년도 농림수산부가 추진하는 농림수산분야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이 인삼과 과채류 분야 특성화 대학에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수출 경쟁력 제고, 농촌 현장 애로점의 조기 해결, 영농 정보 수집·보급 및 전산망 구축 등 산·학·관·연 협동 체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특성화 사업을 위하여 총 62억 원이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되었다. 이에 따라 특성화 관련학과의 학부제 운영, 실험실습 교육강화, 산·학 겸임교수 활용, 현장실습교육의 강화, 해외연수제도 도입에 관련한 교육과정 개선 계획과 다학기제 도입, 특성화 분야 기초공통과목 확대,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도입, 복수전공제 도입이라는 학사관리 개선 계획이 발표되었다.

셋째, 1997년 교육부 추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과학대학이 기초과학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충남대학교 기초과학은 이미 1970년대 중부 지역 유일의 기초과학 육성대학 지정을 통해 그 업적과 장래 발전 가능성을 이미 입증 받은 바 있다. 충남대학교

는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5년 간 총 24억 원을 지원 받아, 자연과학대학의 기초분야인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의 학문분야를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기초과학부로 특성화하여 전문인을 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의 각종 연구센터 및 연구소의 국책 사업 내역이 있다. 1996년 소프트웨어 연구센터가 지역협력 연구센터로 선정되어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기반 기술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과 정보를 지역 산업체에 이전하여 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1996년 한국과학재단은 충남대학교 무기소재화학연구소 산하의 화학연구정보센터를 전문연구정보센터로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화학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충남대학교는 타 대학, 정부 출연 및 민간 연구소, 중소기업체 등에 정보 제공 및 상호 연계 창구 역할을 하였다. 1999년에는 정부 추진 우수연구센터 사업에서 급속응고신소재연구소, 고기능성자성재료연구센터가 각각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되었다. 급속응고신소재연구소는 산업기술의 핵심 소재 및 부품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였다. 고기능성자성재료연구센터는 자성산업의 핵심 원천기술을 창조하고 창조적인 인재양성에 이바지하였다.

3)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

산·학·연 협동 과정은 대학과 연구소 및 산업체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산업체 재직자의 입학기회를 확대, 대학교수의 산업현장 경험기회 확대, 산업체의 대학교육에 대한 간접투자비를 확대하는 등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교수가 부족한 대학에서는 연구소의 전문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소에서는 연구소의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다수의 전문인력을 대학으로부터 충원하는 상호 보완적 이점이 있다.

본교는 1989년에 대덕연구단지 기관장 협의회와 「학·연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학·연 협력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1992년부터 연구단지의 연구소와의 협약을 통해서 대학원에 학·연 협동연구과정으로 석·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본격적인 학·연 협력을 전개하였다.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의 시초는 1992년에 한국화학그룹, 동아그룹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그 후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이 국책지원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학·연·산 협력사업은 본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다.

충남대학교의 산·학·연 협력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①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인력 양성, ②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지도 및 창업지원, ③ 충남대학교가 보유한 첨단 실험실습 장비 및 기기의 공동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본부의 연구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관련 사업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력 유형의 실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원의 석박사 협동과정, 국책사업단 산하의 산업교육센터,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단의 산학협동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실례로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학연 협력협약에 따라서 대학원 학연 협동연구과정을 설치하여 석·박사학위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1992학년도에 학·연 협동과정의 석·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석사과정 12명, 박사과정 9명 총 21명의 정원에서 출발하여 2011년에는 총 23개 연구소와 협약을 맺으며 석사과정 52명, 박사과정 41명으로 질적, 양적 성장을 보였다.

국책사업단 산하의 산업교육센터는 중부권 산업체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IMF를 맞아 교육부, 노동부 및 대전광역시의 사업비 지원 하에 재취업자 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교육부의 「두뇌한국 21」 사업 중 지역대학육성사업으로 선정된 본교의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단에서는 산·학·관 상호지원 및 협조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산·학 협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학협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한 산·학 협동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산학협력사업은 실무교육과정 운영, 인턴십, 기술자문 등으로써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 운영시행세칙>을 마련하였다.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지도 및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국책사업단 산하의 창업보육센터, 신소재연구소와 공과대학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각종 연구소의 산·학·연 협력 사업이 있다. 국책사업단의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신규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대학 내 실용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설립되었다. 2001년 말 산·학·연 교육연구관의 임대공간에 입주한 업체는 코리아 ACF를 포함하여 총 35개 업체였다. 신소재연구소는 산·학·연 협동연구를 위한 모든 지원을 담당하였다. 원활한 연구지원을 위하여 분야별로 4개의 전문 연구센터를 두어 센터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산업체 애로기술연구를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신소재연구소의 사업 중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신소재정보자료실과 공동기기센터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신소재정보자료실은 신소재 관련 종합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공동기기센터는 국책사업단이 확보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체에게 개방하여

중소기업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했다.

공과대학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서는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의 기술 잠재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개발력 향상과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3년부터 대전광역시와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후원과 성원 아래 「중소기업청 지정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해왔다. 착수 첫해에는 13개 업체와 공동으로 기술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8차에 걸쳐서 사업을 수행하였다.



제 2 절 학생·복지

1990년대와 2000년대 충남대학교 학생들의 학생활동은 정치적 격동의 시대와 맞물려 학생운동으로 발전하였으나 신세대의 탈정치적인 성향이 정치투쟁을 강조하는 학생운동의 대중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투쟁 일변도의 학생운동은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1990년대 새로운 학생운동의 중요한 이슈로 학원 자주화 운동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등록금 협상과 학생복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움직임은 2012년까지도 지속되고 있었으며, 취업과 관련된 학생복지에 중점을 두게 된다. 학생들의 투표율이 상승하면서 이전에 비해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비판과 건의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학생들을 품어주고 있다. 학생회에서도 과거 학내시설 점거 등 물리적 시위보다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신들의 뚜렷한 목소리를 내면서 학생복지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1. 학생자치기구의 변화

1) 학생회 활동

1980년대 중반부터 불붙기 시작했던 학생운동은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세를 결집함으로써 조직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학생운동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형식적인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됨으로써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가 해체되어 갔다. 이에 학생들은 1987년 6월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를 결성한 이후 1993년 학생들의 이해를 좀 더 폭넓게 수렴하고자 한국총학생연합(한총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후 13년간 반제국주의, 반미국주의, 통일 투쟁을 하면서 현실에 근거한 사업을 벌이지 못한 결과 한총련은 일반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게 되었다. 심지어 1996년 연세대 항쟁 이후로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한총련 학생들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는 불법으로 규정되기까지 이르렀다. 이는 각 대학의 한총련 탈퇴를 가져오고, 학내 문제점들을 우선하는 비운동권이 총학생회의 주류를 이루는 양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빠르게 변화되었고,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생들의 취업과 대학 생활에 대한 상담을 목적으로 2001년 9월에 학생지원처 내에 충남대학교 학생취업 및 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학생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취업과 자기발전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2003년 제35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유쾌한 도전”(35대 총학생회장 김근호, 경제4)은 학생총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백마축전, 학술대동제 등을 개최해 학우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주차문제에 대한 투쟁으로 학내 셔틀버스 증차를 실현하고 차량 10부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6년 3월 27일, “학우들을 학교의 주인으로 만들겠다”며 파이팅총대팀이 37대 총학생회장, 부회장에 당선되었다(사회학과 김용세, 기계공과 이광호). 이들은 열심히 하는 학생회를 만들어 2만 학우들에게 감동의 2006년 선사하겠다는 총학생회의 의지를 표명하며 다양한 공약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중 추석 귀향버스와 같은 시도와 토익 무료접수 시도에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매년 연예인들의 행사로 전락돼 많은 비판을 받았던 백마축전은 2006년에 100인 기획단을 만들어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라는 표어를 내세워 변화를 꾀했다. 사실 2006년 백마축전은 대학축제가 매년 진행되지만 대학정신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때에 좋은 의도로 변화를 시도한 축전이기도 하다. 백마축전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이 축전을 해마다 열리는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닌 온전한 학생의 축제로 만들 수 있는지가 있다. 2006년 백마축제의 의미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우리의 축제’라는 의미의 백마축전을 구현한 총학생회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충대신문』 950호). 학생들은 이러한 총학생회의 활동에도 관심이 있지만 심각한 취업난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학교는 9월 25일부터 4일간 대전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많은 학생들의 여기에 참여하였다. 특히 2006년 10월 20일 자 『충대신문』에 세무사 16명, 공인회계사 13명, 사법시험 4명이 합격하였다는 것이 실릴 정도로 취업이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2007학년도 충남대학교

제38대 총학생회(회장 박대희)는 학생 교육의 권리를 찾는 한해로 만들자고 하면서 잘못된 등록금 인상과 사용은 충남대학교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2만 학우들의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여자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여학생휴게실도 보완·개선하겠다고 하여 여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08년 “F5: 새로고침”의 김동욱(건축4)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취업’, ‘문화조성’ 등 핵심공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취업’은 청년들의 주요한 관심주제인데 총학생회에서는 혁신인력개발원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학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 특강을 비롯한 외국어 특강을 확대하며, 기업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을 학우들에게 소개하겠다고 하였다. ‘문화 조성’은 내부적으로는 총동아리연합회와 연계해 동아리 활동비 지원을, 대외적으로 대전권 대학과 연계해 문화 활동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우들과 소통이 더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공약 이행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2009년 총학생회는 “스포츠라이트”(총학생회장 윤해강, 경제4)가 당선되었다. 지난 ‘새로고침’ 총학의 주요 공약 주제가 취업과 문화조성이었다면, ‘스포츠라이트’는 소통과 교육 그리고 생활복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학우들과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 이들은 ‘충대인의 아고라 백마광장 개시’와 ‘총학생회의 대표 휴대폰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학우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 주요 공약은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었는데, 이는 전국 대학교의 총학생회가 하나같이 내거는 공약이지만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의견이었다. 치솟는 등록금을 잡아야 하는 숙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학우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었다 (『충대신문』 992호). 2010년 41대 총학생회장은 ‘16987 자신감’의 박영환(불어불문4)군이 당선되어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였다. 2011년 제42대 총학생회에 “Hi-Five”의 장윤배(환경공학4)도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여 달성하였다. 이에 3년 동안 충남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이 동결되었다.

2012년 제43대 총학생회에 ‘좋은 하루’의 안채민(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4)이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총학생회장을 선출하는 데 일부 학생들만이 투표를 하던 예전과 달리 전체 투표율은 51.6%로 총 8천5백48표 중 좋은 하루는 4천3백33표를 받아 당선되었다. 2012년도 충남대학교 등록금이 수업료를 제외한 기성회비에서 작년에 비해 5.2% 인하였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3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는데 이번에 등록금이 5.2% 인하된 것은 큰 성과라고 본다.”며 “또한 이번에 기획예산위원회 회의에서 기성회 예산 중 급여 보조성 경비 등으로 쓰였던 돈을 장학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체감 인하율은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동에 위치한 보운캠퍼스는 의과대학 의학과와 간호학과가 함께 의과대학 학생회를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2009년 3월에 보운캠퍼스에서는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고 간호대학이 설립되면서 학생회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와 간호대학 학생회로 분리되었다. 의과대학 학생회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활동을 하다가 바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로 명칭 변경을 하고 학생회 활동을 하였다.

2010년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간부를 의과대학 학생회장·부회장,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부회장으로 이원화하였다. 간부는 이원화하였으나 학교 행사 및 자치 활동은 단일화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2011년에는 의과대학 학생회장·부회장,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부회장을 선출하였으나 2012년 3월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간부를 단일화하였다. 선거권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모두에게 있게 되었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식화하였다. 2012년 3월 학생회장은 이용수(의전원 3학년) 학생이었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학생은 전문대학원학생이라서 총학생회의 일원이 아니므로 총학생회의 선거권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학생회에 보내진 학생회비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의학전문대학원학생들은 의과대학 때부터 해왔던 다양한 학생활동을 하였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사전교육(골학-osteology),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체육대회, 학생회 리더십 트레이닝,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축제인 대동제 개최, 헌혈릴레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연합 대의원 및 학생자치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의학전문대학원은 2017년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15년부터 의예과를 선발하였고, 이전과 같은 의과대학 학생회는 2017년에 가능하게 되었다.

2009년 간호대학이 설립되면서 간호대학 학생회가 만들어졌다. 보운캠퍼스에서 2009년 이전에는 간호대학 학생회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의과대학 학생회에 부회장으로 참여하여 함께 활동하였다. 2009년 3월에 간호대학이 설립되면서 1대 간호대학 학생회가 출범하였다. 2009년 제1대 학생회장은 구지현, 2010년 제2대는 이유진, 2011년 제3대는 소채송, 2012년 제4대는 제다혜 학생이다. 간호대학 학생회의 중점 활동 내용은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선후배와 하나가 되어 사랑과 존경과 단합하기이다. 간호대학 학생회와 학교의 큰 관심에 따라 2012년 1월에 실시된 간호사 국가고시에 간호대학 4학년 학생 71명 전원이 100% 합격하게 되어 중부권 최고의 간호대학의 기개를 떨쳤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해 낡은 국시실을 2009년에 새로 보수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한 환경 개선과 교수와 학생이 일치되어 국가고시준비를 열심히 한 결과였다.

2) 동아리 활동

학생 서클은 동아리로 변경되었고, 2012년에는 총동아리 연합회가 구성되었다.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에 교내 주요 사이트로 등록되어 있으며, 회장, 부회장,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기획국장, 복지국장, 연대사업국장, 정보통신국장 등이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2010년 3월 31일 동아리 소식지가 창간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연합동아리의 활동은 거의 없는 편이었다. 동아리는 종류별로 다음과 같았다.

- ❖ **봉사동아리:** 남대전로타랙트, 한울회, 손울림, 유네스코, 은파회, 나누미, 지게들, 조나회, 징검다리, YMCA, Youth.J.C, 황금어장, 그루터기, C.N.L, 4-H연구회, 들벗모임, 씨알모임.
- ❖ **체육동아리:** 동그라미, 백마 싸이클, 볼링회CNUBC, 굿샷(good-shot), 축구동호인회 B4, Quintet, 무형회, 지킴이택전, 충검회, 태우회, 해동검도 국검, ACE, 나찾사, A-Kings.
- ❖ **학술동아리:** 교양독서회, 색연필, 반올림, C.P.U, FATP, 경영동우회, 대배달학생회, 미래학회, 시목문학동인회, 증권투자연구회, 흥사단아카데미, 대학시절, 애드리, 애니악(ENIAC), 한국사회연구회, 미국학연구회, Core Elite.
- ❖ **예술동아리:** 관현악단(CNUPO), 도란이, 클래식기타 앙상블 비르투오소, 국악 연구회, 민요 연구회, 빛고을, 서예연수회, 시나브로극회, 그림패 어깨동무, 탈춤연구회, 합성, 합창단, 회화동인회, A.W, 앵글스(The Angles), 아마추어 D.J클럽, 스크린, 공돌이, 백마들, 입큰개그리, 중앙풍물패, 트래콤(Tracom), 팝스우리, 플레임즈(Flames), Sky응원단, 소리하나, 아리랑 풍물패, 카포(CAPO).
- ❖ **종교동아리:** 충불회, 충원회, JDM(예수제자운동), 에클레시아, 증산도, 가톨릭 학생회, D.F.C, C.C.C, 가스펠선교회, 네비게이트 선교회, S.F.C, 파이어니어 선교회, ESF, K.A.B.S, S.C.M.
- ❖ **취미동아리:** 기도연구회, 나래, 답사여행, 조명연구회, 아마추어무선회, 유스호스텔(Youth-Hostel), 잠수회, S&S, jubilee, 충남대산악회.
- ❖ **어학동아리:** 시사영어연구회, 영어연구회, DIALOG 영어회화, TIME지 연구반, AFKN 청취회, Pine_Cone, SELA, 백마 GMP.
- ❖ **기타동아리:** 한얼(수의대 풍물패), 백마봉사단, 가자~ 해외로, 스토리운영진, 역새, 인문대학.

보운캠퍼스에는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동아리들이 있다.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제가 변경되면서 동아리활동은 미미하였다. 2012년 3월말 의학전문대학원

내에 과거 의과대학 시절과 유사한 자체 학생회 조직을 기획하여 동아리활동도 다시 활성화되었다. 보운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는 다음과 같다.

-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연합동아리: 정우회, 회전목마, 고전기타합주단, 루까 (Luke, 가톨릭학생회), ISAC(아이자), SwimMed, 늘모두, ILB, 기독교학생회, CIUM, 11이미지, 충의검, 멤피스, Pho-Art, 소느로도, CMSO, 러브올, COMUS, 서예연수회, 의사당, 조나회, CMF(기독교학생회), RCMS
- ❖ 간호대학 단독 동아리: 주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련 교육, 상담과 봉사를 실시하는 나이팅게일 봉사단, 성 상담동아리인 I(아이), 간호대학생 행사지원 동아리인 방송부, 교수연구활동 자료수집 및 통계도우미 동아리인 NuRse, 행사 관련한 도우미 동아리인 예능동아리 키득키득

3) 학생군사교육단(ROTC)

충남대학교 제116학군단은 2012년 49기 배출을 하여 1기부터 총 4,348명의 학군장교를 배출하였다. 5년 연속 전국 최다 인원이 충남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임관되었다. 충남대학교 학군단은 대내외적으로 충남대학교 학생들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대 표창 내역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 모집홍보 활동 우수(2006년)
- 병영문화 혁신 우수(2007년)
- 동계 입영훈련 성적우수(2008년)
- 최우수 학군단(2009년)
- 우수 학군단(2010년, 2011년)

충남대학교 학군단에는 장교 3명, 부사관 1명, 병사 3명 총 7명이 근무하였다. 여성을 포함한 사관후보생과 위탁교육생, 군장학생을 중심으로 전시에는 전시 전환 임무 수행과 일반대학생 군사교육지원의 임무를 하고 평시에는 학군사관 후보생 군사교육, 우수인력 획득 및 선발업무, 군 위탁생 및 장학생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학생 복지의 확대

1990년부터는 학생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장학사업을 대폭 확충하고 후생시설도 확장하였다. 학생들은 학문의 연마에 한층 집중할 수 있었다. 2022년의 장학제도는 2012년에 이르는 동안 여러 번의 변화를 보였다.

1) 2002년의 장학 제도

충남대학교의 장학 제도는 정부의 학생장학계획과 충남대학교의 장학금 확대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꾸준히 확대 발전되어 왔다. 2012년에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해 장학금을 만들었으며, 각 동문회별로 별도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 시기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나뉘었다. 교내장학금은 학교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고, 교외장학금은 외부 장학재단이 학교 측에서 학생을 추천받은 뒤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 교내 장학 제도

■ 교내 법인 장학금

교내 법인 장학금에는 세 가지 장학 제도가 있다.

- ① **충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 장학금**: 이는 1976년 12월 8일 보운장학회가 설립되고 1978년 7월 7일 충남대학교장학회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92년 2월 충남대학교 학술장학재단으로 합병되었다. 충남대학교 학술장학재단은 2002년 5월 31일 충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충남대학교박물관 학교역사자료실). 계열별 수석 합격자에게 지급되는 신입생 장학금과 매 학기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장학생 장학금, 그리고 연간 2명 정도를 선발하는 유학생 장학금이 있다.
- ② **충남대학교정심화장학회**: 1990년 11월 28일 이복순 할머니가 시가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발전기금으로 기증한 것을 계기로, 충남대학교에서는 이복순 할머니의 법명을 딴 '정심화장학회'를 설립하였다. 정심화장학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의 건립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계속 시행되고 있다.
- ③ **충남대학교동원장학회**: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1997년 4월 19일 설립되었고, 매 학기 14명 정도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등록금의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다.

Ⅰ 근로 및 대여장학금

- ① 근로장학금: 재학생 중 240명 정도의 경제사정 곤란자를 선정하여 학기당 1,100,000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 ② 대여장학금: 재학생 중 등록금 마련 곤란자를 100명 정도 선발하여 등록금액 무이자 대여를 알선해 주고 있다.

Ⅰ 지방대학 특성화 장학금

기초과학부 입학자 중 입학성적 최우수자 2명에게 등록금 전액 면제 및 학기당 1,000,000원을 지급하는 특별장학금과 기초과학부 입학자 중 입학성적 우수자 70명에게 학기당 500,000원을 지급하는 성적우수 장학금이였다.

Ⅰ 국책장학금

신소재공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선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학 제도가 있다.

- ① 국책우수 장학금: 전 학기 17학점 이상(졸업학년도에는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로서 재학생 수의 1% 이내인 자에게 해당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 ② 국책격려 장학금: 전 학기 17학점 이상(졸업학년도에는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재학생 수의 2% 범위 내에서 국책우수 수혜자를 제외한 자에게 해당 학기의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Ⅰ BK장학금

- ① 1단계 BK사업: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으로 시작되어 2005년에 종결되었다. 충남대학교에는 정보통신계열에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단 1개 사업단이 있었다. 당시 정보통신계열의 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장학제도로써, 학부생에게는 연간 2,400,000원이 지급되었고, 대학원생에게는 석사는 연간 4,800,000원, 박사는 연간 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 ② 2단계 BK장학금: 2006년부터 시작하여 BK사업단은 16개로 확대되었고, 2011년에는 총 3,542,751,565원이 지급되었다. 이 장학금은 2013년 2월 이후 중단되었다.

(2)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50여 종이 넘고 이중 대표적인 장학제도는 한국학술진흥재단장학금과 공공장

학금, 정수장학회장학금, 동문회장학금 등이 있었다.

2) 2012년의 장학제도

2011년 2학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내 성적 우수장학금 수혜율이 작년 4%에서 1.25%로 줄어든 대신 저소득층장학금 비율이 확대되었다. 저소득층장학금은 백마 C, D 장학금이 백마복지장학금으로 합쳐졌고 학점기준이 직전학기 15 학점 이상에서 12학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성적기준이 추가돼 직전학기 C⁺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2012년 1학기 장학운영지침을 보면 학부 우수장학생이 등록생의 4%로 증가하였고 학부경력장학생이 등록생의 20%로 증가하였다. 대신 백마복지장학금은 경제사정 곤란자로서 예산(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소득 분위별 차등 지원이 가능하였으며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B0 이상(대상자 부족 시 C⁰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2011년은 국가 장학금 I, II 유형이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차상위계층장학금,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으로 나뉘었다. 2012년에는 국가 장학금 I, II 유형으로 통합하여 지급되었다.

(1) 교육역량강화장학금

2011년에 줄어든 교내 성적장학금은 교외에서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장학금으로 보충되었다. 교육역량개발우수 장학금은 경력개발우수 장학금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단과대학의 재학 인원별로 배분하던 방법이 없어지고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꿈모아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배분되었다. 성적우수장학금은 성적기준이 B⁰ 이상에서 A⁰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백마(교육역량강화) 장학금은 삭제됐다. 이 외에도 외국어우수장학금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학장추천장학금으로 대체됐다. 2011년 신설된 학장추천장학금은 성적 또는 어학, 봉사실적우수자에게 지원되었다.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장학금은 경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장학금 지원을 통한 교육역량강화 사업 효과성 증대 및 학생 개인 역량개발 활동 활성화,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여건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장추천장학금 신설로 인한 장학 수혜자 확대에 학업성취도(학업성적, 어학능력)가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동기 부여, 참여·봉사활동, 자기계발 활동 등 실질적인 역량강화에 노력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액은 총액이 1,738,000천 원이었다. 교육역량강화장학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50〉 교육역량강화장학금 세부 내역

연번	장학금명	주요내용	1인당 지원금액	추진시기	인원	예산액
①	경력개발 우수장학금	- 경력개발프로그램참여 - 실적 우수자 선발	500	2011. 2.~ 2012. 1	676	338,000
②	학장추천장학금	- 학업성적향상자 - 어학능력향상자 - 가계곤란자등	1,000	2011. 7	700	700,000
③	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원	기성회비 전액	2011. 7	395	700,000
합 계					1,771	1,738,000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많아서 수석합격자 장학금, 리더십장학금, 수능 8등급이내 장학금, 외국어우수장학금, 대전충남장학금, 국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보훈장학금, 특기장학금, 특별장학금, 재단 및 기타 교외장학금이 학기당 약 250명에게 수여되었다.

2012년도 1학기 장학운영계획 기본방침에 따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장학제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적 장학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I, II유형과 교내장학금을 연계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화되었다. 2011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 교·내외 장학금 지급 현황(2010~2011)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교 내		교 외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1년	15,459	13,958	5,248	7,905	21,863
2010년	17,790	16,561	6,395	12,244	28,805

〈표 52〉 저소득층 교내 장학금 지급 실적(2010~2011)

(단위: 명, 천 원)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438	526,270	845	865,908	2,833	3,749,879

외국인대학생 장학금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며 2011년에는 신입생인 경우 기성회비

2/3가 감면되었고, 2012년에는 신입생인 경우 기성회비 2/3를 감면하되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였다. 2012년 장학금 종류별 선발인원 및 감면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53〉 충남대학교 장학금 종류별 선발인원 및 감면 계획

구 분	장학명	선발 예정 인원	감면 및 지급내용	비 고
성 적 장학생	학부 우수장학생	등록생의 4%인원	A급	
	학부 격려장학생	등록생의 20%인원	C급	
	우수(대학원)	등록생의 30%인원	C급	
	로스쿨학업증진	등록생의 16%인원	A급	
	우수(의학전문대학원)	등록생의 2%인원	A급	
	격려A형(의학전문대학원)	등록생의 4%인원	B2급	
	격려B형(의학전문대학원)	등록생의 28%인원	C급	
복 지 장학생	백매(복지)장학생	교내장학금 감면액의 30% 이상 해당액으로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인원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영탑장학생	적격학생 전원	A급/B1급/C급	
특 별 장학생	체육특기자장학생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추천자(68명 이내)	A급	
	대덕장학생(학부)	총장이 인정하는 인원	B1급	
	대덕장학생(대학원)	총장이 인정하는 인원	A급	
	외국인 대학생	신입생 등록생의 30%인원 재학생: 적격자 전원	B1급/C급	
	외국인 대학원생	총장이 인정하는 인원	신입생: 예산범위내 감면 '09년 이전입학자: B1급 '10년 이후 입학자: B1급 - 인문, 예체능계: 29% - 자연, 의학계: 34%	
	새터민 및 자녀장학생	적격학생 전원	A급	
	보훈장학생	적격학생 전원	A급	본인일 경우에는 성적제한 없음
법정면제 장학생	국가유공 교육보호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적격학생 전원	A급	
신입생 성적 장학생	수석	· 인문계 수시·정시 각1명 · 자연계 수시·정시 각1명	· 등록금 전액 · 교재비(연간 150만 원) · 생활관비 전액(2인1실)	

구 분	장학명	선발 예정 인원	감면 및 지급내용	비 고
	리더십	· 인문계(예체능계포함)10명 · 자연계 30명	· 등록금 전액 · 교재비(연간 100만 원) · 생활관비 전액(2인1실)	
	수능성적우수 (자유전공학부)	적격학생 전원	· 등록금 전액 · 생활관비 전액(2인1실)	
	수능성적우수(기타)	적격학생 전원	· 등록금 전액	
	대전·충남	· 인문계 20명 · 자연계 30명	· 입학금 · 수업료 전액(2년) · 기성회비 반액(2년)	
	금자탑	적격학생 전원	등록금 전액	

※ A급: 등록금 전액, B1급: 기성회비 전액, B2급: 기성회비 반액
C급: 수업료 전액 교내 백마복지(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계획

(2)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사업 제도도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표 54〉 국가장학금 운영 방향

2011년도	2012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국가장학금 I, II유형으로 통합
차상위계층 장학금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표 55〉 국가장학금 유형별 내용

구 분	지 급 율	지원경로
국가장학금 I 유형: 7,500억 원 (소득분위 최저지원)	기초수급자: 450만 원의 100% 1분위: 50%, 2분위 30%, 3분위 20%	국가장학금 전체를 대학을 경유하여 학생에게 지원
국가장학금 II 유형: 1조원 (자체노력 연계 추가지원)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대학등록금 인하 노력: 7,500억 원 등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국가장학금의 지급 관련 근거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며 대상자는

직전학기 성적이 B⁰ 이상인 자로서 소득 5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5분위 이하 학생으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적은 C⁰ 이상, 소득분위는 7분위까지 확대하여 감면할 수 있었다. 단, 장애학생의 경우는 성적 C⁰ 이상 가능하였다. 선발 예정 인원은 교내 장학금 감면액의 30% 이상 해당액으로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하였다. 지급액은 국가장학금 I, II 유형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하되, 교내·외 장학금 중 학생이 교내 백마복지장학금보다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백마복지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단, 국가장학금 I, II 유형은 중복지급 가능).

국가장학금 I, II 유형 지급 원칙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I 유형은 충남대학교에 재학(신입생 포함) 중인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이고, 지원 대상 II 유형은 충남대학교에 재학(신입생 포함) 중인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말한다(소득 3분위, 7분위 이하 대학생은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의 해당 소득분위 이하 대학생). 지원기간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가능하였고, 지원 금액은 국가장학금 I, II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I 유형) 대상자별 최대 수혜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었다.

〈표 56〉 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장학금 지급 기준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I	국가장학금 II	백마복지장학금		비 고
			국 비	기성회비	
기초생활 수급자	230만 원	등록금 부족액			등록금 전액
1분위	115만 원	등록금의 70% (국가장학금 I 포함)		수업료 해당액	등록금의 약90%
2분위	70만 원	등록금의 60% (국가장학금 I 포함)		수업료 해당액	등록금의 약80%
3분위	45만 원	등록금의 50% (국가장학금 I 포함)	수업료 해당액		등록금의 약70%
4분위		등록금의 40%		수업료 해당액	등록금의 약60%
5분위		등록금의 30%		수업료 해당액	등록금의 약50%
6분위		등록금의 30%	해당없음		등록금의 30%
7분위		수업료해당액			수업료 해당액

※ 백마복지장학금 수혜자는 교내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 또는 영탑장학금 등)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음(단, 백마복지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소득분위	1학기	2학기	계
기초생보자	230만 원	220만 원	450만 원
1분위	115만 원	110만 원	225만 원
2분위	70만 원	65만 원	135만 원
3분위	45만 원	45만 원	90만 원

원칙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지급이 가능하였고, 백마복지(저소득층)장학금과 다른 교내장학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였다. 학생은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동일 조건 일 경우 백마복지장학금 우선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국가장학금과 백마복지(저소득층)장학금의 단과대학별 인원배정은 소득분위별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수를 해당 단과대학에 일괄 배정하기로 하고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교내장학금보다 국가장학금 우선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3) 대학원 외국인 신입생 장학금

대학원 외국인 신입생 장학금 지급 기준(2012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은 다음과 같았다.

- A급 장학금(등록금 전액 면제):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소지자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PBT 590, CBT 240, iBT 95), IELTS 6.5, TEPS 700점 이상 소지한 자.
- B2급 장학금(기성회비 반액 면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소지자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 (PBT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소지한 자.

2012학년도 전기(1학기) 신입생 장학금 지급 방법을 보면 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 담당과-2799(2011년 7월 1일) 「외국인 유학생 학비감면 근절 협조 요청」에 의해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일률적 학비감면 근절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기준(2012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을 마련하였으나 정확한 사전예고가 없어 합격자들에게 혼란이 예상되어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학생 1인당 기성회비 2/3해당액)을 배정하되,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될 기준을 참고하여 각 단과대학별 장학생 선발 기준을 수립하여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2012년 각 단과대학별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Ⅰ 성적장학생

- ❖ **우수 장학생:** 우수 장학생 선발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평균 B⁺ 이상자로서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부)별로 단과대학에 배정된 장학생 배정 인원 내 선발하였다.
- ❖ **격려 장학생:** 직전 학기 성적평균 B⁰ 이상자로 성적 및 봉사실적 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학장의 추천에 따라 배정 인원 내 선발하였다.
- ❖ **수석장학생 및 리더십 장학생:** 기 수혜자 중 직전학기 성적평균 A⁰ 이상자는 계속 자격 유지(4년)하였다.
- ❖ **수능성적우수(기타 및 자유전공학부) 장학생:** 기 수혜자 중 직전학기 성적 B⁺ 이상(2011년 신입생부터는 3.5이상)이면 계속 자격 유지(4년)하였다.
- ❖ **대전·충남 장학생:** 기 수혜자 중 직전 학기 성적 B⁺ 이상이면 계속 자격 유지(2년)하였다.

Ⅰ 대학원 장학생

일반대학원 장학금은 C급(수업료) 장학생만 선발하며 직전 학기 성적평균 B⁰ 이상자로 해당 대학장의 추천으로 선발하였다. 특수대학원 중 특수전문대학원(경영, 행정, 교육, 산업, 특허법무, 평화안보, 분석, 신약, 녹색) 장학생은 C급(수업료) 장학생만 선발하며 직전 학기 성적평균 B⁰ 이상자로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선발하였다. 의학전문대학원에 배정된 장학생 범위 내 직전 학기 성적평균 B⁰ 이상자로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선발하였다.

Ⅰ 복지장학생

- ❖ **백마(복지)장학금:** 교내장학금 감면액의 30% 이상 해당액으로 소득분위별 차등 선발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하였다.
-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학업증진 장학생:**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학생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하였다.
- ❖ **영탑(A, B, C) 장학생:**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직전 학기 B⁰ 이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부모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선발하였다.

Ⅰ 특별장학생

- ❖ **체육특기자장학생:** 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대학에 추천을 받은 자로 직전학기 성적평균 C⁰ 이상자 68명 이내 A급으로 선발하였다.
- ❖ **대덕장학생:**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로서 재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평균 B⁰ 이상자중 해

당 대학장의 추천을 통하여 예산 범위 내 선발하였다. 또한 대학발전에 공헌한 학생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 대학장이 해당 학생의 공적사항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추천을 통해 선발하였다. 정부초청장학생 및 교외 유관기관장의 추천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추천 또는 교외유관기관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하였다.

- ❖ 대학 외국인 장학생: 충남기계공고 국비유학생 입학자로서 직전학기 국제교류본부 B⁰ 이상자를 국제교류본부, 해당대학장의 추천으로 B1급으로 선발하였다. 대학 외국인 학생은 B1급은 B⁰ 이상자로 충남기계공고 국비유학생, C급은 신입생 및 재학생을 선발하였다(다만, 직전 학기 성적이 C⁺ 이상). 정부초청외국인 학부 신입생은 입학금을 면제하였다.
- ❖ 대학원 외국인 장학생: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B⁰ 이상인 자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 해당 대학장의 추천을 통하여 선발하였다.
- ❖ 새터민 및 자녀장학생: 신입생은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해당된 자가 입학한 경우 A급 장학생으로 선발하였고, 재학생은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⁰ 이상인 자를 A급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Ⅰ 법정면제 장학생

국가유공 교육보호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였다.

Ⅰ 신입생 성적우수자 교재비, 생활관비

- ❖ 수석장학생: 교재비 연간 150만 원 및 생활관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 ❖ 리더십장학생: 교재비 연간 100만 원 및 생활관비 전액(2인 1실 기준)을 지급하였다.

Ⅰ 봉사장학생

봉사장학생은 재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선발하였다. 봉사장학생은 학기 단위로 추천, 학생의 가계형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서장 면담일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였다. 봉사장학생은 1인 1개 부서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봉사기관(부서 등)의 장은 추천된 학생명단과 추천서를 학생과로 송부하여야 하였다. 봉사시간은 1일 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월 40시간) 지정된 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었으며, 정당한 사유(학교 승인 행사 등)로 봉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주 2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 장학금 지급액은 학기 중 9,000원(2시간 기준), 방학 중 14,000원(3시간 기준)이었다. 봉사장학생 관리부

서의 장은 봉사활동상황부를 비치하고 봉사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였으며, 부여된 봉사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장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생 자격을 박탈할 수 있었다.

Ⅰ 연구조교장학생

연구조교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따로 정하였다.

Ⅰ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 장학금

Honors 장학금 자격유지 조건은 누적 학점 평균 3.8 이상 혹은 직전 학기 평점 4.0 이상을 취득하거나 매학기 1,500점 이상의 신규 마일리지를 취득하거나 참여 후 최소 공인영어 TOEIC 성적을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하는 것(참여 후: 1년 이내 750점, 2년 이내 800점, 3년 이내 850점)이었다. 관련 학과는 자연대(화학, 생화학), 농생대[응용식물학(작물과학), 원예학, 동물자원생명과학, 응용생물학, 식품공학], 생활대(식품영양학), 생명시스템과학대(생물학, 미생물학, 생물과학, 미생물분자생명과학), 수의대(수의학), 의전원(의학과)이었다.

〈표 57〉 성적, 복지, 특별장학금 기준

적용 장학금	졸업학점	직전학기 취득 학점		비 고
		1~3학년 및 4학년 1학기 신청자	국외대학 수험자, 졸업학기 신청자	
성적, 복지, 특별장학금	150학점 미만	15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대학원생, 보훈장학생, 체육특기자 제외
	150학점 이상	17학점 이상		

장학금에 대한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생 중 교외장학생과 이중 수혜가 될 경우 본인이 교외장학금 수혜를 희망한 때에는 교재비 또는 생활관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
- 국가장학생 장학금액이 등록금액보다 적은 경우 별도계획에 의거 등록금 재원에서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지원할 수 있었다.
- 다른 대학으로 학점교류를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학생들에 대한 성적을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등록유효자 및 수업 연한 초과자는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안 될 경우(교환학생 및 평점이 PASS등으로 기재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하였다.

- 장학생 선발대상자 학점취득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8〉 장학생 선발대상자 학점취득기준

장학명 [대상]	선발기준	인 원	지원금액	비 고
Honors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학점 B⁺(3.25)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A⁰ 이상 • 공인 영어성적 TOEIC 700점 이상 (단, 2학년 학부생의 경우 TOEIC 60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75명 이내 • 대학원: 25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 (학비감면) • 교재구입비 : 2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약학, 수의학 및 의학전문 대학원생은 센터에 소속된 비 의약학 계열학과의 등록금 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 ※자격유지 조건 충족시 졸업 시까지 지원

Ⅰ 학자금 용자 제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충남대학교에서는 금융기관의 학자금 용자를 매 학기 등록 기간 내에 실시하였다. 대상은행은 국민은행, 충청하나은행이었으며, 용자조건은 용자시기에 각 대학 행정실과 학내 전산망을 통해 학생들에게 홍보하였다. 신청 방식은 각 은행에서 추천서를 배부하면, 장학담당관실에서 추천서를 접수하여 각 단대 학과별로 추천서를 배정하고 신청 학생이 추천서를 작성하여 보증인을 대동하고 은행에 가서 용자를 받을 수 있었다.

3) 동창회장학금

충남대학교에는 후배사랑, 학교사랑을 실천하는 동창회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었다. 2009년 9월 25일 설립된 재단법인 충남대학교 총동창회 장학재단은 인재양성과 후배사랑이라는 취지를 바탕으로 장학사업과 목적사업(충남대학교 발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개교 60주년을 맞아 총동창회(회장: 한승규)에서는 4년 차를 맞이한 장학재단을 더욱 발전, 확장하기 위해 총동창회 조직을 강화하고 장학기금 배가운동을 하였다. 2012년에 20명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약 2000만 원이었다. 공과대학 동창회를 비롯한 여러 대학 및 학과 동창회에서는 산발적으로 동창회장학기금을 마련하여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의과대학 동창회에서는 재단법인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의행학술장학회 설립하여 해마다 약 400만 원가량의 장학금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주었다. 간호대학동창회에서도 기금을 마련하여 1999년부터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재원동창회에서도

매년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장학기금 마련 운동은 충남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아 더욱 열기를 띠었다.

또한 충남대학교 재직동문회에서는 2012년 개교 60주년을 맞아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1:1 장학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회장: 명평근). 대학 후배이면서 제자이기도 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많은 교수들과 간호사들이 학교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발전기금을 기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금마련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동문들을 중심으로 학교 사랑의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4) 기타 장학금

- (1) 교수장학금: 충남대학교에서는 초창기 문리과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제자사랑을 실천하는 교수장학금이 있었다. 2012년에도 의학전문대학원과 간호대학에서 재직교수들이 장학기금을 매달 출연하여 제자사랑 정신을 실천하였다.
- (2) 춘강문화재단 장학금: 의과대학지정 장학금으로 매년 1명에게 연 400만 원씩 지급하였다.
- (3) 태성메디컬 장학금은 의과대학생 2명에게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였다.

5) 학생 후생복지

(1) 학내 전산망의 구축

정부에서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을 목적으로 5대 기관 전산망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1990년 9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교육 전산망 구축사업이 시작되었다. 충남대학교도 교육 전산망의 대전 충남지역센터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전산망 구축 사업을 하였다. 충남대학교 전산망 구축 사업비로 1992년 7차 교육부 차관과 1994년 9차 교육부 차관 820,000 달러를 배정 받아 1992년 12월 전자계산소, 자연과학대학 1호관, 공과대학 2호관을 연결하는 FDDI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1994년에는 FDDI망을 중심으로 캠퍼스 전역에 걸쳐 LAN 설치 공사가 시행되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내 전산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비교적 전송속도가 빠른 FDDI망과 ATM망이 주종을 이룸으로써 충남대학교의 학내 전산망은 정보화 사회에 발맞춰 빠른 속도로 학생들의 편의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확충되어 갔다. 이와 같은 미래를 지향하는 복지 시설의 확충은 충남대학교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2) 학생 후생복지 관련 기관 및 제도

① 후생관

충남대학교에는 학생의 편의 시설과 복지를 위한 학생복지시설로 5개의 후생관이 있다. 제1학생회관은 1공관과 인문관, 약학관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제1학생회관 건물은 1979년 9월 20일 학생회관 준공식을 마친 5개월 후인 1980년 3월 10일 개관식을 가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1학생회관은 총 7억 6,000여만 원을 투자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연건평 1,71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현대식 건물이다.

이후 매년 신입생의 증가와 복지의 필요성 대두로 인해 제2학생회관이 신설되었고, 1993년 9월 9일 제3학생회관이 개관되었다. 제3학생회관 내에 우체국, 복사실, 식당과 매점이 있으며, 중요한 연회를 할 수 있는 영담홀이 있다. 제4학생회관은 농과대학에 부속되어 있는 학생회관으로 상록회관이라고 불린다. 상록회관은 1996년 10월 18일에 준공되어 농과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의 복지와 후생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3월 19일 법과대학에 매점이 개관되고, 2009년에는 생활과학대학에 식당이 개관되었다. 이어 기초과학관에 제5매점이 열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제6매점이 생겼으며, 중앙도서관에도 도서관 매점이 있어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의행관은 보운캠퍼스에 있는 3층으로 된 학생회관이다. 지하층은 동아리실이고, 1층은 학생 식당과 교직원식당, 매점이 있다. 2011년 12월 9일에 의행관 식당이 폐점하면서 교직원 및 학생들은 충남대학교 병원 식당과 직영음식점, 주변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학생회관 2층은 의대 학생회실이 있으나 2009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체제 변화가 있는 후 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학과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혜택이 없고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총학생회에 학생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아리실과 간호대학 학생회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전에 의과대학 동아리는 의학과와 간호학과가 함께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2009년 의학전문대학원이 간호대학과 분리되면서 간호대학만의 여러 동아리들이 생겨났다. 동아리 활동을 위해 더 많은 학생 공간이 필요하나 2012년에는 예전의 종합운동장 자리에 재활병원,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센터 등이 건축되어 학생 후생복지를 위한 공간은 부족한 형편이었다.

1989년 3월 이후의 후생관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92년 4월 28일 기숙사 매점 개관

1993년 9월 1일 우정의 집 폐쇄

- 1993년 9월 9일 제3학생회관 개관
- 1994년 3월 2일 기숙사 매점 폐쇄(기숙사로 관리전환)
- 1994년 10월 1일 의행관 매점 위탁관리
- 1994년 10월 15일 학생회관을 후생관으로 명칭 변경
- 1994년 12월 1일 기숙사 매점 인수
- 1997년 2월 10일 상록의집 폐쇄
- 1997년 2월 10일 상록회관 식당 개관
- 1999년 5월 1일 의행관 식당, 매점 임대관리
- 1999년 10월 4일 기초관 매점, 수의대 매점 운영
- 2000년 7월 1일 국유재산 임대법 시행으로 기숙사매점, 복사실, 의행관 식당, 수의대 매점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임대조치
- 2008년 3월 19일 법과대학 매점 개관
- 2008년 8월 11일 제1후생관 식당 임대 관리 관리
- 2008년 9월 1일 제1후생관 커피전문점 임대
- 2009년 1월 11일 기숙사 매점 폐쇄, 법과대학 매점 개관
- 2009년 8월 31일 생활과학대학 임대식당 개관
- 2011년 8월 22일 제1후생관 식당 푸드코트점 운영관리
- 2011년 12월 9일 의행관 식당 폐쇄
- 2011년 12월 13일 제1후생관 식당 휴게음식점으로 변경 운영

제1후생관(W8-2)은 지하층의 동아리실과 1층의 식당부[푸드코트점(556석), 라면&간식(직영), 양식, 스낵, 한식, 분식, 중식(임대)과 매점부(제1매점)], 기타 시설로 커피전문점(임대), 하나은행, 충대 신용협동조합이 있다. 2층에는 임대매장으로 서점, 문구점, 안경점, 이동통신, 여행사, 꽃집, 복사실이 있고, 기타 시설로 음악감상실, 총학생회, 북-카페(트라이앵글), 백마세미나실, 여학생휴게실, 학생과(소비조합)사무실이 있다. 3층에는 동아리실, 남자샤워실이 있다.

제2후생관(E5)은 1층에는 식당부[교직원직영식당(112석)과 학생직영식당(456석)]와 매점부(제2매점)가 있다. 2층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력개발원, 보건진료소, 충대실습약국, JOB-카페, 영양사사무실이 있으며, 3층에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충남대헌혈의집, CNU웰니스센터, 인력개발원 대·소회의실이 있다.

제3후생관(N7)은 지하의 기계실과 1층의 식당부[교직원직영식당(109석)과 학생직영식당(420석), 영탑출직영식

당(48석)와 매점부(제3매점)가 있고, 기타 시설로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인 임대매장(복사실, 사진관), 우체국이 있다. 2층에는 충대신문사·방송사, 영양사 사무실이 있고, 3층에는 동아리실, 남·여샤워실이 있다.

상록회관(E9)은 지하의 동아리실과 1층의 식당부[교직원직영식당(64석), 학생직영식당(200석)]와 매점부(제4매점)가 있고, 기타 시설로는 영양사 사무실, 임대매장(복사실),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정보검색실이 있다. 2층에는 동아리실, 농생대 학생회실, 음악감상실이 있으며, 3층에는 도서관 농생대분관이 있다.

생활과학대학(N5-1) 1층의 식당부[교직원임대식당(32석)과 학생임대식당(160석)], 기초과학관(W11-1) 1층의 제5매점, 법학전문대학원(N12) 1층의 제6매점, 그리고 중앙도서관(N1) 1층에도 도서관매점이 있어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② 학생생활관(기숙사)

1986년 여학생 기숙사인 은행사로 시작한 충남대학교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숙식생활의 제반 편의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인화, 단결, 협동심 및 자치 정신을 배양하도록 돕는 충남대학교 학생들의 생활공간이다. 또한 고시반이 사용하고 있는 청룡관에는 1실당 2명이 사용하여 총 9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기숙사 입사 자격은 첫째,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어야 하며, 둘째,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셋째, 전염성 질환 및 보균자는 입사할 수 없고, 넷째, 남녀학생 공히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1년에는 의과대학 의학과와 간호학과 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백행사가 개사하였으나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학생 기숙사를 더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학생들의 품위 있는 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사생 수칙도 만들어져 있다. 이 수칙은 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 사생의 면학 및 질서 있는 사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배정이나 외부인 출입금지, 사생 자치회나 식사 절차 및 면회, 통신, 세탁, 변상 및 퇴사 절차 등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보운캠퍼스에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백행사가 2001년 개관되었다. 보운캠퍼스는 학생들의 수에 비해 기숙사가 현저히 부족하여 기숙사 시설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충남대학교 BTL 학생생활관은 2,586명이 수용 가능한 규모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학생생활관 수용인원 약 2,000명을 포함하면 약 4,600명이 수용 가능해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학생생활관은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 3개 동, 지하 1층 지상 16층의 타워동 2개 동 등

총 5개 동으로 건물 연면적은 48,389㎡에 달하며 각 건물마다 독서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타워동에는 체력단련장과 PC실습실은 물론, 편의 시설로 16층 스카이라운지, 선택실, 편의점, 문구점, 분식점 등이 확보되어 학생들이 캠퍼스를 벗어나지 않아도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캠퍼스 타운’을 형성하게 되었다.

③ 대학생 전세임대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충남대학교 학생들도 이 사업의 대상이 되었다.

④ 교내순환버스 및 등하교버스 운행

학생들을 위한 등하교버스와 교내순환버스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수월하게 해주고, 넓은 캠퍼스에서 강의실로 이동하는 시간과 수고를 덜어주어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 교내순환버스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수의과대학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지하철역(유성온천역)에서 충남대학교 구간을 순환하는 교내순환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운행 기간은 학기 중에 한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방학 기간은 운행하지 않았다.

나. 등하교버스

충남대학교는 등교(1회), 등교(2회), 순환(3~9회), 하교(10회)의 버스를 운행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버스구간은 도서관 앞 → 동물병원 출입구 앞 → 유성온천역 → 농생대 앞 → 도서관앞 → 예술대학 앞 → 음악관 앞 종점이었다.

⑤ 보건진료소

1972년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개소된 충남대학교 보건진료소는 국립대학교 설치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진료 및 진료

알선, 건강상담, 학생 건강검진, 예방접종, 그 외 보건향상에 필요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3년 3월 2일 충남대학교 병원과 협약으로 보건진료소/충대진료센터로 운영되어 주1회(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교수와 전공의 및 의료진이 파견되어 학생들이 대학교병원의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충남대학교병원과의 연계 시스템을 통해 예약접수, 각종 검사, 처방전, 검진 결과도 직접 확인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진료1실, 진료2실, 처치실, 초음파실, 검사실, 상담실, 안정실 등을 갖추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및 진료 의뢰, 기타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

⑥ 임해수련원

임해수련원은 심신 단련과 연구 정진, 면학 기풍을 조성, 애교심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휴양 공간이다. 충남대학교 교직원, 동문, 학부형 등이 사용 가능하며 연수, 학생교육, 훈련 및 수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각종 학과 행사, 학술 세미나, 동문회 등의 단체 행사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임해 수련원은 대천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구성원의 휴식처이자 재충전소이며 학생활동의 편의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손색이 없는 귀중한 복지 시설이다. 1999년 5월 24일 개원한 임해수련원의 시설 현황은 교직원용으로 숙박 가능한 객실이 전체 22실이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학생용 객실 20실이 마련되어 있다. 가격이 저렴하여 학생들의 MT나 워크숍 등 학생활동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3) 학생 취업 및 상담 관련 기관

① 학생생활연구소

1968년 충남대학교 학생들의 각종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된 학생생활지도연구소는 충남대학교의 중요한 학생복지 시설로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학생생활연구소는 다각화되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직개편 및 이전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 학생생활연구소로 변경하였다. 1993년 9월에는 학생처 장학담당관실과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취업 업무를 분리하여 도서관 1층 매점에서 학생처 장학담당관실 소속 취업보도센터를 운영하여 2개의 기구가 학생의 취업 및 상담을 담당하였다.

1996년 9월 2일 취업업무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9월 4일 취업지도 활성화를 위한 기성회에

산(사업비)을 배정하였다. 1996년 10월 10일 장학담당관실에서 취업지도위원회 회의를 하며 학생취업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후 1998년 3월에는 진학담당관실 취업보도센터를 취업정보센터로 개칭하여 도서관 1층 종합민원센터로 이전하였고 학생생활연구소는 제1후생관 2층에 위치하여 지속적으로 학생 진로 및 심리 문제를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 3월에는 학생생활연구소가 폐지되고 학생처 입학취업과 소속으로 취업정보센터와 학생생활상담센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다. 학생생활연구소는 충남대학교 학생들의 취업과 학생생활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도움을 주었는데, 학생생활연구소가 담당했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심리검사: 성격유형검사(MBTI), 적성탐색검사, 다면적 인성검사(MMPI), 자아개념검사, 지능검사(K-WAIS), 문장완성검사(SCT)를 실시하였다.

나. 개인상담: 일대일 상담을 통해 성격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성 문제, 진로 문제, 학업 문제 등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다.

다. 집단상담: 1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 상담에는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대인관계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자아성장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었다.

라. 인터넷 상담: 상담자와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고민을 해결하도록 도왔다.

마. 기타: 연구지 발간, 신입생 실태 조사뿐 아니라 좋은 강사를 초청하거나 연구소 자체 강사들이 취업특강, 모의면접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학생 문제해결과 학생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 영역을 모색하였다.

② 학생생활상담센터

2001년 9월 학생생활연구소가 폐지되고 학생생활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동 기관은 학생상담을 주로 담당하였고, 2005년 12월까지 지속된 후 2006년 1월 취업지원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의 3개 기구가 통합되어 혁신인력개발원이 설치되었다.

③ 충남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충남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2003년 4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5개 대학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2003년 6월에 제2학생회관 2층에서 개소식을 하였으며 2006년 1월에 혁신인력개발원에 통합되었으나 명칭은 2012년 3월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충남대학교 여학생의 진로상담 및 능력개발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주요한 설립 목적은 대학 내 여성 정책을 주류화하고 여대생 진로개발에 대한 역할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젠더의식강화 및 여성생애주기별 경력단절 예방교육, ② 여학생 진로 및 취업상담, ③ ‘CEO의 성공학’ 취업교과목 운영, ④ 여성특화사업 운영(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커리어개발 및 직업훈련 등) 등의 사업을 통하여 대학 생활 초기부터 성인지적 직업의식 개발, 직업목표 설정,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맞춤형 취업교육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여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가. 체계화된 여학생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운영

- 「진로개발」(진로탐색 → 진로계획) ⇒ 「취업지원」(취업준비 → 취업지원), 「1:1 취업 집중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대 여학생들의 진로 개발 및 취업 준비에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 개인별 니즈(needs)에 적합한 커리어설계를 위한 1:1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운영하였다.
- 일회성 및 이벤트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개인이 진로설정에서부터 현장실무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올인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나. 저학년을 위한 직업의식 교육과 진로탐색 지도

- 성인지적 직업의식 교육과 적성과 전공을 고려한 진로탐색을 지도하였다.
- 저학년부서의 체계적인 경력개발 관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1:1 취업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 및 직무선정은 물론 이에 적합한 경력개발이 용이하도록 종단적 관리를 하였다.
- 2005년도에 여성부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IT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과정”

과 “IT 사무종합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2개 과정이 선정되어 70여 명의 취업대상자를 교육하였다.

- 2011년부터 자격증 과정 및 직무전문가 과정 개설을 통한 직무능력강화 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지향적 교육의 활성화

- 2010년부터 지역 내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CNU 친친 CLUB”을 운영하여 대학 입학 전 전공선택은 물론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진로검사 실시, 집단상담, 희망학과 교수 및 선배들과의 멘토링 등을 운영하였다.
- 2004~2008년도 「여대생 지방의회 인턴십」을 실시하였다.
- 중소기업청,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대전 여민회, 대전광역시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과 협력하여 인턴십, 취업교육, 취업 연계를 실시하였다.
- 2010년 대전 지역 IT업체들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 내용 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였다.
- 2011년부터는 Job Shadow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형 인재 양성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는 물론 충남대학교 여대생들이 현장 적응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④ 혁신인력개발원과 인력개발원

혁신인력개발원은 학생들의 취업지원 및 대학생활을 돕는 기관으로 1973년에는 학생생활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3년부터 취업보도센터와 학생생활연구소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다.

1998년 3월 취업보도센터가 취업정보센터로 개칭되고 학생생활연구소와 함께 운영되다가 2004년 취업지원센터와 학생상담센터로 변경되었다. 2006년 1월에 두 기관을 통합하여 충남대학교 혁신인력개발원을 개소하고 운영하였고, 2006년 학생처장이 원장을 겸직하면서 총장 부속기관으로 위상이 격상되었다.

2009년 3월 학생처 취업팀에서 인력개발원(부속기관)으로 분리 운영하였고 2010년에는 학생처 박기선 취업팀장이 2010년도 일자리 창출지원 유공자 정부포상을 받을 정도로 충남대학교는 적극적이고 심도높은 학생진로 및 취업 지원 활동을 벌였다. 또한 2011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기획과에서 13개 시범사업 취업지원역량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청년고용기획과, 2728, 2011.12.23).

혁신인력개발원은 2006년 3월 인력개발원과 학생처 취업팀으로 변경되었고 2011년 3월에는 인재개발원으로 변경되었다.

혁신인력개발원과 인력개발원의 사업으로는 취업전산망 운영, 취업통계 조사, 진로 및 취업 가이드 발간, 공무원 시험대비 동영상 강좌 개설, 각종 취업설명회, 채용면담 시행, 취업관련 행사에 SMS서비스지원, 아르바이트 알선, 백마인턴십운영, 취업교과목 운영, 성폭력 상담실운영 등이 있었다.

상담팀은 일상생활 속에서 학교 적응, 진로 문제, 대인관계, 성격이나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행된 프로그램은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해석상담, 정신건강을 위한 집단상담, 새내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진로개발 프로그램, 정신건강 특강 등 다양하였다.

가. 개인상담: 학생이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가치관, 대인관계, 학과 적응, 진로 문제, 가족 문제, 이성 관계, 학업 문제 등을 겪게 될 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1 면담의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었고 비밀이 보장되었다.

나. 개인 심리검사 및 커리어 역량강화를 위한 대집단 심리검사: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적성과 흥미를 조기 탐색하여 자기 개발과 성장을 하도록 돕고,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예방하며, 학생들의 진로 계획 및 상담과 코칭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별 검사해석 상담 및 대집단 검사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특히 대집단 심리검사는 관련 전공 및 학과별 워크숍 후 소속 학과 및 담당 교수에게 학생들의 검사 결과를 제공하여 진로 상담 지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정신건강 매트릭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자의 안내와 집단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상담팀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자아성장 프로그램: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개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키워서 보다 지혜롭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기분조절 프로그램: 인지치료 기법을 통하여 우울, 불안, 분노, 질투심, 죄책감, 수치심 등의 다양한 기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자기조절 훈련 프로그램: 음주나 흡연, 섭식, 인터넷 사용 등을 적당한 수준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기 효능감과 만족감, 자신감과 존엄성을 키울 수 있었다.
- 대인관계 프로그램: 대인관계와 관련된 태도, 정서, 의사결정과 가치문제에 대해 초점을 두고 정서적 고민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편안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유연성을 갖도록 도왔다.
- 대화기술 훈련 프로그램: 적극적인 경청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며, 있는 그대로 듣고 자신의 진솔한 마음과 의도를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는 기술과 공감훈련을 통해서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도록 하였다.

라. Step-Up Career System: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자신만의 커리어를 디자인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발달 단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였다.

- 1학년을 위한 진로 비전 설계: 1학년 또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 및 흥미 이해를 통해 대학 생활 동안 이루어져야 할 자기 미래 설계를 구체화하여 진로 효능감을 높이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 2-3학년을 위한 자기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진로 결정자와 미결정자 모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진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왔다.
- 4학년을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구직활동 중인 4학년 학생들과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게 예비사회인으로서 리더십을 함양하고 자기관리능력을 강화하도록 도왔다.

마. 커리어 코칭시스템 구축 및 코칭프로그램 운영: 충남대학교 개인별 맞춤형 진로코칭시스템모형 개발을 통해 학교 전구성원의 Self-Coach화에 따른 개인 및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코칭클리닉(퍼실리테이터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코치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양성된 전문 코치풀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1:1 커리어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코치 간 커뮤니티를 통하여 코치역량 및 코칭사례 연구 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⑤ 인재개발원

2011년 3월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이 설치, 운영(학생처 취업팀과 인력개발원 통합)되었고 인재개발부(취업팀, 상담팀)와 행정실로 업무가 구분되었다. 인재개발원은 혁신인력개발원의 후속기관명이며 이곳에서는 예전과 같이 학생 개발과 취업에 전력을 기울였다. 원장은 학생처장이며 운영위원으로는 당연직 운영위원 7명(인재개발원 원장,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 연구지원본부부장, 대학교육개발원 부원장, 인재개발원부원장), 임명직위원 2명으로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였다. 인재개발원은 2012년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본부산하 학생처 취업과로 개편되었으며, 업무 및 그에 따른 취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 각 기업체에 대한 상세한 채용정보 제공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취업 추천
- 취업설명회 및 면담유치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job.cnstory.com)
- 잡카페(JOB CAFE) 운영: 제2후생관 2층, 한누리회관 5층
 - 세미나실 6실: 09:00 ~ 20:00(주간 취업상담이 있을 경우 취업상담이 우선)
 - 셀프면접실 1실
 - 취업도서열람실 1실
 - e-취업정보 검색실 1실(컴퓨터 8대)
 - 취업정보 열람실 1실

나. 진로 및 취업상담

-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한 사전접수 및 방문접수
- 입사서류, 면접 클리닉 등 1:1 상담 진행

다. 백마인턴십 운영

- 재학 중 학생들이 일정기간 동안 사회 각 기업(관)에서 현장실무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현장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학점 부여
- 학기제: 18학점(17주), 계절제: 6학점(7주), 3학점(4주)

라. 취업교과목 운영(교양선택, 2학점 P/F제)

- 진로 및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강좌 개설
- 저학년: 진로 및 적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직업 선택 도모
- 고학년: 취업시장에 대한 흐름 이해와 취업에 대한 체계적 준비를 돕고 입사서류, 면접, 프레젠테이션 등 실질적인 스킬 함양
- 저학년 강좌 2강좌(직업과 진로 00반, 01반), 고학년 강좌 1강좌(현대사회와 직업의 세계) 개설 운영
- 각 주제별 옴니버스 형식으로 주제별 전문가 초빙을 통한 강의 진행

마. 꿈모아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저학년 때부터 목표의식을 갖고 취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누적 마일리지에 따른 장학금 지원
- 경력개발 활동(취업촉진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마일리지 부여
- 취업커뮤니티 홈페이지를 통해 마일리지 확인 및 인증서 발급

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취업촉진 프로그램 운영

- 진로설정 및 취업역량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실무능력 개발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실전취업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분야별 특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산·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사.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 운영

- 관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 사업
- 2011년 고용노동부 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IT전문가과정(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금융전문가 과정(한국능률협회), 영업마케팅전문가 과정(대덕이노폴리스), 대전광역시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 위탁 운영

아. 진로 및 심리상담

- 성격 및 진로탐색 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MMPI-2(다면적인성검사), 홀랜드 적성탐색

검사, 스트롱(STRONG) 직업흥미 검사, K-WAIS(지능검사), SCT(문장완성검사) 등의 다양한 심리 검사 실시 및 해석 상담

- 대집단 심리검사: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조기 탐색하여 자기개발과 성장을 도모하고, 또한 직업적성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과별, 관련 강좌별 대집단을 대상으로 심리·적성 검사 워크숍 운영
- 개인상담: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 성격 문제, 대인 관계, 이성 문제, 학업, 진로 등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 정신건강 집단상담: 자아성장 프로그램, 자기조절 훈련 프로그램, 대인관계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사이코드라마, 정신건강 특강 등
- 새내기 적응 훈련 프로그램: 1학기 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학교 적응과 조기진로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성격 이해를 통한 '나'를 알기, 시간관리 프로그램, 나의 진로·적성 알기, 젠더 감수성 키우기 등
- 커리어코칭 프로그램: 학내 전문코치(코칭클리닉 프로그램 이수 전문 코치)와 함께 학생들이 자기진단, 커리어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및 실행의 단계를 철저히 밟아갈 수 있도록 1:1 코칭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들의 진로 지도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매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및 진로에 대한 태도, 정신건강에 관련한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
- 학생생활연구: 학생들의 기본정보 및 요구를 분석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생활, 상담, 진로 및 취업지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논문집을 발간

자. 취업 현황

〈표 59〉 2011년도 취업현황(2011년도 건강보험DB 연계 취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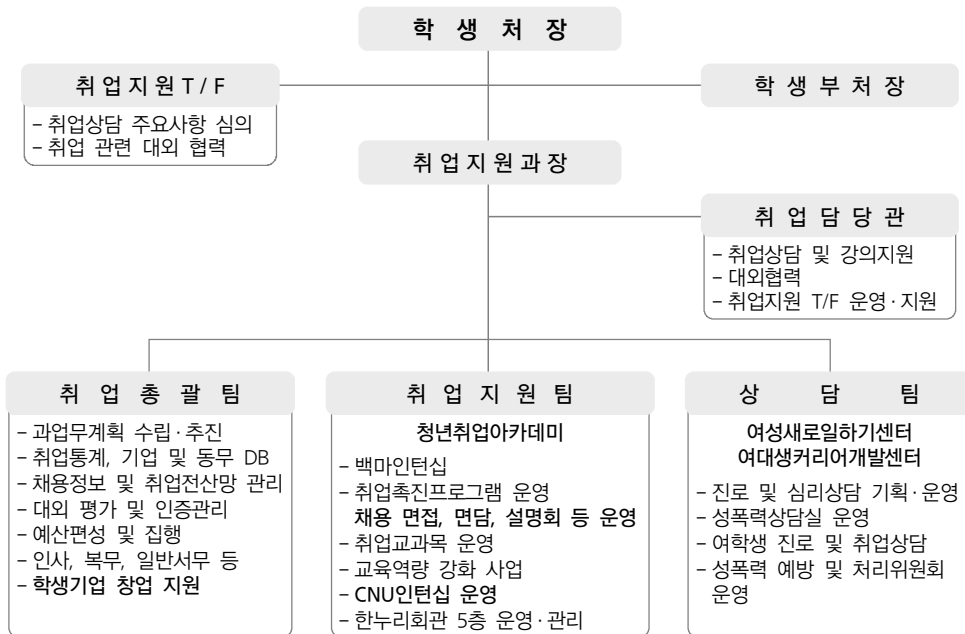
구 분	졸업자		졸업상황							취업률 (%)
	계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 불가능자	제외 인정자	기타	미상	
대 학	4,138	84	1,781	547	24	0	14	1,656	32	51.3
대학원	1,202	176	793	66	0	1	0	165	1	82.7

※ 조사기준일: 2011. 6. 1. 기준.

취업률은 대학정보공시 및 교육역량강화사업 포물러 지표로 활용.

⑥ 학생처 취업지원과

충남대학교에서는 학생취업 및 학생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68년 학생생활 지도연구소를 개소하고 이후 꾸준히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였다. 기관도 확장하여 2012년 3월 1일에는 충남대학교 조직개편을 통해 학생처 취업지원과로 최종 변경되어 학생 취업지원 및 취업상담을 하였다. 구체적인 조직과 학생처 취업지원과의 변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학생처 취업지원과 조직 및 사무 분장

<표 60> 학생처 취업지원과의 변천사항(1968~2012)

년 도	기 구	파생기구	추가기구
1968	학생생활지도연구소 개설		
1973	학생생활연구소 개설		
1993	학생생활연구소	취업보도센터설립 (학생처 장학담당관실 소속: 도서관 1층 현 매점 위치)	
1998	학생생활연구소 (제1후생관 2층)	취업정보센터로 개칭 (학생처 장학담당관실 소속: 도서관 1층 종합민원센터로 이전)	

년 도	기 구	파생기구	추가기구
2001	학생생활상담센터 학생생활연구소(부속기관)를 2011년 9월 폐지하고 입학취업과 소속 학생생활상담 센터로 운영	취업정보센터 (학생처 입학취업과 소속)	
2004. 3.	학생생활상담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업무 및 사무공간 (제1후생관 2층) 통합	취업지원센터 운영 (학생처 입학취업과 소속: 제2후생관 2층, 현위치)	
2004. 4.	학생생활상담센터	취업지원센터	2003년 충남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립(여성부 선정) 후 2004년에 학생생 활상담센터에 추가기 구로 합류됨
2006. 1.	혁신인력개발원설치 (3개기구통합, 원장은 학생처장 겸직)		
2009. 3.	인력개발원	학생처 취업팀	
2011. 3.	인재개발원 (인력개발원과 학생처 취업팀-2개 기구가 통합)-충남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인재개발원 원장(학생처장 겸직)은 총장임명. 업무는 취업팀과 상담팀이 있었음		
2012. 3.	학생처 취업지원과 (취업지원, 취업상담) 인재개발원이 충남대학교 조직개편에 의해 본부소속으로 학생처장이 주관하고 있음		

⑦ 장애학생 지원센터

충남대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들의 완전한 학습권 보장과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자 2007년 5월에 설립되었다. 장애학생의 개인적 특성 및 요구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복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장
 애(Barrier Free)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학생들이 이용대상이
 다. 이용절차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었다.
 장애학습 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장애 등급에 따라 등
 록금 전액에서부터 수업료까지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였다. 또한, 이동 편의지원, 생활 복지 지원,
 진로·취업 지원, 장애인식개선 및 기타 지원 등을 통해 장애학생에게 다각도로 도움을 주었다.

⑧ 성폭력상담실

1999년 7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 고용, 재화,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학교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 실현하고자 충남대학교는 2002년 2월에 『충남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성폭력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성폭력, 성희롱피해 신고 접수는 물론 성에 관한 상담을 해주었으며, 신상정보 및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었다.

성폭력예방및처리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충남대학교 교원 2인, 직원 2인, 학생 2인, 변호사 1인, 여성단체관계자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제2학생회관 2층 인력개발원 내에 위치한 성폭력상담실은 실장과 전담직원이 상주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성폭력 관련 신고 접수 및 사건 처리(성폭력예방및처리위원회)
- 나. 신입생 성희롱 예방교육
- 다. 교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 라. 양성평등 및 젠더 감수성 키우기 캠퍼스 투어 교육
- 마. 성인지력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 바. 성문화 캠페인

⑨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

2009년 7월 1일 신설된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는 학생, 대학원생 취업에 도움을 주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과 지원프로그램으로 나누었는데, 교육프로그램은 프레젠테이션교육, 리더십교육, 바이오 MBA 교육, 대기업집중 교육통계분석(SPSS) 교육, 산업체 현장견학, 자격증 교육(국제공인 IT 자격증 ICDL, 취업캠프 등이고, 지원프로그램은 모의직무적성검사, 자격증취득지원(ICDL, MOS, 전공 자격증), HACCP 등이었다. 취업관련 행사로는 Bio-MEDi캠프, 취업박람회, CEO특강 등이 있었다. 또한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에서는 센터 참여 학과의 학사 및 석사과정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졸업생 재교육도 실시하였는데, 바이오 전문 기술인증 교육, 어학교육지원 프로그램, 자격증지원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미취업 졸업생 인턴십도 운영하였다.

(4)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학생지원 기관

① 언어교육원

1978년에 신설된 언어교육원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도록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 및 지속적인 언어실습실 확충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1993년 7월 제5언어실습실과 1997년 제6언어실습실이 준공되었다. 2001년 외국어교육원으로 개칭되었고 2005년 12월에는 iBT TOEFL 테스트 센터로 공식 등록되어 많은 학생들이 충남대학교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05년에는 언어교육원으로 개칭되었고 12월에는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옆의 언어교육원 신축 건물로 이전하였다. 2006년 의과대학 분원이 개원되어 보운캠퍼스의 학생들도 좋은 강의를 통해 언어교육에 도움을 받았다. 이후 언어교육원은 2012년 3월에 국제교류본부로 통합되었다.

② 국제교류본부

충남대학교 학생들의 국제교류를 돕기 위해 2012년 3월에 설립되었다. 국제교류본부를 통해 충남대학교는 162개 자매대학교와 8개 자매연구기관의 총 170개 기관과 연결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북미 및 대양주에 40개 기관, 일본에 23개 기관, 중국 및 대만 35개 기관, 유럽 36개 기관, 아시아 및 기타 36개 기관이었다. 충남대학교 학생이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outbound)와 외국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가는 경우(inbound) 등의 주요 사업을 포함해 자세한 학생교류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가. 학점인정과정

어학연수, 해외인턴십 및 정규과정 학점인정과정이 있었다. 어학연수와 해외인턴십을 통해 학점인정을 받는 과정으로 학점인정 횟수는 계절 해외어학연수 학점으로 한 회에 3학점(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씩, 총 6회까지 가능하였다. 연수기관은 해외에 있는 2년제 이상 대학 부설 어학연수 기관이어야 했다(사설연수기관은 인정 불가).

해외인턴십인 경우는 계절 학점(3학점 90시간 이상 또는 6학점 180시간 이상), 학기 학점(최대 18학점 540시간 이상)이 가능하였고, 개인적으로 해외인턴십에 참가하는 경우도 파견 전에 학과(부)와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얻으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나. 글로벌인재양성

글로벌인재양성과정에는 SAP(Study Abroad Program; 해외파견 장학프로그램), 영어교양강좌, GHP(Global

Honors Program; 어학인재양성프로그램)가 해당되었다.

- ❖ **SAP(Study Abroad Program; 해외파견 장학프로그램)**: 해외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 어학+인턴십 또는 어학+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 ❖ **영어교양강좌**: 다양한 주제의 교양과정에 대한 영어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고, 외국 교환학생과의 교류기회를 넓혀 해외파견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 **GHP(Global Honors Program; 어학인재양성프로그램)**: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국외 파견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참가자 확보를 위한 기반 시스템을 위해 토익, 토플, HSK 전문강좌를 운영하였다.

다. 교환학생

충남대학교와 학생교환에 관한 세부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일정기간(1~2학기)을 수학하고 돌아와 이수한 학점을 충남대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외국대학 등록금 면제 혜택을 주어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학생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으로 영어권 15개 대학, 일본 17개 대학, 중국/대만 13개 대학, 유럽 15개 대학, 기타 13개 대학이 있었다.

라. 복수학위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국제화 시대와 교육시장 개방을 맞아 국제 경쟁력이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우수 학생들을 발굴·양성할 목적으로 마련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충남대학교에서 졸업학점의 1/2을 취득하고, 나머지 졸업학점의 1/2을 외국대학에서 취득함으로써 충남대학교와 외국대학에서 2개의 학위를 졸업과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었다. 2012년 충남대학교는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 미국 스토니브룩뉴욕주립대학, 미국 노스다코타대학, 캐나다 위니펙대학, 호주 플린더스대학, 중국 산둥대학, 중국 연변대학 등 7개 대학과 복수학위가 연계되어 있다.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에도 충남대학교의 재학생 신분의 학적을 계속 유지하여야 외국대학에서 받은 학점을 그대로 충남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마. 방문학생

충남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 자매대학에서 6개월~1년 정도 수학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인 형태는 교환학생과 동일하나 교환학생은 충남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 학비가 면제되는 반면, 방문학생은 외국대학에 학비 전액을 내거나 일부 면제를 받고 수학한다.

바. 어학연수

영어단기연수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 문화를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화 감각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

사. 인턴십

충남대학교 재학생들을 외국 업체 또는 기관에 파견하여 전공과 관련한 현장교육을 받고 외국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세계적인 안목과 언어능력 및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여 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아. IWO 워크캠프

IWO 주관 사업인 국제 자원봉사 워크캠프는 서로 다른 인종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스폰서에 의해 2~3주로 기획되는 프로젝트에서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UNESCO 본부의 국제자원봉사활동위원회의 한국단체로서, 전세계의 국제 워크캠프단체, 국제 자원봉사단체, 국제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교류 전문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2004년에는 824명의 학생들을 35개국의 국제자원봉사워크캠프에 파견하였다. 대부분의 워크 캠프는 여름기간에 실시되며 전세계 80여 개국에서 10~30명의 참가자들이 한 팀을 이뤄 각국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80년 전통의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자.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 ISS(International Summer School, 국제여름학교): 외국 학생이 여름학기 동안 충남대학교를 방문하여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매대학 학생들을 초청하여 3주간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여름학교가 있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와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의 언어와 문화의 우수성을 외국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흥미를 유발시킴으로

써 충남대학교의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였으며, 교육기간 동안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외국 학생의 생활편의를 돕고 충남대학교 학생에게도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 **GIP(Global Internship Program)**: 외국 학생이 충남대학교 교환학생 신분으로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 학업 이수뿐만 아니라 업무 경력을 쌓기 원하는 외국 대학 학생들을 한국의 기관 및 기업에 연결시켜 주고 지원해주었다. 대덕연구단지와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기업 및 공공 기관 등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활용하였다. 인턴십은 학생의 질적 성장뿐 아니라 자매대학 학생들을 충남대학교에 유치함으로써 자매대학과의 학생교류 수급에 도움이 되었다.
- ❖ **GSP(Global Scholarship Program)**: 외국 대학과의 활발한 학생교류를 위해 실시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으로, 영미권 및 유럽권 소재 대학에 교환학생 TO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어학과 또는 한국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아시아 국가 자매대학 학생들을 초청하여 한국어 수업 및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충남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국적 다양화에 기여하였다.
- ❖ **해외파견**: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 과정으로 국제교류부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③ 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학문 연구와 교수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도서, 각종 연속간행물 및 시청각 자료 등 총 95만여 권의 장서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학문연구의 요람이다.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은 1982년 5월 26일 신축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충남대학교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각 단과대학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교내의 다른 시설물들보다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도서관 좌측의 교시탑과 함께 충남대학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도서관 지하 1층에는 지하 대피소와 기계실, 전기실 등의 관리시설이 있고, 1층에는 전자정보실과 신문열람실, 종합민원서비스센터, 관리사무실 등이 있다. 도서관 2층에는 어문과학자료실과 제1, 2열람실, 휴게실, 전자자료실, 전산실, 전산기계실, 보존서고, 정리실 등이 있고, 3층에는 제3, 4, 5열람실과 사회과학자료실, 휴게실, 서무과, 기획과 등의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으며, 4층과 5층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어문과학 등의 서고가 있다.

중앙도서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농과대학과 의과대학 학생들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에는 농과대학에, 1989년에는 의과대학에 도서관 분관이 설치되었다. 또한 1997년 12월 대대적인 증축, 개축을 통해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용자 중심 체제의 자료실 운영, 넓고 쾌적한 환경 구축, 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 기능의 활성화, 이용자 서비스의 극대화를 꾀했다.

한편, 농과대학 분관은 1987년 농과대학 분관에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자료가 증가함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인해 1997년 상록회관 신축과 더불어 상록회관 3층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270여 석 규모로 확장 이전하여 개관하였다. 현재 농과대학 분관은 완전 개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학 분야의 과제도서, 연구 도서와 참고 도서를 확보하여 농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및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의과대학 분관은 1975년 의과대학 분관 대학병원 7층에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마찬가지로 자료 증가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1989년 의과대학 분관을 새로 신축하여 총 442석 규모로 확장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과대학 분관 역시 완전 개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학 분야의 단행본과 학술 잡지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 및 학생들에게 자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최신 의학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충남대학교 도서관은 분관까지 포함하여 총 42만여 권의 장서와 외국 학술지를 포함한 3,200여 종의 각종 연속간행물, 다량의 CD-ROM 자료와 비도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개가식 운영으로 최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각종 학술 정보를 인터넷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④ 박물관

충남대학교 박물관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특히 향토 문화 분야의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함으로써 교직원 및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 고장 주민들의 향토문화 보존과 민족 주체의식 고취에 공헌하고 있는 중요한 복지시설 중 하나이다.

1968년 4월 보운캠퍼스에 ‘충남대학교 부속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개관한 이래, 1970년 백제연구소를 병설 운영하면서, 대전·충남 지역의 전통문화 수집과 계승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후 대덕캠퍼스로의 캠퍼스 이전으로 인해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으로 이전하여 전시실 1개소와 수장소 1개소로 운영되다가 박물관과 도서관의 전시공간과 수장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1998년 현재의 위치에 박물관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박물관 이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탁본 체험장, 사이버 박물관, 박물관 대학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에게 각종 전시와 박물관 자체의 다양한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대전·충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⑤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은 지역 문화 창달과 충청권 공연 문화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문화 공간이다. 충청권 최대 규모인 1,817석의 정심화홀, 450석의 백마홀, 대덕홀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음악회, 각종 콘서트, 연극 등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연이 연중 개최되어 지역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문화 예술의 요람이다.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은 리더십 세미나,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R&D 인력양성사업 권역별 설명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개최, 국책연구 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과학 기술행사를 유지하며 과학 문화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대전의 위상을 높여주는 충남대학교의 으뜸가는 복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시무식, 직무교육, 충청권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강연회 및 토론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사회봉사교과목 소양교육, 학군단 임관신고식, 학생동아리 발표회, 백마봉사단 발대식, 영어특강 등 실질적 학교발전과 직결되는 교직원, 학생들의 행사 및 교육이 이뤄지는 구성원의 소통과 공유의 장이다.



제 3 절 연구·산학

교수의 연구 활동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교육에 적용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충남대학교의 연구의 질적 성장은 1990년대에 연구시설 및 장비, 편의 시설, 연구지원 체제 등 연구 활동에 기본이 되는 연구 환경의 내실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원 중심대학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일조하면서 연구의 폭과 질을 높이는 기간이었다. 이 시기에는 특히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세계 경쟁력을 갖출 기반을 닦기 위한 정부의 연구 개발 정책 지원이 결합되며 연구 역량을 크게 확대한 시기이다. 2000년 중반부터 충남대학교는 학문 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목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일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시기 구성원들이 정성을 다해 가꾸고 키워 온 연구 환경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연구 여건의 성숙과 왕성한 연구 활동

1980년대 말까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이 대덕캠퍼스로 이전했다. 사회과학대학과 수의과대학 등 2개 단과대학이 증설되었고, 16개 학과의 증가로 증원된 교수만

도 무려 200여 명이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학술 D/B 검색망 및 컴퓨터 및 컴퓨터 통신망의 개통과 공동실험실습관 및 산학연 교육연구관의 개관 등은 충남대학교의 교육과 연구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시대에 맞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많은 단과대학 및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농과대학이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가정대학이 생활과학대학으로, 문과대학이 인문대학으로 변경되었다. 특허법무대학원, 평화안보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등의 대학원과 다양한 학과가 신설되었다. 또한 사범대학, 간호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와 그와 관련된 여러 학과가 신설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생명공학관 준공, 형질전환복제대지연구센터 개관, 생물공학연구소, 암공동연구소, 의공학연구소, 뇌과학연구소, 약학대학 의약품개발연구소,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수의과학대학 동물의과학연구소를 통합한 생명과학연구원 신설,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 신설은 충남대학교 생명과학 연구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9년 문화동 보운캠퍼스에서 유성 대덕캠퍼스로 이전을 시작하고 30년이 지나 캠퍼스 리빌딩의 일환으로 강의실, 연구실, 도서관 그리고 학생회관 등의 내부 재정비에 힘을 쏟은 결과, 재정비된 시설에서 교수들의 연구 의욕은 고취되었다.

1) 연구지원 조직과 업무

(1) 지원조직

체계적인 연구 지원조직이 90년대 말부터 구성되었고,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새로운 연구소가 생겨남으로써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그림 4] 연구지원 조직도

2) 연구비 지원

1990년대 말 5년 동안의 연구비 지원현황을 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중앙부처의 지원기관들이 다양해지고 지원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기업체 등에 의한 연구비 수탁도 활발해졌다. 1988년도의 교육부(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 그리고 몇 개의 민간기업체 등에 의한 수탁연구비 계약현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증폭되었다. 또한 1980년대 대비 대학별 연구비 수혜 액수는 5배가량 증가하였고, 특히 인문, 사회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기초분야보다는 응용분야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말 5년간 지원 기관별 수탁 연구비 계약 현황, 대학별 연구비 수혜 현황과 99년부

터의 학술 연구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 지원기관별 수탁연구비 계약 현황(1996~2000)

(단위: 만 원)

지원기관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55,290	148,110	55,216	15,810	50,179
교육부	교육부	160,579	134,780	14,598	19,515	3,950
	학술진흥재단	103,600	133,914	141,950	98,450	160,653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50,260	61,123	59,398	90,549	118,158
	한국과학재단	267,816	276,758	596,782	359,351	471,810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14,951	5,573	20,165	78,256	22,933
	특허청	-	-	-	-	4,700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30,125	12,300	19,432	59,431	21,200
농림부	농림부	143,364	108,152	83,072	91,013	123,448
	농촌진흥청	4,400	10,200	13,230	18,300	13,600
	산림청	-	-	2,430	5,400	7,5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4,250	35,323	72,210	91,357
기타 중앙부처	철도청	-	5,000	-	-	-
	해양수산부	-	-	-	-	7,700
	건설교통부	-	-	-	41,268	70,843
	환경부	-	-	10,000	10,000	1,700
	국방부	3,140	23,420	33,500	17,035	29,373
	기타중앙부처	14,607	44,200	1,002	4,084	2,000
비영리 법인	정부투자기관	-	-	-	1,230	4,488
	국공립대학교	1,250	7,800	3,475	18,239	2,100
	사립대학교	4,450	-	3,800	14,000	8,750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32,400	103,524	35,425	34,947	33,114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	108,274	495,279	232,124	278,891	336,334
	정부출연기관	-	-	-	-	1,910
	외국정부기관	-	-	-	-	33,091
민간기업체	민간기업체	718,223	446,598	343,472	389,936	524,856
	기타 민간부분	1,500	2,596	11,780	9,200	5,539
합 계		1,714,229	2,043,577	1,716,174	1,727,115	2,151,286

〈표 62〉 대학별 연구비 수혜 현황(1996~2000)

(단위: 만 원)

대 학	1996		1997		1998		1999		2000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문 과 대 학	38	75,750	52	38,664	25	10,989	43	128,947	43	111,307
사회과학대학	20	38,450	29	61,553	21	81,766	18	20,264	17	17,576
자연과학대학	116	268,997	114	290,920	95	241,187	83	307,095	97	359,872
경 상 대 학	65	112,511	33	52,442	14	11,882	19	19,174	24	33,633
공 과 대 학	377	890,071	437	1,249,225	308	1,088,661	264	843,391	308	1,025,202
농 과 대 학	89	212,649	98	185,385	73	156,018	93	183,388	126	275,863
법 과 대 학	6	3,110	7	3,660	3	660	3	660	6	4,490
약 학 대 학	20	51,577	17	43,276	21	49,047	20	54,867	31	111,585
의 과 대 학	22	38,930	30	82,070	4	32,713	41	107,790	62	124,799
생활과학대학	12	9,606	8	7,281	7	5,680	6	5,400	7	15,854
예 술 대 학	4	1,010	8	6,249	-	-	4	880	6	2,650
수의과대학	12	11,570	15	22,855	11	35,570	26	55,260	20	68,456
계	781	1,714,231	848	2,043,580	582	1,716,173	620	1,727,116	747	2,151,287

〈표 63〉 학술연구비 현황(1999~2010)

(단위: 천 원)

구분 연도	자체연구비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 장학재단		기타연구비		계	
	건수	연구비	건수	연구비	건수	연구비	건수	연구비	건수	연구비
1999	63	148,100	71	3,587,700	39	954,500	434	12,381,560	607	17,071,860
2000	100	255,500	86	4,702,600	52	1,606,530	492	14,701,290	730	21,265,920
2001	117	412,000	116	5,147,050	65	1,812,450	520	16,694,630	818	24,060,130
2002	110	381,000	121	5,642,500	80	3,830,342	505	18,089,501	816	27,971,343
2003	116	580,000	117	6,502,152	65	3,578,285	608	29,027,778	906	39,687,215
2004	160	1,276,000	129	6,879,850	76	3,257,433	625	29,396,592	990	40,809,875
2005	158	1,365,000	123	10,478,629	89	3,610,976	581	25,628,112	951	41,082,717
2006	129	1,066,000	95	7,297,936	120	3,952,308	931	31,567,107	1,275	43,883,351
2007	111	922,000	118	12,529,700	108	4,116,883	532	27,555,393	869	45,123,976
2008	237	2,698,972	121	12,917,726	104	4,502,073	575	32,792,942	1,037	52,911,714

연도	구분 자체연구비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 장학재단		기타연구비		계	
	건수	연구비	건수	연구비	건수	연구비	건수	연구비	건수	연구비
2009	217	2,539,194	222	19,916,607			623	38,497,110	1,062	60,952,911
2010	243	3,292,944	265	20,306,322			799	47,498,824	1,307	71,098,090

학술연구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을 제외하고 연구비 지원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연구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999년도엔 총 약 17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2010년에는 무려 7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약 4배가량 증가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충남대학교가 학술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과제의 종류는 자체연구비, 한국과학재단, 농업평가기획원, 농림부, 지식경제부 및 정부 각 부처에서 발주하는 연구 사업이며 교수들의 적극적인 연구비 수혜 노력으로 다양한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표 64〉 대학별 연구비 현황(2006~2010)

(단위: 천 원)

대 학	2006		2007		2008		2009		2010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문 과 대 학	51	814,104	37	663,574	61	643,057	49	770,070	50	1,142,193
사 회 과 학 대 학	30	3,169,537	33	1,181,710	32	1,331,700	38	1,447,795	40	1,844,321
자 연 과 학 대 학	77	3,169,537	90	4,658,102	114	5,106,127	107	5,056,751	121	5,412,029
경 상 대 학	32	940,378	26	912,969	19	587,075	26	905,093	36	840,857
경 영 대 학 원					2	18,000	3	58,612	3	30,000
공 과 대 학	326	20,629,499	294	16,955,916	328	17,782,459	324	20,841,569	433	25,757,014
녹 색 에 너 지 기 술 전 문 대 학 원							13	594,974	20	814,890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541	6,763,994	179	7,904,551	161	9,678,534	152	10,345,560	174	12,023,676
법 과 대 학 (법학전문대학원)	19	362,114	12	347,169	19	434,762	25	451,238	19	312,425

대 학	2006		2007		2008		2009		2010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약 학 대 학 (신약전문대학원)	34	1,991,175	20	1,402,400	35	2,261,497	38 (13)	3,213,189 (1,820,338)	50 (19)	3,078,190 (2,138,153)
의 과 대 학 (의학전문대학원)	72	2,622,596	96	4,802,303	106	5,112,946	121	6,956,324	135	7,059,533
생 활 과 학 대 학	17	413,380	12	303,500	11	315,090	13	458,877	20	690,019
예 술 대 학	5	30,000	4	24,000	11	107,100	11	116,883	6	60,960
수 의 과 대 학	25	2,313,603	21	750,044	33	1,804,853	31	1,452,194	33	2,174,875
생명시스템 과 학 대 학	43	2,787,151	38	4,946,000	40	4,065,907	37	2,555,671	41	2,291,205
간 호 대 학					3	50,500	2	17,000	7	149,805
분 석 과 학 기 술 대 학 원					16	2,063,595	19	2,617,448	29	2,899,155
사 범 대 학					40	1,341,749	35	1,129,519	61	2,039,868
자 유 전 공 학 부					1	8,758			8	314,922
평 화 안 보 대 학 원					5	198,000	5	143,800	2	24,000
기 타	25	10,000	7	271,738						
합 계	1,297	46,017,068	869	45,123,976	1,037	52,911,709	1,036	57,312,229	1,269	66,821,784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비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2006년에는 총 1,297건인데 비해 2007년에는 869건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7년을 제외하고는 연구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충남대학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법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뀜에 따라 대학이 더욱 전문화가 되었으며 경영대학원이나 신약전문대학원, 녹색에너지 기술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등 여러 대학원이 생겨 우리 충남대학교의 연구역량 및 연구 부분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2. 연구소의 성숙과 대내외 학술 활동의 증대

1) 연구소의 현황

1990년대에 총 45개였던 대학 부설연구소는 2000년 말까지 총 74개로 늘어났다. 초기부터 활발히 연구 활동을 진행한 연구소부터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 이름이 바뀐 연구소, 국책연구사업의 수혜로 새로 신설된 연구소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소가 개설되었다. 각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와 주관하는 학술행사는 충남대학교 연구 부문을 홍보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표 65〉 충남대학교 연구소별 활동실적

연구소	설치 년월일	연구분야	주요사업 및 간행물
사회과학연구소	1990. 4.16	사회과학분야	- 주요사업 ·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연구 영역의 수행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술 대회 개최 · 학술 연구영역의 수행 · 학술 대회 개최 -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암연구소	1990. 5.26	암공동연구분야 암의 진단 치료분야 암에 관한 기초, 응용연구	- 주요사업 · 암의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기초 및 임상연구 수행 · 대전지역 암센터와의 긴밀한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 · 정기 학술 심포지움 개최로 암의 최신지견 습득 · 암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시민 강좌 · 국내·외연구기관과 교류활성화 및 연구방문 - 간행물 · 암연구소 논문집 · 암연구소 연구총서
급속응고신소재연구소	1991. 3. 7	신소재분야 급속응고 및 신소재분야	- 주요사업 · 금속응고법에 의한 다공질재료연구사업 · 나노재료연구사업 · 열전반도체연구사업 - 간행물 · 연구수행결과집 · 급속응고기술 심포지움
동물의과학연구소	1992. 3.23	수의학분야	- 주요사업 · 자매대학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개최 · 국내·외 과학자 초청 강연 - 간행물

연구소	설치 년월일	연구분야	주요사업 및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학연구지 · 동물의학연구소 25년사
해양연구소	1992. 9.21	해양환경 연구분야 연안개발 수산 및 해양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 해양과학 기초 및 응용연구 · 충남 연근해, 황해 및 우리나라 근해 해양조사 및 해양환경 보존 연구 · 연안이용 및 개발 영향조사 및 평가 ·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평가 · 해양학, 해양공학, 농학, 사회학, 경제학 등 학제간 연구 ·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안 및 해양개발 정책 자문 · 해양관련 외부 수탁과제 수행 · 해양관련 학술대회 개최, 학술자료 편찬 및 학술정보 교환 - 간행물 · 심포지움 논문집 · 해양연구 · 청정연안환경조성현황과 방안 · impact from equator and the sub-arctic on the korean · 해양환경 연구의 신기술과 해양환경 및 생태교육
정보통신연구소	1993. 1.30	정보통신 핵심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 충남대/규슈대학 학술대회 개최 · 충남대/북경화공대 학술대회 개최 · 정보통신 산업의 핵심 기반 기술의 연구 및 개발 · 정보통신 산업체 당면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 정보통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 · 산업체 연구원을 위한 신기술 재교육 · 첨단 기술정보의 획득과 보급
가구연구소	1993. 7.19	가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 가구 산업의 신소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 가구 품질관리 체계 연구 · 가구 산업의 육성방안과 정책결정 연구 · 시장분석과 소비경향을 예측하여 가구산업 발전방향 제시 · 가구 제조 전문인력의 연수 및 훈련 등을 통한 기술의 보급
유학연구소	1993. 7.19	유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 연구논문집 외 유학관련 출판사업 추진 · 유학연구소 내에 '선현연구실' 개설 운영 계속 추진 · 한국 전통예절 관련 연구·자료전시·상시공연을 위한 유학 연구소 부설 '한국 예절 문화원' 개설 운영 추진 · 명재유증연구 3개년 사업추진(2000~2003) · 경서 강독회 개최 - 간행물 · 유학연구논문집

연구소	설치 년월일	연구분야	주요사업 및 간행물
신 소 재 연 구 소	1995. 6.30	신소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사회와 현대사회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노·신소재분야 6개 학과(나노소재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정밀응용화학,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정기 및 초청 세미나 개최 · 신소재정보자료실 운영(http://icam.chungnam.ac.kr) -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러 논문집
소 프 트 웨 어 연 구 소	1996. 3.13	소프트웨어개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일본, 중국의 자매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과 인력교류 · 기타 해외 전문연구기관 방문연구 지원 · 해외 저명학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최신 기술, 정보 수집 · “차세대 이동통신”, “임베디드S/W”, “S/W 솔루션” 등의 3개 신성장 동력 연구 · CALS/EC관련 핵심 소프트웨어 요소기술 · 디지털 도서관 관련 핵심소프트웨어 분야 -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SW2004 및 연구 · 소프트웨어연구소 연구총서
소 재 화 학 연 구 소	1996. 7.29	화학분야 차세대신소재 개발연구 화학관련 연구 및 정보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사업 -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화학연구소 논문집
전 파 · 전 기 공 학 연 구 소	1996. 7.29	전자파기술분야 전기공학분야 전자파기술분야 전자파환경기술 전기기기 전기전자통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호선 국회의원 초청 발표회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한 반도 정보화 정책) · 전자장과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샵 주최 · GPS Workshop 주관 · 2000 EW 워크샵 주최 -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및 광파기술 학술대회논문집 · System Level EMC
전 자 파 환 경 기 술 연 구 소	1996. 7.29	전자파환경기술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 적합성 연구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BEM, Bio-ElectroMagnetics) · 국내·외의 대학, 산업체 및 연구소와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발기술 상용화 · 센터 개발 기술의 산업체 전수 · 전자파환경 기술 분야 산업체 인력 재교육 -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환경기술

연구소	설치 년월일	연구분야	주요사업 및 간행물
의 공 학 연 구 소	1996. 10.25	의공학분야 의공학과 관련된 의학전반	- 주요사업 · 벤처기업 창업: (주) 바이오 옵틱스 · 특허출원: 레이저를 이용한 암치료시스템 (A treatment system of cancer by laser) · 특허출원: 산소포화도 및 혈류량 광센서 시스템 (A photosensor system used in measuring saturation and amount of blood flow) · 특허출원: 산소포화도 및 혈류량 광센서 시스템 (A photodetector equipment used in measuring oxygen saturation amount of blood flow) - 간행물 · 충남의대잡지
아 시 아 지 역 연 구 소	1996. 10.25	아시아지역 연구분야	- 주요사업 · 기업인 및 지도자의 교육 및 지도 활동 ·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후원활동 - 간행물 · 아시아지역 연구논문
간 호 과 학 연 구 소	1997. 8.13	간호과학연구 간호학문발전 및 연구능력 활성화	- 주요사업 · 국내, 국제 학술회의 개최 · 자체 학술세미나 개최 · 국내, 국제 초청강연회 · 워크숍, 세미나 · 지역사회 연계사업 수행 - 간행물 · 충남대 간호학술지 · 간호과학연구소 및 간호대학 소식지
회 계 연 구 소	1997. 10.10	회계, 재정연구 학술연구용역 회계관련 연구, 자문	- 주요사업 · 디지털 경제사회에 적응하며, 합리적 경제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생활회계 연구 ·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필요한 조직체의 가치중대 전략의 수립 및 가치평가시스템의 구축 사업, 교육 및 자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NGO 등 각종 비영리조직의 합리적 회계시스템 구축 사업, 교육 및 자문 · 연구 간행물의 출간,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공동 연구 사업 ·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의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계산검토용역 사업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의 개발비용산정용역 사업 · 민간 및 공공기관의 경영진단 · 민간 및 공공기관의 각종 경제성, 타당성조사 사업 - 간행물 · 회계논집

연구소	설치 년월일	연구분야	주요사업 및 간행물
첨단수송체연구소	1998. 3.23	첨단수송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ational seminar on current accounting issues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 · 기술개발과 관련된 위탁연구 및 용역 · 학술정보센터 설립 -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대학교 첨단수송체 연구소 10주년 연감
뇌과학연구소	1998. 11. 1	뇌과학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발달, 구조 및 기능연구 · 뇌방어, 질환 및 재활연구 · 뇌정보처리 및 인공두뇌연구 · 학제간의 공동연구, 수탁연구 및 국책사업 연구
여성정책연구소	1999. 8. 3	여성정책분야 여성문제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집 발간 및 D/B구축 · 정책관련지원 · 단체 및 기업지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여성취업에 대한 강연회 및 취업교류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인력 교류 · 여성문제에 대한 학생간담회 및 그룹별 공동연구 · 국책사업 수행 -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총서
고기능성 자성재료 연구센터	1999. 10.05	자성재료연구 자기센서분야, 자성유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술회의 개최: SOMMA, ISAMMA(주관) · 자기공학기초실험 출간(2003년) · 한국과학재단 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 -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소식지
형질전환 복제돼지 연구센터	2002. 8. 7	농업생명과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질전환 복제돼지연구 -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터 News Letter (봄, 가을) ·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터 논문집 ·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터 소식지
충청문화 연구소	2003. 2.14	충청지방 역사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지역 마을공동체의 생애와 정체성 심포지움 개최 · 한일 촌락사회 국제 심포지움 개최 -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 대호지 4·4 독립만세운동 · 논산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독립운동가 · 충남지역마을지총서1-태안 개미목마을, 충남지역마을지총서2-연기솔마을,

연구소	설치 년월일	연구분야	주요사업 및 간행물
			충남지역마을지총서3-부여장정마을 · 대전 서남부신도시의 문화유산 · 한국어문학의 지역성탐색 · 서산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재조명 · 아산 외암마을 - 호서 선비의 숨결이 살아있는 민속마을 · 보령원산도 - 도시민의 휴식처로 거듭나는 섬마을 · 충청지역 마을지 총서⑥~⑨ · 연재 송병선가의 문헌자료 조명 · 지방으로부터 보는 조선시대 재정
평화안보 연구소	2004. 1.19	평화안보연구	- 주요사업 · 평화안보 전략연구 - 간행물 · 평화와 안보
인터넷침해대응기술연구센터	2004. 2.17	인터넷 침해대응환경구축	- 주요사업 · 해킹바이러스 대응기술 - 간행물 · IIRTRC NEWSLETTER · 2009사업년도 워크숍
양자제어물성연구소	2005. 6.15	양성제어물성연구 기초과학분야 반도체 나노물리 분야 광 액정 디스플레이 생체계 물리	- 주요사업 · 화합물 반도체 및 반도체 양자 구조의 성장 및 물성 연구 · MEMS 구조 개발 · 반도체 소자 및 관련 분야 연구: Si 태양전지, 장파장 LD/LED 소자 · 액정의 특성 연구: 액정 상전이, align 기술 등 · colloidal 구조 연구 · 광섬유 연구: 광섬유 광증폭기, 광섬유 레이저, 광섬유 센서 · 결정 표면의 구조 및 물성 연구 · 원자총돌 양자현상에 대한 정량적 실험 - 간행물 · 양자제어물성연구소 연구총서 · 양자제어물성연구소 2009 summer school
중소기업정책연구소	2005. 6.15	중소기업정책연구	- 주요사업 ·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정책연구 · 분야별 업종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관련 연구 · 대학과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상업화 관련 연구 · 중소기업정책 관련 경제 분석과 중소기업 경영지원 서비스 및 경영 관련 정책 연구 - 간행물 · 대덕특구 전문 인력 공급지원 사업지역고용 ·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평가
여론조사연구소	2005. 6.15	여론조사연구	- 주요사업 · 지자체 여론조사 및 학내 여론조사실시

연구소	설치 년월일	연구분야	주요사업 및 간행물
식물유전체연구소	2006. 3. 1	식물 유전체 연구	- 주요사업 · 산·학·연·관을 통한 식물유전체연구의 기술기반구축 · 산·학·연 공동연구수행 및 연구개발 지원 · 유전체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 장비의 공동이용 및 정보화 지원 · 실용화 기술의 산업체로의 이전 및 조기 상업화 실현 · 국내의 유전체 연구의 기술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바이오응용화학연구소	2006. 3. 1	바이오응용분야	- 주요사업 · 정부용역사업수주 · 바이오업체 산학지원
수리과학연구소	2006. 3. 1	수리과학분야 기초학문분야 (수학)	- 주요사업 · 수리과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 · 연구결과의 전파, 교육, 교류사업
국제기술협력연구소	2006. 3. 1	국제기술협력	- 주요사업 · 핵심기술보유 해외연구기관과 국제협력기술 획득사업 관리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국외전문가 초빙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연구 성과 공유 - 간행물 · 기술과 협력
자연과학연구소	2006. 3. 1	자연과학분야 천문, 통계, 지질, 물리	- 주요사업 · 자연과학연구 및 지역사회 과학교류 - 간행물 · 자연과학연구소 논문집
나노공학연구소	2006. 3. 1	나노공학분야 나노소재	- 주요사업 · 국외출장연구보조비 지원
과학수사연구소	2006. 3. 1	과학수사분야	- 주요사업 · 과학수사학 연구사업과 현장 전문수사요원 교육 및 양성 · 교육센터, 과학수사 전문연수과정 운영 · 06~09년 교육과학기술부, 지문특정연구개발 사업 과제 · 08~10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학연공동 장비개발 및 연구 · 08~10년 한국화학연구원, 첨단연구분석장비 개발사업 과제 · 10~11년 코스비전 위탁 연구과제 수행 - 간행물 · 과학수사학
건축연구소	2006. 3. 1	건축학분야	- 주요사업 · 국내, 국제 학술행사 · 건축학분야의 지원 ·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위한 연구의 유도 및 지원사업
건설방재연구소	2006. 3. 1	건설(토목) 공학분야	- 주요사업 · 토목공학 관련 연구, 개발 사업 지원사업

연구소	설치 년월일	연구분야	주요사업 및 간행물
		건설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건설 및 방재 분야에서의 성장 기틀 마련 및 건설 방재형 SOC 구축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유도 및 지원 · 실무형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수행
국 방 연구 소	2006. 12. 7	군사학분야 국가방위 및 안보관련 연구 및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 학제적 연구사업의 개발 및 추진 · 지역특성화 발전에 부합하는 연구 및 개발사업 · 민·관·군 협력 네트워크형 인적자원개발 사업 · 충청권 신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국방산업 인재육성 및 교육·고용연계시스템 구축사업 ·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민군겸용기술 특화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창출사업
감염신호 네트워크 응용 연구센터	2007. 5. 1	병리의학분야 기초의약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 산학협력 체제를 통한 연구 실용화 · 우수연구인력 교육 및 양성 · 전문 분야 우수 과학자 초청 및 국제학술 회의 주관 개최 · 국외 및 국내 우수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및 국제협력
정 치 연구 소	2007. 5.14	정치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 한국정치 연구사업 · 지역 정치인 및 고위정책관리자 능력발전센터업무 · 국제교류협력센터업무 · 정치이론과 실체에 관한 연구사업 · 지방정치 및 자치 프로그램업무 · 군 관련 전문 프로그램업무 · 선거 및 정보화(information Technology)시대 정치연구사업 · 북한, 통일연구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업무
온 누 리 글 연구 소	2007. 5.14	인문학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 온누리한글 연구
역 학 연구 소	2007. 5.14	역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 역학 연구
한 자 문 화 연구 소	2007. 5.14	인문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 한자 문화의 종합적 연구 및 번역사업 ·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인재양성
생 체 신 호 네트워크 연구 소	2008. 6.23	생체신호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 생체신호 네트워크 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 생체신호 네트워크분야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 생체신호 네트워크분야의 연구기반 조성 및 정책 개선업무 · 산학연관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관련 주제 기술인력 양성 · 국제학술교류지원 사업
사 회 조 사 센터	2009. 2.	인문사회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주요정책 시민의견 수렴사업>

연구소	설치 연월일	연구분야	주요사업 및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사행성감독위원회 도박 유병률 조사 · 언론사 지역 현안 관련 시민 조사 <통계에 관한 교재 및 통계방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학생 역량 향상을 위한 설문 개발 · 통계청 인터넷 자원자 표본 방법 개발 · 통계 교육원 교재 개발 · 대학생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설문 개발 · 통계청 차트 교재 개발
미세유체 응용화학 연구소	2009. 3.17	미세유체응용화학	- 주요사업 · 창의연구진흥사업
독감 바이러스 연구소	2009. 3.17	독감바이러스 면역	- 주요사업 ·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 국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역학 조사 및 인체 백신개발사업
나노바이 오 융합 기술 연구소	2009. 4. 1	나노기술분야 생명기술융합분야	- 주요사업 · 차세대 초고감도 다중 바이오/의료 체외 진단 기술 개발사업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사업 · 스마트 난복합체 개발연구
종합군수 체계 연구소	2009. 10.22	교육 및 훈련 분야 컨설팅분야 TOOL 및 Methodologies 개발 분야	- 주요사업 · 산업체 기술과 군소요 연결 및 사업 모델개발 · 효율적인 군 아웃소싱 모델연구 · 군수혁신 방법론과 정책연구 · 특화연구용역업무 수행준비/시행 · ILS 관련 군 및 민·관·정부관련 업체 실무자 교육 · ILS분석 TOOL 개발
국방위성 항법특화 연구센터	2010. 12.7	국방과학분야	- 주요사업 · 국방과학분야 국책사업 수행

2) 각 연구소별 활동 실적

각 부설연구소마다 많은 간행물을 발표하였다. 많은 간행물과 활동 실적 등을 보면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의 노력과 발전을 알 수 있다. 직원은 전임교수, 조교, 직원 등의 합을 나타내었는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예산액 또한 증가세를 보여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부설연구소별 설치 연월일과 1990년~2010년까지의 활동 실적과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3) 대내외 연구 활동

(1) 국내 연구 활동

1990년대 말 12개 단과대학, 86개 학과의 재직교수 760명과 사회과학원 교수 1명을 합하면, 총 교수는 761명이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교육 부대시설과 연구 편의 시설들도 속속 빛을 보았다. 이 가운데 주목할 점은 해외 학술 D/B 검색망 및 컴퓨터 통신망의 개통과 공동실험실습관 및 산학연 교육연구기관의 개관이다. 이러한 연구 편의 시설들이 원활하게 활용되고, 학술정보의 입수, 연구소재 및 인력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분야별 공동연구는 물론, 산학연 공동 연구도 활기를 찾게 되었다. 또한, 연구기기 활용 면에서 볼 때, 공동실험실습관의 출현은 연구 활동의 활성화에 가속도를 가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20여 년간 착실히 인연을 맺어온 주변 연구소들과도 교류의 폭을 넓혀 석박사과정을 공동으로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겸임교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렇듯 교수의 연구는 나날이 발전하였다.

1990년대 말까지, 충남대학교에서 발간한 3종의 ‘연구업적(1992년 이전, 1999년도 이전 및 2000년도)’에 연구실적을 등록한 86개 학과, 758명의 교수가 1989년 초부터 2000년 말까지 12년 동안 발표한 연구실적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6〉 계열별 교수 연구업적(1989~2000)

계 열	학과수	교수수	논 문	저 서	연구보고	학술발표	특 허	창작 기타
인 문	13	97	1,588	430	171	396		12
사 회	8	43	762	188	211	346		
자 연	13	117	2,924	272	414	1,539	52	185
경 상	4	45	706	131	236	228		
공 학	21	167	4,519	356	2,065	6,143	216	
농 학	12	67	2,054	203	689	1,312	52	
법 학	2	13	214	34	28	17		
약 학	2	15	587	34	70	174	49	
의 학	2	134	4,908	123	171	1,269	25	
생활과학	3	18	377	39	51	209	3	11
예 술	5	27	59	19	2	16		1,431
수 의 학	1	15	720	41	76	192	3	
12개 계열	86	758	19,418	1,870	4,184	11,841	400	1,639

다음과 같이 1989년 초부터 2000년 말까지 12년 동안, 교수 1인당 연평균 2.13편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은 지난 10년간(1979~1988) 교수 1인당 연평균 1.41편보다 0.72편 증가한 것이다.

〈표 67〉 계열별 교수당 연평균 발표논문(1989~2000)

계열	인문	사회	자연	경상	공학	농학	법학	약학	의학	생활	예술	수의과
논문 (편)	1.36	1.48	2.08	1.31	2.25	2.55	1.37	3.26	3.05	1.75	4.42	4.00

(2) 국외 연구 활동

이 기간 동안 충남대학교에서는 교수들의 장단기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하였다. 장기 연수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연구비는 교수당 1,500만 원이고, 단기 연수는 2~3주를 기준으로 연구비는 평균 230만 원이다. 이 외에 학술발표차 국외 출장을 갈 경우에도 출장지에 따라 36~72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데, 1990년대 말 5년간 교수들의 장·단기 해외 연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8〉 장·단기 교수 해외연수 현황(1996~2000)

대 학	장 기 해 외 연 수						단 기 해 외 연 수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문 과 대 학		1		1	1	3	5	5	5	2	2	19
사회과학대학	1			1	2	4	2	2	1	1	1	7
자연과학대학		2	1	4	3	10	6	6	3	3	3	21
경 상 대 학	2					2	2	2	1	1	1	7
공 과 대 학	3	1	2	5	8	19	6	6	3	3	4	22
농 과 대 학	1					1	4	4	2	1	2	13
법 과 대 학						0	1	1	3	1	1	7
약 학 대 학					1	1	1	1	1	1	1	5
의 과 대 학		1	1	4	1	7	5	5	3	1	3	17
가 정 대 학				1		1	1	1	1	1	1	5
예 술 대 학	1	2		1		4		1	1	1	1	4
수의과대학						0		1	1	1	1	4
계	8	7	4	17	16	52	33	35	25	17	21	131

<표 69> 국내·외 연구 활동 현황(1996~2000)

연 도	계 열	논 문			학술발표		
		국 내	국 외	계	국 내	국 외	계
1996	인문사회	345	10	355	110	16	126
	자 연	1,334	168	1,502	806	159	965
	예 체 능	13	0	13	3	0	3
	계	1,692	178	1,870	919	175	1,094
1997	인문사회	356	12	368	167	26	193
	자 연	1,514	174	1,688	1,043	221	1,264
	예 체 능	13	0	13	2	0	2
	계	1,883	186	2,069	1,212	247	1,459
1998	인문사회	443	8	451	216	17	233
	자 연	1,747	231	1,978	1,408	200	1,608
	예 체 능	12	0	12	2	0	2
	계	2,202	239	2,441	1,626	217	1,843
1999	인문사회	352	14	366	219	17	236
	자 연	1,372	268	1,640	1,440	219	1,659
	예 체 능	7	0	7	3	0	3
	계	1,731	282	2,013	1662	236	1,898
2000	인문사회	346	18	364	178	28	206
	자 연	1,179	439	1,618	1,301	413	1,714
	예 체 능	25	0	25	7	0	7
	계	1,550	457	2,007	1,486	441	1,927

국내 학술지에 여러 등급이 있듯이, 국외 학술지 역시 발행 국가의 문화와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학문의 지명도가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위 표의 국내·외 연구 활동 중에서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학술발표 실적만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0> 교수의 국외 활동 현황(1996~2000)

계 열	논문(국외 %) (국외/(국내+국외) × 100)					학술발표(국외 %) (국외/(국내+국외) × 100)				
	1996	1997	1998	1999	2000	1996	1997	1998	1999	2000
	인문사회	3	3	2	4	5	13	13	7	7
자 연	11	10	12	16	27	16	17	12	13	24

계열	논문(국외 %) (국외/(국내+국외) × 100)					학술발표(국외 %) (국외/(국내+국외) × 100)				
	1996	1997	1998	1999	2000	1996	1997	1998	1999	2000
예체능	-	-	-	-	-	-	-	-	-	-
총계	10	9	10	14	23	16	17	12	12	23

위에서 보는 것처럼 논문게재 및 학술발표에 있어, 국외 활동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이후에 유학을 마친 신진 교수들이 대거 총원된 탓도 있겠지만, 이 기간에 중점 추진된 장·단기 해외연수, 해외 학술 D/B 검색망 및 컴퓨터 통신망의 개통, 그리고 공동실험실습관의 개관 등 종전보다 좋아진 연구 환경에 의한 것이다. 또한 90년대 말부터 증가한 충남대학교 교수들의 해외 연구 활동은 2000년대에 들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국내 대학들의 주된 경향이었지만 충남대학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VISION 2015의 세계 100대 우수대학, 대한민국 대표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의 아시아 허브 대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남대학교 구성원들의 노력 때문이기도 하다.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초석을 놓고 충남대학교 교수들의 해외 연구 활동을 확대하고자 충남대학교는 여러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비를 2000년 중반부터 2000년대 말까지 점차 늘려왔다. 또한 충남대학교에서는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재정자립의 확립, 발전기금모금을 위한 후원회 조직, 지역 및 동문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지원비를 마련하는 데 힘썼다. 충남대학교 기성회 연구조성비, 충남대학교 학술진흥장학재단,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학술재단의 연구보조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비를 보완하였지만, 2001년 이후로는 충남대학교가 독립적으로 지원비를 마련하여 충남대학교 교수의 국제학술회의 참가를 지원하였다.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71〉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현황(2000~2010)

지원기관 연도별	충남대학교 기성회	충남대학교 학술진흥 장학재단	한국학술 진흥장학 재단	충남대학교 발전기금 재단	간접경비	계
2000	건수	95	45	16	35	191
	금액	55,600,000	19,400,000	8,650,000	19,410,000	103,060,000
2001	건수	79	18		39	136
	금액	41,900,000	11,880,000		23,320,000	77,100,000

지원기관 연도별	충남대학교 기성회	충남대학교 학술진흥 장학재단	한국학술 진흥장학 재단	충남대학교 발전기금 재단	간접경비	계
2002	건수	92	16		49	157
	금액	38,683,000	9,600,000		30,567,000	78,850,000
2003	건수	53			67	120
	금액	31,207,000			40,633,000	71,840,000
2004	건수	4			120	124
	금액	1,970,000			65,990,000	67,960,000
2005	건수	35			52	87
	금액	33,730,000			44,580,000	78,310,000
2006	건수	22			40	148
	금액	28,487,000			48,267,000	167,668,000
2007	건수	223				223
	금액	244,895,000				244,895,000
2008	건수	215				215
	금액	280,693,000				280,693,000
2009	건수	214				214
	금액	269,568,000				269,568,000
2010	건수	128			90	218
	금액	192,141,000			100,000,000	292,141,000
계		1,218,874,000	40,880,000	8,650,000	272,767,000	267,668,000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자. 충남대학교 기성회 지원이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성회 지원으로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를 충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건수 및 금액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충남대학교 구성원들이 대외적 연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3) 1999년부터의 각 대학별 연구실적

2010년도 말에 16개 단과대학, 105개 학과에 재직 교수가 900명에 근접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교육 부대시설과 연구 편의 시설들도 확충되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해외 학술 D/B 검색망 및 컴퓨터 통신망의 개통과 공동실험실습관 및 산학연 교육연구기관의 개관이

다. 이러한 연구 편의 시설들이 원활하게 활용되고, 학술정보의 입수, 연구 소재 및 인력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분야별 공동연구는 물론, 산학연 공동연구도 활기를 찾게 되었다. 또한, 연구기기 활용 면에서 볼 때, 공동실험실습관이 개관하면서 연구 활동이 더 활성화되었다.

〈표 72〉 충남대학교 연도별 학술연구실적(1999~2010)

연도	전임 교수	논문		학술발표		저서	연구보고	기타	계
		국외	국내	국외	국내				
1999	744	382	2,060	403	1,904	321	622	380	6,072
2000	750	553	1,828	558	1,723	256	540	430	5,888
2001	748	516	1,784	538	2,017	254	513	418	6,040
2002	757	533	1,747	519	1,871	236	403	385	5,694
2003	755	683	1,960	262	1,214	167	178	274	4,738
2004	766	665	1,508	559	1,796	224	0	612	5,364
2005	854	871	1,631	903	1,692	221	215	639	6,172
2006	871	1,132	1,530	1,342	2,144	314	334	554	7,350
2007	867	976	1,269	835	1,225	201	149	462	5,117
2008	899	1,237	1,610	1,320	1,586	202	156	452	6,563
2009	885	1,340	1,804	1,552	3,124	369	0	953	9,142
2010	893	1,512	1,680	1,513	3,125	288	16	549	8,683

위의 표를 보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신진 교수들의 대거 총원과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경비 증가, 장·단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해 논문 및 학술발표에 있어 국외 활동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30여 년간 착실히 인연을 맺어온 주변 연구소들과도 교류의 폭을 넓혀 석·박사과정을 공동으로 지도하였고, 연구를 위한 겸임 교수제도 실시하였다. 2010년도 말까지, 충남대학교에서 발간한 통계연보의 “연구업적”에 등록된 각 단과대학별 3년간의 학술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73〉 단과대학별 연구 실적(2008~2010)

대학	연도	전임교수	논문		학술발표		저서	연구보고	기타	계	1인당 발표실적
			국외	국내	국외	국내					
인문대학	2008	85	1	142	22	74	47	3	59	348	4.09
	2009	86	2	145	31	138	40	0	27	383	4.45
	2010	86	6	125	37	108	53	0	39	368	4.28
사과대학	2008	50	3	95	28	122	19	18	2	287	5.74
	2009	51	5	113	36	135	38	0	2	329	6.45
	2010	51	4	86	39	112	21	2	2	266	5.22
자연대학	2008	97	131	57	140	108	9	3	26	474	4.89
	2009	99	140	75	160	246	22	0	122	765	7.73
	2010	98	167	63	138	305	24	0	59	756	7.71
경대상학	2008	46	2	62	13	35	18	6	1	137	2.98
	2009	43	7	71	29	51	22	0	3	183	4.26
	2010	44	8	57	31	58	38	0	1	193	4.39
공대과학	2008	188	329	414	421	566	17	49	114	1,910	10.16
	2009	179	322	428	519	1,103	36	0	86	2,494	13.93
	2010	184	356	427	451	1,079	26	0	51	2,390	12.99
농대생학	2008	71	119	246	153	200	20	28	44	810	11.41
	2009	70	146	243	113	367	24	0	0	893	12.76
	2010	68	173	240	151	329	12	0	30	935	13.75
약대학학	2008	18	81	29	45	29	6	0	16	206	11.44
	2009	15	95	29	69	73	9	0	28	303	20.20
	2010	15	157	27	91	89	1	0	2	367	24.47
생대과학	2008	17	16	56	13	39	12	4	13	153	9.00
	2009	18	23	51	29	76	22	0	0	201	11.17
	2010	18	20	49	18	85	5	0	9	186	10.33
예대술학	2008	27	0	5	0	3	1	0	108	117	4.33
	2009	27	0	7	2	10	9	0	269	297	11.00
	2010	25	0	12	0	8	0	0	259	279	11.16
수대의학	2008	22	44	95	21	35	3	4	2	204	9.27
	2009	21	26	102	30	82	6	0	4	250	11.90
	2010	21	70	56	29	50	8	0	0	213	10.14

대 학	연 도	전 임 교 수	논 문		학술발표		저 서	연 구 보 고	기 타	계	1인당 발표실적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생 대 명 학	2008	22	63	28	49	35	3	10	11	199	9.05
	2009	19	38	28	87	57	3	0	0	213	11.21
	2010	19	71	27	28	50	16	0	6	198	10.42
간 대 후 학	2008	9	12	31	6	7	5	4	0	65	7.22
	2009	9	10	21	31	4	29	0	20	115	12.78
	2010	9	13	37	10	13	10	0	0	83	9.22
사 대 범 학	2008	31	2	56	10	32	18	17	9	144	4.65
	2009	35	4	112	13	35	47	0	65	276	7.89
	2010	36	3	64	4	24	23	13	63	194	5.39
자 유 전 공 학 부	2009	2	0	5	0	0	0	0	2	7	3.50
	2010	3	0	7	0	3	2	0	0	12	4.00
법 학 전 문 대 학 원	2008	34	0	40	2	12	3	2	3	62	1.84
	2009	32	0	42	1	17	11	0	9	80	2.50
	2010	29	2	40	1	20	11	1	0	75	2.59
의 학 전 문 대 학 원	2008	161	319	234	261	189	21	8	17	1,049	6.52
	2009	147	411	287	323	621	40	0	21	1,703	11.59
	2010	148	331	311	381	659	30	0	22	1,734	11.72
분 석 과 학 기 술 대 학 원	2008	6	38	3	44	25	0	0	9	119	19.83
	2009	8	53	4	38	46	0	0	1	142	17.75
	2010	10	50	2	40	48	2	0	4	146	14.60
녹 색 에 너 지 기 술 문 화 학 원	2008	6	38	3	44	25	0	0	9	119	19.83
	2009	8	39	8	17	37	4	0	56	161	20.13
	2010	10	32	14	37	32	1	0	0	116	11.60
신 약 전 문 대 학 원	2008	6	38	3	44	25	0	0	9	119	19.83
	2009	7	18	23	21	23	2	0	17	104	14.86
	2010	9	46	11	23	42	2	0	2	126	14.00
경 영 대 학 원	2009	5	1	2	0	0	1	0	221	225	45.00
	2010	6	1	2	2	0	1	0	0	6	1.00
평 화 안 보 대 학 원	2008	3	1	11	4	25	0	0	0	41	13.67
	2009	4	0	8	3	3	4	0	0	18	4.50
	2010	4	2	23	2	11	2	0	0	40	10.00



제 4 절 환경·시설

1. 교사와 부속 시설의 확충과 발전

1) 교사의 확충과 발전

(1) 인문대학

인문대학 건물은 노후화로 인하여 내부 및 외부 마감재와 설비를 교체하여 교육 연구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문관의 증축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가 2009년 8월 26일에 착공되어, 2010년 11월 19일에 완공되었다. 인문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투자 총액은 5,365,628천 원이었으며, 그 재원은 일반 회계였다.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연면적은 14,017m²이었다. 인문관 3개 동의 보수가 이뤄졌으며, 연면적 1,065.78m², 지상 5층이 증축되었다. 건물의 주요 마감재를 살펴보면 외부는 화강석 마감, 커튼 월 복층 유리가 사용되었고 내부의 바닥은 비닐계 타일로 시공하였다. 이와 함께 냉난방 설비도 갖추게 되었다. 증축된 부분의 시설을 살펴보면, 지상 1층에는 계단실과 필로티, 2층에는 연구실과 세미나실, 3층과 4층에는 연구실, 그리고 5층에는 소회의실과 세미나실이 배치되었다.

(2)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은 1995년 2월에 신축되었다. 사회과학대학은 원래 대학 장기발전 계획상으로는 연면적이 8,622m²인 5층 규모의 건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여건상 연면적 6,198m²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건립되었다. 사회과학대학의 건물은 마치 양팔을 벌린 것과 같은 건물의 형태를 취했다. 건물의 우측 복도의 끝에는 삼각형으로 돌출된 전면 유리창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연결되었고, 중앙 홀과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실이 중복도식으로 배치되었다.

신축된 사회과학대학 건물의 지상 1층에는 8개의 강의실을 비롯하여 과제 도서실과 휴게실, 학생 회의실과 대의원실 등이 위치하였으며, 이 건물의 2층에는 교수 연구실과 강의실을 비롯하여 세미나실, 전산실, 행정실, 학과 사무실, 사회과학연구소, 자료실 등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신축된 사회과학대학 건물의 3층에는 교수 연구실과 강의실을 비롯하여 학과 사무실, 자료실 등이 배치되었으며, 4층에는 방송 제작 실습실, 정보 검색 실습실, 신경과학 실습실 등이 자리를 잡았다. 또한 이 건물의 지하 1층에는 건물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과 전기실 등이 위치하였다.

이후 사회과학대학 강의동의 증축 공사가 이루어졌다. 사회과학대학 강의동의 증축 공사는 2004년 7월 1일에 착공되었으며, 2006년 7월 21일에 이르러 완공되었다. 사회과학대학의 부족한 기본 시설(강의실)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증축 공사에 소요된 투자 총액은 2,538,827천 원이었으며 그 재원은 기성회 회계였다. 증축된 사회과학대학 강의동은 연면적 1,933㎡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였다. 증축된 강의동 건물의 외부에는 적벽돌 및 AL 창호, 복층 유리가 사용되었다. 내부의 경우에 벽은 페인트 마감을 하였고, 바닥은 비닐계 타일로 시공하였으며, 냉난방 설비를 갖추었다. 증축된 사회과학대학 강의동의 지상 1층에는 대형 강의실과 소형 강의실을 비롯하여 조정실 등이 위치하였으며, 2층에는 중형 강의실과 소형 강의실이 자리를 잡았다. 이 증축 강의동의 3층에는 소형 강의실이 자리를 잡았으며, 4층에는 소형 강의실과 전산 강의실 등을 갖추었다. 증축된 강의동 건물의 지하 1층에는 멀티미디어실과 창고 등이 배치되었다.

(3)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의 이학 1호관(현재는 자연과학대학 1호관)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건물로, 건물의 외벽 및 내부 마감재와 창호, 기계 및 전기 설비 등의 노후화가 심하여 사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이학 1호관 건물의 내·외부 마감재와 노후 설비 등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학 1호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연과학대학 이학 1호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2009년 8월에 착공되었으며, 그 후 2010년에 이르러 그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학 1호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투자 총액은 2,985,871천 원이었으며, 그 재원은 일반 회계였다. 증축된 이학 1호관의 주요 마감재를 살펴보면 외부는 외단열 마감, 커튼월 복층 유리로 시공하였으며, 내부의 경우에 벽은 페인트 및 인테리어 마감, 바닥은 비닐계 타일로 시공하였다. 이학 1호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기존 이학 1호관 건물의 연면적 8,147㎡를 리모델링하였으며, 연면적 715.27㎡에 이르는 지상 4층이 증축되었다. 증축된 부분의 지상 1층에는 신체교정실을 배치하였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강의실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학 1호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자연과학대학의 교육 시설이 개선되고 확장되었다.

이외에 자연과학대학의 무용실기실 신축 공사도 이뤄졌다. 기존의 무용실기실은 이학 2호관의 강의실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천정의 높이가 확보되지 않아 학사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었고, 별도의 무용실기실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다. 신축된 무용실기실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건립되었다. 자연과학대학 무용실기실의 신축 공사는 2006년 5월 1일에 착공하였으며, 2006년 10월 28일에 준공되었다. 신축된 자연과학대학 무용실기실은 실내 체육관 옆에 건립되었는데, 이 무용실기실의 신축 공사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318,977천 원이었으며, 그 재원은 기성회 회계였다. 신축된 자연과학대학 무용실기실은 연면적이 608.5m²에 이르는 지상 1층의 건물로 지어졌다. 이 무용실기실 건물의 주요 마감재를 보면 외부는 75mm EPS 판넬과 지붕 125mm EPS 판넬이 사용되었고 내부의 벽은 거울 및 페인트 마감, 바닥은 마루로 시공하였다. 그리고 이 무용실기실의 1층에는 무용실과 소품실이 위치하였다.

(4) 공과대학

공학 5호관은 2009년 3월 26일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 11일에 준공되었다. 기존의 공장동 부지에 신축된 공학 5호관은 연면적이 14,991m²에 이르며, 지하 1층에 지상 6층의 평슬라브 지붕,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어졌다. 공학 5호관 건물의 주요 마감재를 살펴보면 외부에는 화강 석 판재, 알루미늄 시트 판넬이 사용되었으며, 내부의 벽은 페인트 마감, 바닥은 비닐계 타일, 에폭시 마감으로 시공하였다. 공학 5호관의 신축 공사의 투자 금액은 총 19,196,000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재원은 일반 회계였다.

준공된 공학 5호관은 부족한 교사 시설을 확충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조기 개축이 시급함에 따라 이를 철거한 후에 신축되었다. 기존 건물은 노후화로 인해 지붕 누수에 따른 전기 누전 등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설비의 노후로 냉·난방이 불가능하여 교육 연구 시설로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개축의 필요성이 있었다.

신축된 공학 5호관의 1층부터 3층까지는 실험 실습실, 강의실, 연구실 등의 공학 교육 실습관이 위치하였고, 4층부터 6층까지는 급속 응고 신소재 연구소, 컴퓨터공학과와 실습실과 강의실을 비롯한 세미나실, 연구실 등이 배치되었다. 신축된 충남대학교 공학 5호관은 현대화된 공학 교육 실습관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학 계열의 교육 기본 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5) 법경대학

법경대학은 법과대학과 경상대학이 함께 사용하던 건물이다. 1964년 법경대학이 신설되며 법과대학과 경상대학은 법경대학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1979년 법경대학에서 법과대학이 분리

되면서 법과대학과 경상대학으로 나누어졌다. 기존의 법경대학은 연면적 9,927㎡로 3층에는 경상대학, 4층에는 법과대학이 위치하였다. 대학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며 법경대학의 면적 증량이 요구되었다. 이에 법경대학 건물의 증축을 위해 단계별로 1단계 3,182㎡, 2단계 911㎡를 증량을 고려하였다. 북측과 동측에 증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북측의 소규모 개방 장소는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동쪽의 증축이 검토되었다.

법경대학의 1단계 증축은 1996년 8월에 완료되었으며 연면적 3,072㎡, 5층 규모의 별동이 기존 법경관 건물의 동쪽에 준공되었다. 2단계 증축은 2001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경상대학이 위치한 3층 건물의 상부에 1개의 층을 증축하여 911㎡의 면적을 확충함으로써 경상대학 건물의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법과대학은 연면적이 3,185㎡인 지상 4층의 건물로, 강의실과 각종 연구실, 행정실 등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경상대학은 연면적 9,816㎡, 지상 3층(일부 5층)의 건물로, 강의실과 연구실, 경영대학원, 행정실 등을 갖추었다.

법경대학은 전면의 공과대학 1호관과 연계하여 아치를 사용한 입면을 구성하였으며, 경사지라는 지형 조건을 이용하여 다양한 건물의 높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건물 내에도 반영되어 같은 층이라도 각각의 높이가 다르게 건축되었으며, 계단을 통해 이동하도록 설계되었다.

(6)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2005년 5월 3일에 착공되어 2008년 12월 24일에 완공되었다. 신축된 생활과학대학은 수의과대학 전면의 농과대학 과수원 부지에 위치하게 되었다. 기존의 생활과학대학은 공과대학의 일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교육 여건과 학생 증원으로 인해 원활한 학사 운영이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을 확보하고, 현대화된 강의실 및 첨단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활과학대학을 신축하였다.

생활과학대학은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연면적은 10,368.93㎡에 이른다. 이 건물의 총공사비로 10,212,195천 원이 투입되었고, 그 재원은 일반 회계였다. 신축된 생활과학대학의 외부 주요 마감재는 알루미늄 커튼월, 압출 성형 시멘트 판이 사용되었고 외단열 마감 처리를 하였으며, 내부의 벽은 페인트로 마감하였고, 바닥은 비닐계 타일로 시공하였다. 이 건물에는 시청각 설비와 냉난방 설비,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이 갖추어졌다.

생활과학대학의 지상 1층에는 의류학과 강의실과 실험 실습실, 320석 규모를 갖춘 학생 식당, 2층에는 의류학과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 그리고 실험 실습실, 3층에는 의류학과 실험 실습

실과 행정실, 192석의 대강의실, 4층에는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강의실, 실험 실습실, 교수 연구실, 식품영양학과 강의실, 실험 실습실, 교수 연구실, 5층에는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강의실, 실험 실습실, 교수 연구실과 식품영양학과 강의실, 실험 실습실, 교수 연구실, 6층에는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구실과 실험 실습실, 7층에는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구실과 실험 실습실 등이 위치하였다. 한편 지하 1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 등이 자리를 잡았다.

(7) 예술대학

예술대학의 교육 시설에 대한 신축과 증축도 지속해서 이루어졌는데, 1996년 7월 18일에는 예술대학 음악관이 증축되었다. 음악관은 음악 분야 전반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실기를 통한 기술을 함양하며, 나아가 예술적인 표현 능력을 교수, 연구하는 예술 교육의 전당이다.

종합운동장 동편의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예술대학 음악관은 기존의 음악관과 신축된 음악관 2개의 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음악관은 연면적 2,456㎡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이다. 기존 음악관 건물의 규모는 대학 장기 개발 계획상의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여 2,411㎡의 증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2단계에 걸친 단계별 증축안이 검토되었으나, 2단계의 증축 규모가 매우 작아 1995년에 진행된 1단계 증축에서 수요를 전부 수용하게 되었다.

1단계 증축 시설인 신축 음악관은 산 중턱이라는 지형 여건상 기존의 음악관 건물과 나란히 배치되었고 통로를 통해 두 건물이 연결되었다. 건물의 규모는 기존 건물과의 균형을 위해 3층으로 하였으며, 지형 여건상 입구를 중심으로 좌측부는 1층이 아닌 2층을 통해 진입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기존 음악관과의 연결을 위한 통로를 2층에 설치하였다. 증축된 음악관 건물은 연면적이 3,707㎡에 이르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이다. 해당 음악관은 학생들의 연습실이 위치한 건물의 우측부와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 등이 위치한 건물의 좌측부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개의 건물군은 개방된 공간이 있는 복도를 기점으로 나누어져 있다. 음악관은 박공지붕을 사용하고 있으며, 벽면 처리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아치형 창호를 사용하고 있다.

신축된 음악관 건물의 1층에는 관리실과 합창 실습실, 학생들의 개인 연습을 위한 연습실 등이 배치되었는데, 학생들의 개인 연습을 위한 연습실은 방음 효과를 위하여 연습실의 형태를 장방형이 아닌 사다리꼴로 하였다. 그리고 이 음악관의 2층에는 교수 연구실을 비롯하여 개인 연습실과 행정실, 과사무실 등이 위치하였으며, 기존 음악관과의 연결을 위한 통로가 복도와 연결되고 있다. 또한 이 음악관의 3층에는 강의실과 관현악 실습실, 피아노 실내악실, 세미나실, 개인 연습실 등이 배치되었다. 한편 이 음악관 건물의 지하 1층에는 학생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실이 마련되었으며, 건물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을 갖추었다.

그 후 2011년 7월 15일에는 예술대학 오케스트라 연습실이 신축되었다. 예술대학 오케스트라 연습실은 오케스트라 연습실과 각종 특수 악기 보관실 등을 확충하여 음악 전공의 오케스트라 및 합창, 타악기 등의 실습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하게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되었다. 신축된 예술대학 오케스트라 연습실은 연면적이 768.12m²에 달하는 지상 2층의 건물이다. 오케스트라 연습실은 2010년 2월 17일에 착공되었으며, 기존 음악관의 우측 입구에 위치하게 되었다. 신축된 예술대학 오케스트라 연습실은 총공사비 1,266,032천 원을 투입하여 완공되었는데, 그 재원은 기성회 회계였다. 이 오케스트라 연습실의 주요 마감재를 살펴보면 외부는 알루미늄 시트 판넬을 사용하였으며, 내부의 경우 벽은 페인트 및 흡음 판넬 마감, 바닥은 비닐계 타일로 시공하였다. 오케스트라 연습실의 지상 1층은 창고이며, 2층에는 오케스트라 연습실을 비롯하여 타악기실, 악보 보관실, 악기 보관실 등이 위치하였다.

예술대학 미술관과 디자인관 등의 공사도 이루어졌는데, 1990년 11월에는 예술대학 미술관 건물이 준공되었다. 예술대학 미술관은 미술 분야 전반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기를 통한 기술을 함양하며 예술적인 표현 능력을 교수, 연구하는 예술 교육의 전당이다. 충남대학교의 미술관은 지역과 국가의 예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재학생과 동문의 각종 발표회와 전시회를 통하여 예술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술관은 예술인으로서 창조 정신을 구현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준공된 예술대학 미술관은 연면적이 5,036m²에 달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부분적으로 삼각형을 채용하여 다양한 입면 이미지를 제공한다. 미술관 건물은 중앙의 원형 계단을 중심으로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2개의 부분은 말단부의 삼각형 형태를 통해 다양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술대학 미술관 건물의 1층에는 조소 실기실, 도자기 실습실, 판화실, 컴퓨터 실습실, 서양 화실, 섬유 공예실 등의 각종 실습실을 비롯하여 교수 연구실, 학생회실, 학과 사무실 등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 건물의 2층에는 강의실은 물론 각종 실습실과 디자인실, 영상실, 행정실 등이 위치하였으며, 3층에는 연구실과 한국화실이 배치되었다. 또한 예술대학 미술관의 지하 1층에는 학생들의 졸업 작품 전시를 비롯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전시 공간과 건물의 관리를 위한 전기실과 기계실 등이 위치하였다. 한편 예술대학 미술관은 내부의 공간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전면 야외 공간에 조각물의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작품을 야외에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대학 미술관은 대학장기발전계획상 건물 규모의 1단계 수요는 충족시켰으나 2단계의 부족분인 562m²를 추가해야 하는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미술관 건물의 남

측 전면에 남아 있는 공지에 2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기로 하였다. 해당 건물의 증축은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실행될 예정이었으며, 교육 기본 시설 확충의 목적으로 실기실 및 강의실을 약 1,500㎡ 정도로 증축할 계획이었다. 그 후 2002년 12월 24일, 기존 미술관의 후면 부지에 예술대학 디자인관이 준공되었다. 이 신축 공사에는 1,628,606천 원의 총공사비가 소요되었으며 그 재원은 기성회 회계였다. 이 예술대학 디자인관의 신축 공사는 2002년 1월 25일에 착공되었다.

신축된 예술대학 디자인관은 연면적이 2,388.68㎡에 지상 3층으로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 평슬라브 지붕을 취하였다. 디자인관의 주요 마감재를 살펴보면 외부는 변색 벽돌 치장 쌓기를 하였으며, 내부의 경우 벽은 페인트 마감, 바닥은 비닐계 타일로 시공하였다. 미술관 증축 목적으로 신축된 이 예술대학 디자인관은 사회과학대학 뒤에 있던 미술 별관과 미술관 뒤에 있었던 야외 작업장을 철거하고 건립되었다. 이 디자인관 건물의 지상 1층에는 조소 실기실이 위치하였고, 2층에는 사무실과 연구실을 비롯하여 디자인 자료실, 섬유실, 컴퓨터 교육실, 강의실 등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 디자인관의 3층에는 강의실, 대학원 실습실, 시각 디자인 실습실, 컴퓨터 응용 디자인실 등이 위치하였다.

(8) 수의과대학

1995년 12월 20일에 수의과대학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해당 건물은 종합운동장의 북쪽에 위치하였다. 수의과대학은 외부로부터 직접 진입하도록 하여 외부인의 교내 진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교내에서의 진입은 음악관 앞의 도로를 연장하여 수의과대학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준공된 수의과대학은 연면적이 3,707㎡이며,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이다. 수의과대학은 각종 실험 동물과 재료 반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수직적 이동 시 계단과 외부로 돌출된 램프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램프는 수의과대학의 좌측 편에 자리한 동물병원과의 연결을 위한 매개체로도 이용되고 있다.

수의과대학의 1층에는 교수실과 강의실을 비롯하여 준비실, 병리학 실험실, 발생학 실험실, 조직학 실험실, 해부학 실험실, 해부학 실습실 등이 배치되었다. 또한 이 건물의 2층에는 강의실, 현미경 실험실, 전자 현미경실, 세미나실, 컴퓨터실, 도서실, 행정실 등이 자리를 잡았다. 3층에는 교수실과 준비실을 비롯하여 생리학 실험실, 독물학 실험실, 약리학 실험실, 미생물학 실험실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4층에는 교수실과 준비실을 비롯하여 기생충학 실험실, 전염병학 실험실, 화학 실험실, 특수 시청각실 등이 위치하였다. 또한 이 건물의 지하층에는 건물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 전기실, 창고 등이 배치되었다.

(9)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은 2003년 5월 13일에 착공하여 2006년 9월 7일에 준공되었다. 신축된 생명시스템과학대학은 수의과대학 전면에 있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과수원 부지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생명시스템과학대학의 신축 공사에는 총사업비 11,494,319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재원은 일반 회계였다. 생명시스템과학대학 건물은 생명과학 연구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구축과 현대화된 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신축되었다. 생명시스템과학대학 건물의 연면적이 9,096.93m²에 이르며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생명시스템과학대학의 건물 외부는 점토 벽돌 치장 쌓기를 하였으며, 내부의 바닥은 비닐계 타일로 시공하였다.

생명시스템과학대학 건물의 지상 1층에는 강의실을 비롯하여 컴퓨터실, 세미나실, 행정실, 학장실, BK21 사업단 등이 자리를 잡았으며, 2층에는 세미나실, 방사선동위원소실, 미생물학 실험실, 생물학 실험실, 학생회실 등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의 3층에는 교수실을 비롯하여 생물학 실험실, 생태 분석실, 공동 기기실 등이 배치되었으며, 4층에는 교수실, 생물학 실험실, 배양실, 분석 기기실, 암실, 냉장실 등이 자리를 잡았다. 5층에는 교수실을 비롯하여 미생물학 실험실, 배양실, 공동 기기실 등이 위치하였으며, 6층에는 교수실, 공동 기기실, 암실, 냉장실, 미생물학 실험실 등이 배치되었고 7층에는 바이오 온실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지하 1층에는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공동 기기실, 어류 사육실, 자료실 등이 갖추어졌다.

(10)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사는 2005년 5월 23일에 착공하여 2007년 6월 26일 준공되었다. 신축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건물은 수의과대학 옆 임야에 위치하였다.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축 공사에 8,177,137천 원의 총공사비가 소요되었으며, 그 재원은 일반 회계였다.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축 목적은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을 갖춘 법조인, 자신의 영역에서 확실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열정과 도덕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 교육기관을 확충하기 위함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연면적이 6,837m²에 이르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며, 주요 설비로 냉난방 시설과 17인승의 승강기 등을 갖추었다. 이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의 주요 마감재를 살펴보면 외부에는 변색 치장 벽돌이 사용되었고 내부의 벽은 페인트 및 인코트 마감, 바닥은 비닐계 타일로 시공하였다.

신축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상 1층은 643석(계단강의실 3개 498석, 일반강의실 2개 115석, 세미나실 1개 30

석) 규모의 강의실과 휴게실을 갖추었으며, 2층에는 원장실을 비롯하여 행정실, 학과사무실과 155석(계단강의실 1개 90석, 일반강의실 1개 65석) 규모의 강의실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의 3층에는 법률센터와 열람실 등이 자리를 잡았으며, 4층에는 컴퓨터실, 법학연구소, 세종지적재산권 연구소, 도서관 자료실과 열람실 등이 배치되었으며, 5층, 6층에는 연구실과 세미나실 등이 자리하였다. 또한 이 건물의 지하 1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 등을 갖추었다.

(11) 백마교양교육관

백마교양교육관의 신축 공사가 2002년 4월 7일에 착공되어 2003년 12월 22일에 완공되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된 이 백마교양교육관의 신축 공사에 소요된 투자 총액은 7,781,565천 원이었으며, 그 재원은 일반 회계였다. 신축 목적은 각 단과대학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기초 교양 과목의 강좌와 계절제 학기 등의 각종 강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종합 강의동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이를 통해 정보화, 첨단화되어 가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백마교양교육관 건물은 기존 서부 운동장 부지에 위치하였으며 연면적은 9,796.38㎡에 이른다. 이 건물에는 냉난방, 방송, 방법 등의 설비가 갖추어졌으며,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었다. 건물의 주요 마감재를 살펴보면 외부의 경우는 화강석, 알루미늄, 붉은 벽돌이 사용되었으며, 내부의 벽은 페인트 마감, 바닥은 비닐계 타일로 시공하였다. 백마교양교육관의 지상 1층에는 중·소형 강의실과 관리실 등이 위치하였으며, 2층에는 중·소형 강의실을 배치하였다. 3층에는 계단형 강의실을 비롯하여 과제 도서실과 행정실 등이 위치하였으며, 4층에는 중·소형의 강의실이 자리하였다. 또한 5층에도 역시 중·소형의 강의실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 건물의 지하 1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 등이 배치되었다.

(12) 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

2011년 3월 25일에 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의 신축 공사가 착공되어 2013년 8월 10일에 준공되었다. 이 건물의 신축 사업은 교육·연구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대학의 질적 향상과 연구 역량의 강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소와 교수학습지원시설, 교육·행정 시설 등의 대학 통합 공간을 확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는 연면적이 9,066㎡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으로 지어졌다. 이 건물의 주요한 외부 마감재는 화강

석, 금속 판넬, 티타늄 아연 강판 그리고 내부 벽은 페인트로 마감하였고 바닥은 비닐계 타일로 마감하였다. 지상 1층에는 강당과 교육 행정실, 2·3층에는 회의실과 세미나실을 비롯하여 교육실, 교육 행정실, 4·5층에는 각종 연구소와 교육개발원, 교수 학습실 등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지하 주차장을 비롯하여 기계실과 전기실 등이 배치되었다.

2) 의과대학과 충남대학교병원의 확충과 발전

(1) 의과대학

의과대학은 1996년 9월에 기초의학동물생태연구동이 완공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신축 및 증축 공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한편 2001년 2월에는 문화동 의과대학에 의과대학 단독 기숙사가 준공되었다. 의과대학 기숙사 부지 면적은 344.52m²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1,401m²이다. 이전에는 충남대학교의 학생 기숙사가 대덕캠퍼스에만 있어 의과대학 학생들이 숙식에 불편하였으나, 의과대학 단독 기숙사가 준공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다. 의과대학 기숙사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규모를 지닌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구조의 건물로, 수용 인원은 90명이었다. 의과대학 기숙사는 기존 복도형 기숙사와는 달리 아파트형이었으며, 두 개의 방에 하나의 거실을 갖추었다.

OSCE 센터는 2005년 5월 26일에 착공되어 2006년 9월 4일 신축되었다. OSCE 센터는 학생들의 토론 강의와 합동 강의 및 교육 과정 개발에 대한 각종 워크숍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건물은 보운캠퍼스 의과대학 본관의 좌측 부지에 건립되었다. OSCE 센터의 신축 공사에 소요된 투자 금액은 총 1,963,628천 원이었으며, 그 재원은 기성회 회계였다. 의과대학 OSCE 센터는 연면적이 1,842.91m²에 달하며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이 건물의 외부는 적벽돌 치장 쌓기를 하였으며 내부의 벽은 페인트 마감, 바닥은 비닐계 타일로 시공하였다. 신축된 의과대학 OSCE 센터의 지하 1층에는 계단식 강의실과 창고가 위치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의 지상 1층에는 계단식 강의실과 세미나실을 비롯하여 시험 본부 사무실, 전산실, 기자재 보관실 등이 배치되었다. 또한 이 건물의 2층에는 OSCE 실기실과 중앙 통제실이 위치하였다.

그 후 2008년 6월 21일에는 강의실을 확보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회관의 서측에 위치한 의과대학 강의동이 증축되었다. 강의동 증축 공사는 2007년 10월 1일에 착공되었는데, 증축된 강의동의 연면적은 465.84m²에 달하며, 이 증축 공사에 소요된 투자 금액은 총 497,795천 원이었고, 그 재원은 기성회 회계였다. 2010년 4월에는 대전권역 재활병원 및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

염 센터의 기공식이 있었으며, 2011년 11월에는 전임상 시험센터의 착공식이 있었다.

(2) 충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은 1995년 8월 21일 이후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 7월 소아병원을 개원 하였으며, 종합의료정보망을 가동했다. 1999년 4월에는 광역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1년 5월에 대전·충청권역 응급의료센터를 개원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내분비내과연구실이 국가지정연구실로 지정되었다. 2004년 4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을 가동하였고, 2006년에는 조직은행을 개소하였으며, 같은 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전지역노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받았다. 2007년에 대전지역암센터가 설치되었고 2008년에는 충남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와 대전지역암센터 완화의료전문병동, 충남대학교병원 한국 인체자원거점은행이 개소하였으며,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지역임상시험센터, 대전권역별 재활병원이 선정되었다. 2009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전·충청지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로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노인보건의료센터 개원 및 대전 권역재활병원 및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센터 통합건립 기공식이 있었다. 같은 해에 내분비대사질환 병원특성화연구센터와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등을 개소하였다.

충남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첨단의료장비로는 차세대 암치료장비 ‘토모테라피’, 최첨단 PET-CT, 최신형 심혈관조영기 및 뇌혈관조영기, 64채널 MDCT, 3T MRI 등이 있으며 충남대학교병원은 첨단 장비의 도입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지역의료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2010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급성심근경색 평가 1등급,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 획득, 결핵관리사업 최우수표창, 최첨단 암치료기 토모테라피 가동 등 최고병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2011년에는 대전광역시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대전·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개소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일일 외래환자가 4,000명을 돌파하였으며 건강보험급여청구액 기준 진료 실적이 전국 9위에 올라 충남대학교병원이 국내 대표병원으로 부상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하였고, 병원 전체가 유무선 네트워크상의 첨단 통합의료정보시스템으로 연결되어 각종 의료서비스와 전자결재 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U-Hospital’을 구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선정되어 대전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일 외래환자 평균 3,500명 이상, 입원환자 1,000명 이상이 각종 진료과와 검사실·일일수술센터·심혈관센터·인공신장실 등 전문 질환 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3) 부속 시설의 확충과 발전

(1)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은 1개 본관과 3개의 분관으로 운영한다. 본관은 1982년 5월 26일 대덕캠 퍼스로 신축·이전한 중앙도서관(본관)을 지칭하며 분관으로는 1997년에 이전 개관한 농과대학 도서관, 1989년에 신축한 의과대학 도서관, 2007년에 설치된 법학도서관이 있다. 1982년 5월 26일에 신축, 이전된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학문 연구와 교수 활동을 위한 국내·외 도서와 각종 연속 간행물 및 시청각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학문 연구의 요람이다. 중앙도서관은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과대학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중앙도서관은 교내의 다른 시설물들보다 고지대에 위치하여 도서관의 좌측에 건립된 교시탑과 더불어 충남대학교의 랜드마크를 담당한다.

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로, 1997년 이전에는 연면적 1,610.82m²에 3,388여 석 규모였다. 이후 1997년 12월에 장기 발전 계획과 더불어 쾌적한 실내 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 공사와 냉난방 공사를 진행하면서 5,021.045m²의 연면적이 증가하였고, 열람석은 5,000여 석으로 늘었다. 또한 해당 공사를 진행하며 층별 휴게실 설치, 조명 기구 증설, 흡연 구역 지정, 화장실 증설도 함께 이뤄졌다.

증축된 중앙도서관의 1층에는 전자 정보실을 비롯하여 신문 열람실, 종합민원 서비스 센터, 관리 사무실 등이 배치되었다. 2층에는 어문과학 자료실을 비롯하여 제1·2열람실, 휴게실, 전자 자료실, 전산실, 전산 기계실, 보존 서고, 정리실 등이 위치하였고, 3층에는 사회과학 자료실과 제3·4·5열람실, 휴게실, 서무과, 기획과 등의 사무실이 자리를 잡았다. 또한 도서관의 4층과 5층에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어문과학 등의 서고가 위치하였으며 지하 1층에는 지하 대피소와 기계실, 전기실 등의 관리 시설을 갖추었다.

한편, 중앙도서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의 분관을 농과대학과 의과대학에 각각 설치하였다. 1987년부터 운영된 농과대학 분관은 자료의 증가로 공간이 부족했었는데, 이후 1997년에 상록회관이 신축되면서 해당 건물 3층에 면적 566m², 270석 규모로 확장하여 이전, 개관하였다. 이 농업생명과학대학 분관은 농학 분야의 과제 도서와 연구 도서, 참고 도서를 확보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와 학습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완전 개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 분관도 확장하여 이전·개관하였다. 기존 의과대학 분관은 1975년 3월 1일 대학병원 7층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는데, 자료 증가에 따라 공간이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에 의과대학 분관을 새로이 신축하

면서 면적 2,145㎡, 442석 규모로 확장하여 이전·개관하게 되었다. 신축된 의과대학 분관은 완전 개가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의학 분야의 단행본과 학술 잡지 등의 자료를 갖추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교수 및 학생들에게 자료 제공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분관은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에게 최신의 의학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동창회에서 대학발전기금을 기탁 받아 CD-ROM Network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LAN 망을 구축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2007년 10월 8일에는 법과대학 분관이 설치되었다. 기존 법학대학 분관은 지적재산권 법 연구센터 건물 3, 4층에 자료실과 열람실 및 정보검색실을 설치하여 개관하였다. 이후 로스쿨 유치 및 인가에 필요한 서고를 확충할 목적으로 법학도서관의 건립이 추진되었다. 법학도서관의 신축 공사는 2008년 8월 1일에 착공하여 2009년 9월 24일에 준공되었다. 이 법학도서관의 신축 공사에 소요된 투자 금액은 총 1,049,500천 원이었는데, 그 재원은 기성회 회계였다. 신축된 법학도서관은 기존 법학전문대학원 교사의 후면에 건립되었다. 해당 건물의 연면적은 1,191.38㎡이며, 지상 4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법학도서관의 주요 마감재를 살펴보면 외부는 치장 벽돌 쌓기를 하였고, 내부의 벽은 페인트 마감, 바닥은 비닐계 타일로 시공하였다. 이 법학도서관의 지하층에는 필로티, 현관이 위치하였으며, 지상 1층에서부터 4층까지는 서고가 배치되었다. 또한 법학도서관에는 덤웨이터가 설비되었다.

법학도서관은 법학 관련 장서 10만여 권과 인쇄·전자저널 및 Web-DB를 구독·관리·운영하여 교수와 학생의 학술연구 및 학습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신설·확충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보조사서비스, 강의지원서비스, 책배달서비스, 목차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2015년 5월에는 도서관 전면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습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하였다.

(2) 박물관

기존 박물관은 중앙도서관의 1층에 위치하여 전시 공간과 수장 공간이 부족하였고, 공간이 협소하여 사회 교육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점으로 인하여 1998년에 박물관 건물을 준공하게 되었다. 이후 2000년 3월에 신축 박물관이 개관하였고, 해당 건물은 교시탑 뒤편에 위치하였다.

제3후생관의 맞은편에 자리한 신축 박물관은 대지 면적이 6,260㎡, 건축 면적이 1,822㎡, 연면적이 4,074㎡에 달하였다. 이 신축 박물관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를 지닌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로 2개의 전시실과 3개의 수장고를 갖추었다. 건물의 공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축된 박물관 건물 1층에는 로비를 중심으로 하여 2개의 전시실과 다목적 홀이 위치하

고 있었는데, 2개의 전시실에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유물을 비롯하여 백제의 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삼국시대의 유물과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되었다.

건물의 2층에는 전시물의 보관을 위한 3개소의 수장고를 비롯하여 보존 과학실, 학예 연구실, 서고, 도서 자료실, 관장실, 서무과 등이 배치되었다. 또한 신축된 박물관 건물의 지하 1층에는 박물관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전기실과 기계실, 창고 등을 갖추었다. 박물관의 중앙 홀에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문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박물관과 기와나 전돌 등을 직접 탁본하여 문화재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설 기회를 제공하는 탁본 체험 공간이 배치되었고, 사회교육 활동 및 각종 세미나, 강연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100석 규모의 시청각실 등이 위치하였다.

(3) 자연사 박물관

충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은 교내 자연사 관련 표본과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의 교육·연구·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거점대학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대학 및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하여 2004년 9월에 설립되었다.

자연사박물관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대덕홀 지하 1층에 위치하였으며, 연면적 603.9m²의 규모에 전시실, 수장고, 자료실, 학예 및 행정실, 체험교육실로 구성되었다. 자연사박물관은 암석, 광물, 화석, 곤충, 어류, 해조류, 관속식물, 미생물,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 총 11개의 전문 분야에서 약 20,000여 점 이상의 표본을 소장하였고, 500여 점 이상의 표본을 전시하고 있다.

(4)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농과대학 부속 가축병원은 1989년 6월 농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1991년 3월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8년 1월 1일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건물이 수의과대학 본관 옆으로 신축·이전되었다.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은 환축 진료를 통해 학생의 수의 임상 실습 및 교수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2차 동물 진료 기관으로서 대전 및 충남 지역 내 동물 보건의 향상과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내 임상 수의사에게 새로운 보급을 담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수의 임상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갖춘 동물병원이 수의과대학 본관 건물에 인접하여 신축됨으로써 환축의 진료 업무 및 학생과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또한 산학 협동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축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나아가 지역 내 개업 수의사와 기술 정보 교환이 더욱 활발해졌다.

신축된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건물은 수의과대학 본관 옆의 부지에 위치하여 기존 캠퍼스 수의과대학 본관 건물과 연계되도록 하였고, 기존 시설물의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배려하였다. 이 동물병원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연면적이 2,178.26㎡에 이르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이다.

신축된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건물의 지상 1층에는 원무과, 약국, 동물 입원실을 비롯하여 부검실, 진료실, 임상 실험실, 심전도실, 수술실, X-ray실 등이 위치하였으며, 건물의 2층에는 교수 연구실과 강의실을 비롯하여 실험실과 자료실 등을 갖추었다. 2층 서편에 위치한 실험실과 준비실, 강의실에는 빛의 유입과 도로면으로부터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즈 슬레이유를 설치하였으며, 수의과대학과의 연결을 위한 브릿지가 2층에 설치되었다. 한편 이 건물의 지하 1층에는 각종 설비와 지하 대피소 등을 갖추었다.

그 후 2006년 3월 13일에 동물병원의 증축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07년 5월 21일에 준공되었다. 이 증축 공사로 기존의 동물병원이 수직 증축되었다. 동물병원의 증축 공사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1,002,247천 원이었으며, 그 재원은 기성회 회계였다. 동물병원 증축 공사는 강의실, 실습실, 교수 연구실 등 부족한 교육 기본 시설 확보에 목적이 있었으며, 증축된 규모는 연면적 1,080.93㎡였다. 주요 마감재를 보면, 외부는 적벽돌이 사용되었고 내부는 페인트 도장으로 시공하였다. 이와 함께 냉난방기와 엘리베이터 등의 주요 설비도 갖추었다. 증축된 동물병원 건물의 4층에는 강의실과 연구실, 실습실 등이 위치하였고 5층에는 동물 입원실을 배치하였다.

(5) 산학연교육연구관

1998년 6월에 산학연교육연구관이 준공되었다. 이 산학연교육연구관은 충남대학교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교육, 연구, 산학 협동을 위해 건립되었다. 준공된 산학연교육연구관은 약 106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한 중부권 최대 규모의 산학연 연계 교육관이었다. 이 산학연교육연구관은 1996년 3월에 착공되었으며, 2년 3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되었다. 산학연교육연구관 건물은 연면적이 12,334㎡이었으며, 지하 1층에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졌다.

산학연교육연구관은 창업 보육 시스템을 가동하여 21세기형 대학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산업체 교육 훈련 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실직자 재취업 교육을 담당하였다. 또한 각종 신소재 관련 실험실, 연구소, 테크노마트, 창업보육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기업과 학교, 연구소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였다. 산학연교육연구관은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북측동과 2층 규모의 서측동, 그리고 3층 규모의 남측동과 주 출입구가 있는 3층의 동측동 등 모두 4개의 건물 동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 4개의 건물은 중정에 면해 있으며, 중정은 경

사지라는 지형적인 특성을 살려 2층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동측동과 서측동은 계단을 통해 접근하도록 배치하였다.

산학연교육연구관의 북측동에 있는 각 실은 2개의 코어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이 북측동의 지하 1층에는 건물의 관리를 위한 전기실과 기계실 및 발전기실 등이 위치하였는데, 이 실들은 1층까지 개방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2층이 이 건물의 주 진입 층이다. 그리고 이 북측동의 2층에는 입주업체들의 개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과 신소재 관련 연구소들이 위치하였다. 또한 북측동의 3층에는 연구소와 행정실 등이 자리를 잡았으며, 4층에는 학생 실습실과 강의실을 비롯하여 교수실과 도서실 및 전산실 등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 북측동의 5층에서부터 9층까지는 입주업체들을 위한 임대 사무실이 위치하였다.

산학연교육연구관의 서측동에는 현장 교육관이 자리를 잡았다. 현장 교육관은 2층 높이로 건설되었으나 서측동이 다른 건물 동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 출입구에서 보면 3층 규모의 건물로 보인다. 현장 교육관의 북측동과 남측동으로는 브릿지가 연결되었으며, 중정으로는 계단이 연결되었다. 산학연교육연구관의 남측동은 1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며, 중복도식으로 실들이 배치되었다. 남측동의 1층에는 X-ray 분석실과 AUGER 분석실을 비롯하여 GPC실과 TEM, STEM, SEM, 암실 등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남측동의 2층에는 구조 분석실과 WEATHER D-METER실을 비롯하여 NMR실, 기계적 특성 실험실, 만능 시험기실, 세미나실 등이 자리를 잡았다. 남측동은 동측동과 브릿지로 연결되었으며, 서측동과는 홀을 통해 연결되었다. 또한 남측동의 3층에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즉 창업보육센터가 위치하였는데, 이는 서측동과 연결되었다.

‘한빛의 길’ 측에서 바라보면 산학연교육연구관의 기단부처럼 보이는 서측동은 1층 일부가 필로티로 띄워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로의 출입은 계단을 통해 2층에서 이뤄지는데, 이 출입구가 산학연 교육 연구관의 주 출입구이다. 해당 건물의 2층에는 안내실과 휴게실 그리고 전시실 등이 위치하였으며, 3층에는 회의실과 소회의실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2층과 3층에서 북측동, 남측동과 연결되어 ‘ㄷ’자 형을 이루었다.

(6) 농업과학기술센터

1998년 11월에 농업과학기술센터가 완공되었다. 1985년에 실습 농장 30,000평을 확보한 충남대학교는 1997년에 농림계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 사업비 및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같은 해에 농업과학기술센터의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였고, 1998년 11월에는 건물이 완공되어 농업과학기술센터로 문을 열었다. 농업과학기술센터는 WTO 체제에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농업 생산품 가운데 인삼과 과채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농민들에게 연구 과정을 건

학하도록 하고, 연구 성과품을 전달·교육하기 위해 신축되었다. 또한 교수와 학생의 실험, 실습용 연구 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농업과학기술센터의 이용 대상은 교수와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 내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생명공학 분야 연구원과 중부권 지역의 농민까지로 확대하였다.

신축된 농업과학기술센터 건물은 연면적이 1,364.0m²이며, 지상 2층의 규모로 된 철골조 건물이다. 농업과학기술센터 건물의 지상 1층에는 농업 정보 분석실, 생장 조정실, 농산물 가공 및 저장실, 작업실, 식물병 진단실, 병충해 진단실, 상담실, 관리실, 방풍실과 같은 각종 실험 실습실과 관리를 위한 부속 시설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농업과학기술센터 건물의 2층에는 농민 교육용 강의실을 비롯하여 육종학 실험실, 분석 실험실, 생리학 실험실, 창고 등을 갖추었다.

(7) 공동실험실습관

1993년에 공동실험실습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95년 실험 실습실 38실의 규모에 불과했던 공동실험실습관은 1997년 4월 신축 건물의 착공 이후 1998년 12월 29일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준공되었다. 공동실험실습관은 충남대학교가 보유한 주요 실험, 실습 기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실험·실습 및 교육 연구 활동의 내실화를 구현하는 동시에 기자재의 중복 구매와 분산 배치를 지양하고,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활발한 연구 지원과 기초 실험 실습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공동실험실습관은 각 교육 기관과 연구소 및 기업체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실습 기기를 개방하고, 매월 한 달씩 첨단 실습기기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서의 충남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공동실험실습관은 기기 교육, 기초과학 관련 분야의 세미나 또는 연수 등의 행사를 위해 시청각실을 대여하고 있다. 더불어 이 공동실험실습관은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 기초과학의 이론에 대한 이해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응용 가능성을 탐색하여, 논리적이고도 연역적인 미지의 현상을 예측하면서 새로운 실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반 화학실험실과 일반 생물실험실 등을 설치하고 교과과정에 맞추어 지원하고 있다.

공동실험실습관의 지하 1층에는 나노 수준의 재료 소재 관찰을 위한 투과전자현미경이 있으며, 전기실, 기계실, 기계 공작실, 공기 압축실 등의 부속실들이 위치하였다. 지상 1층에는 4대의 장방출주사전자현미경실, 이온빔전자현미경, 광전자분광기 등 특성화된 표면 관찰 장비가 설치되었고, 교육시설인 시청각실이 위치하였다. 2층에는 핵자기공명분광기실과 적외선분광기가 설치되었고, 학부 1학년생들의 기초 실험이 진행되는 일반화학 및 생물실험실이 배치되었다. 3층에는 관장실, 행정실 및 분석지원실이 있으며,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실, 전자빔증착기실, 대형프린터실,

문서 창고 등이 있다. 4층에는 공초점현미경실, 레이저미세절개분석실, 마이크로파시료전처리실, 바이오 분석실, 세포대사분석실, 수질분석실, 유도결합플라즈마분석실, 크로마토그래프실 등이 배치되었고 5층에는 광전자분광기실, 심리학과 생체신호측정실, 열분석기실, 암실, 준비실, 세미나실 등이 위치하였으며, 6층에는 비표면적분석실, 입도분석실, 종합물성분석실, X-선회절분석실 등이 자리하였다. 그리고 옥탑 층에는 공조실과 승강기 기계실 등을 갖추었다.

(8) 농업생명공학관

2001년 2월 7일에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공학관(KT&G)이 개관하였다. 본래 농업생명공학관은 WTO 및 뉴라운드 협상 등으로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의 농업에 첨단 학문인 생명 공학을 접목해 미래 첨단 농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충남대학교의 노력에 한국담배인삼공사가 50억 원을 기탁하여 농업생명공학관이 신축되었다.

농업생명공학관은 부지 면적이 8,199m²이었으며, 연면적은 5,278m²이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세워진 해당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구조로 건설되었다. 14개의 대단위 부속 실험실과 4개의 지원 시설이 위치한 농업생명공학관은 최첨단의 현대식 연구 시설을 갖추었으며, 1999년 12월 9일에 기공하여 14개월 만에 준공되었다. 신축된 농업생명공학관 건물의 지상 1층에는 수정란 이식실과 동물 생식 세포학실을 비롯하여 기획·연구 지원부와 행정실 등이 배치되었으며, 2층에는 동물 발생 공학실과 미세 조직실 그리고 동물 분자 생리학실 등이 위치하였다. 또한 이 건물의 3층에는 식물 조직 배양실과 식물 분자 육종학실 등이 자리를 잡았으며, 4층에는 환경 미생물학실과 미생물 신소재실을 비롯하여 기기 분석실, 배양실, 책임 교수실 등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전기실과 기계실 등을 갖추었다.

최첨단의 현대식 연구 시설을 갖춘 농업생명공학관은 농업 생명 공학에 대한 첨단 연구와 기술의 개발을 비롯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국내 및 국제 학술 교류, 지역사회에 농업 기술의 보급 및 농업 정보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한국담배인삼공사와의 유관 연구 사업 및 위탁 교육 사업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농업생명공학관은 동물, 식물, 미생물 생명 공학 연구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 생명 공학에 대한 전문적 연구의 요람을 맡게 되었다.

(9) 정보통신원

1978년 설립된 전자계산소는 1989년 9월 1일에 신축 청사로 이전한 뒤, 2000년 10월 27일에 증축 청사를 준공하였다. 이후 2001년 9월에는 기존 명칭이 정보통신원으로 변경되었다. 정보

통신원은 학생의 전산 교육 및 실습 지원,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 지원, 대학 행정 업무의 전산 처리 지원, 지역사회의 정보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충남대학교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교육 연구 인프라의 첨단화와 학교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10) 동물사육장

동물사육장의 이전을 위한 신축 공사는 2007년 3월 16일에 착공하였다. 관리동 및 축사와 초지 조성을 위한 138,018㎡의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연면적 10,324.75㎡의 행정 관리동 외 11개 동의 건축 공사가 이루어졌다. 동물사육장의 이전을 위한 신축 공사에 소요된 투자 금액은 총 9,856,281천 원이었으며, 그 재원은 일반 회계였다.

2008년 12월 16일에 동물 사육장이 준공되어 이전하였다. 신축 이전한 동물사육장의 위치는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산 9-1번지 일원이었다. 동물사육장은 동물 실험을 위한 최신 시설을 구축하여 실험 실습 및 연구 지원을 최적화하고, 산학연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장기 국책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양축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신축·이전하였다.

청양군으로 이전한 후, 동물사육장의 명칭이 혐오스러운 문구로 인식되어 교수연구과제 및 학생실습을 수행하는 장소의 명칭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11년 5월 동물사육장 운영위원회의에서 동물사육장을 동물자원연구센터로 개명하였다. 동물자원연구센터는 2012년에 동물자원연구센터 관련학과 학생들의 유가공학 현장 실습을 위하여 유가공 실습장에 대한 유해요소중점관리(HACCP)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교수 연구와 학생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 돈사 액비저장시설을 설치하였다.

신축된 동물사육장의 수용 시설은 다음과 같다.

〈표 74〉 동물사육장 수용 시설

연 번	건 물 명	층 수	연 면 적	비 고
1	중소가축사	지상 1층	820.11㎡	
2	계사	지상 1층	200.79㎡	
3	건사	지상 1층	147.88㎡	
4	비육육성돈사	지상 1층	313.77㎡	
5	분만자돈사	지상 1층	699.27㎡	
6	행정관리동	지하 1층, 지상 2층	1,189.26㎡	

연 번	건 물 명	층 수	연 면 적	비 고
7	유육기공실습동	지상 1층	580.89㎡	
8	관사동	지상 2층	433.55㎡	
9	우사	지상 1층	4,128.14㎡	
10	분만우사	지상 1층	498.80㎡	
11	사료창고	지상 1층	632.29㎡	
12	분뇨처리장	지상 1층	680.00㎡	

(11) 과학영재교육원

충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2003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영재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이래로 과학영재의 발굴과 육성을 담당하여 국가과학기술 혁신의 차세대 핵심 리더를 양성해왔다. 설립 시에는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연구소의 일부 공간을 공유하여 행정실을 운영하였다. 이후 2006년 6월에 자연과학대학 2호관 4층으로 이전하면서 행정실과 원장실을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용 공간을 확보하였고,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과학영재교육원 주말 교육 및 집중 교육 진행 시 분야별로 지도 교수의 소속 학과와 연계하여 담당 학과가 보유한 단과대학별 강의실 및 실습실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에서 보유한 첨단기자재 등 우수 인프라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 복지 및 기타 시설의 확충과 발전

1) 복지 시설의 확충과 발전

(1) 학생회관

① 제3학생회관

1993년 9월 9일에 제3학생회관이 개관하였다. 이 건물은 미술관과 자연과학관, 도서관에 인접하여 각 단과대학 학생들의 복지를 담당한다. 이 제3학생회관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된 건물로, 연면적은 4,199㎡이다. 제3학생회관 건물의 지하 1층에는 분식 식당이 위치하였고 지상 1층에는 카페테리아 식당, 제3교직원 식당, 우체국, 복사실, 제3매점 등이 자리하였다. 2층에는 충대 신문사와 충대 방송사가 위치하였으며, 3층에는 교지 편집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아리실 등이 배치되었다.

② 제4학생회관(상록회관)

1996년 10월 18일에 제4학생회관이 준공되었다. 이 제4학생회관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부속된 학생회관으로, 상록회관으로 불린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진입로와 운동장 사이에 위치한 제4학생회관 건물은 1,295.703m²의 대지에 연면적이 4,501.4m²에 이르며,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이다.

제4학생회관의 지상 1층에는 학생 식당과 교직원 식당을 비롯하여 주방, 복사실, 매점, 사무실, 당직실, 창고 등이 자리하였는데, 학생 식당의 남측 부분을 유리로 처리하여 학생들이 밝은 분위기에서 식사하면서 외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층에는 여학생 휴게실, 동아리실, 음악감상실, 대의원실, 학생회실 등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사지를 활용한 브릿지를 2층에 연결해 아리랑 고개 방향에서 상록회관으로의 직접 진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3층에는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을 비롯하여 세미나실, 다목적실, 준비실, 진료실 등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였고, 건물의 지하 1층에는 건물의 관리를 위한 전기실과 기계실 및 레크레이션실 등의 지원 시설을 갖추었다.

③ 의행관

충남대학교는 의과대학 학생복지와 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998년 보운캠퍼스에 의행관을 신축하였다. 의행관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규모를 가진 의과대학 학생회관으로 건축면적은 847m², 연면적은 1,919m²이다. 지하 1층에는 동아리방 1개와 창고가 자리를 잡았다. 1층에는 강의실과 열람실, 커피 전문점, 무인 복사실 등이 배치되었고 2층에는 강의실과 학생회실, 동아리방 등이 위치하였다. 1층 강의실의 면적은 193.32m²로 1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같은 층 열람실의 총면적은 344.25m²이며 열람석은 199석으로 의학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커피 전문점의 면적은 81.00m²로, 외주업체를 통하여 커피와 음료, 주전부리 등을 판매하였다. 대덕캠퍼스와 달리 학생식당과 편의점이 전무한 보운캠퍼스에서 이 공간은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간이 매점 역할을 하였다. 2층 강의실의 연면적은 189.54m²이며 1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었고 각각의 강의실은 조명과 냉난방, 방음, 환기, 채광, LAN, 시청각 시설 등을 갖추었다. 의행관 내에는 ILB, ISAC, 회전목마, ATP, 늘모두, 미술부, 기독교학생회(CMF) 등 체육, 학술, 봉사, 취미, 예술, 종교 활동 등 총 30여 개의 학생 동아리가 운영되었다. 원활한 동아리 운영을 위해 의행관 내에 각각의 동아리방이 설치되었으며, 총면적은 511.67m²로 2층에 15개 실이, 지하 1층에 1개 실이 배치되었다.

(2) 한누리회관

2007년 7월 18일 제1학생회관의 후면 부지에 한누리회관이 준공되었다. 한누리 회관의 신축 공사는 2006년 7월 1일에 착공되었으며 총공사비는 2,960,005천 원이 소요되었고, 그 재원은 기성회 회계였다.

한누리회관은 학생들의 자치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을 건립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복지 및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축되었다. 연면적 3,159.75㎡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건립된 한누리회관은 냉난방 설비와 엘리베이터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주요 마감재를 보면 외부는 외단열 마감처리가 되었으며 내부의 벽은 페인트 및 인테리어 마감, 바닥은 비닐계 타일로 시공하였다. 한누리회관의 지상 1층에는 당직실과 기계실이 배치되었고, 2층에는 동아리실, 총대의원실, 회의실 등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3층에는 홀, 소강당, 동아리실 등이 자리를 잡았으며, 4층과 5층에는 동아리실이 배치되었다.

(3) 학생생활관

‘은행사(銀杏舍)’라는 별칭을 가진 학생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숙식 생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숙사 생활을 통해 인화, 단결, 협동심은 물론 자치 정신을 배양하여 지도자적 인격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한다. 학생생활관은 1986년 2월 25일에 은행사라는 명칭(현재 3동)으로 발족하였고, 1989년 3월 1일에는 제2동이 개사하였다. 1989년 5월 10일에는 고시관이 개사하였으며, 1995년 1월 21일에는 충남대학교 학생들의 고시 준비를 위한 합숙 시설로써 청룡관이 개사하였다. 이후 2003년 7월 28일에 학생생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청룡관 건물은 연면적 1,180.3㎡에 지상 4층 규모로 준공되었다. 청룡관은 45개의 2인실을 보유하여 총 90명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세탁실과 샤워실을 비롯한 화장실, 세면실, 공동 거실, 안내실 등의 각종 편의 시설들을 갖추었다. 고시관 내의 중심 공간은 계단과 연계된 휴게실 공간으로, 삼각형의 평면 형태를 취함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유리면으로 처리되어 쾌적하고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청룡관은 7개의 실마다 공동 거실을 두어 사용자 사이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부속실로 참고 도서실도 갖추었다. 그리고 복도의 끝부분에는 원형으로 처리된 테라스가 있어 외기와의 접촉을 원활하게 하고 다양한 입면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박공으로 처리된 이 건물의 지붕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 후 제4학생생활관의 신축을 위한 공사가 2000년 10월 17일에 착공되었으며, 2002년 5월

26일에 제4학생생활관 건물이 준공되었다.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부족한 생활관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된 제4학생생활관은 청룡관 전면의 부지에 건립되었으며, 여기에 소요된 총공사비는 5,295,502천 원이었고, 재원은 일반 회계였다. 신축된 건물은 연면적이 6,811.48 m²이었으며, 지하 1층에 지상 10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이 건물의 주요 마감재를 보면 외부는 외단열 마감, 내부의 바닥은 비닐계 바닥재 마감으로 시공하였다. 또한 온돌 난방과 엘리베이터 시설을 갖추었다. 수용 인원은 총 401명이었으며, 해당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체력단련실과 과제 도서실을 비롯하여 휴게실과 기계실이 위치하였고 지상 1층에서 10층까지는 사생실을 배치하였다.

제5학생생활관의 신축 공사는 2002년 10월 1일에 착공하여 2005년 6월 20일에 준공되었다. 이 신축 공사의 총공사비로 7,254,755천 원이 소요되었고, 그 재원은 일반 회계였다. 신축된 제5학생생활관은 연면적이 7,535.8m²에 이르며, 지하 1층에 지상 8층 그리고 옥탑 2층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이 건물의 주요 마감재를 살펴보면 외부는 드라이비트가 사용되었고 내부의 벽은 본타일 및 벽지, 바닥은 비닐계 바닥재로 시공하였다. 그리고 제5학생생활관은 주요 설비로 샤워실, 엘리베이터, 방송 장비, LAN 등을 갖추었다. 수용 인원은 2인실이 404명, 3인실이 48명 등 총 452명이었으며, 대덕캠퍼스의 학생 기숙사 단지 내에 신축되었다. 건물의 지하 1층에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지상 1층에는 관리실과 사생실이 배치되었다. 학생 생활관의 2층에서부터 8층까지는 사생실이 위치했으며, 옥탑 2층에는 승강기 기계실을 갖추었다.

한편 학부모의 비용 부담 경감 및 부족한 생활관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덕캠퍼스의 학생기숙사 단지 내에 학생 생활관 임대형 민간 투자시설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5월 2일에 착공하여 2009년 1월 20일에 준공되었으며, 수용 인원은 총 2,582명이었다. 연면적은 48,389m²에 이르며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 3개 동과 지하 1층, 지상 16층의 타워동 2개 동으로 구성되었다. 건물마다 독서실을 비롯하여 회의실과 세미나실 등을 갖추었고 타워동에는 체력 단련장과 PC 실습실이 배치되었으며, 문구점과 편의점을 비롯하여 세탁실, 분식점, 16층 스카이라운지 등의 각종 편의 시설이 마련되었다. 이 학생 생활관의 주요 마감재를 보면 외부는 벽돌 및 드라이비트가 사용되었고 내부는 무늬코트 및 벽지로 시공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의 주요 설비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4) 임해수련원

1999년 6월 17일에 임해수련원이 준공되었고, 같은 해 6월 19일 ‘충남대학교 임해수련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하였다. 충남대학교 임해수련원은 1996년에 부지를 구입한 바 있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대천 해수욕장 내(충청남도 보령시 신축동 2056-2번지)에 자리 잡은 임해수련원

<표 75> 승강기 설치(2003~2010)

년 도	건 물 명	대 수	투자금액(천 원)	비 고
2003	이학 2호관	1	82,885	
2004	공학 2호관	1	89,771	
2005	인문관, 약학관	2	27,0122	
2006	동물병원, 도서관	2	279,842	
2007	농학 1호관, 경상관	2	195,210	
2008	음악 1호관	2	125,044	
2009	공학 1호관, 사회과학관, 농학 2호관, 대학본부, 간호학과 교사동	5	941,023	
2010	기초 1호관, 디자인관	2	197,010	
합 계		17	2,180,907	

2) 기타 시설의 확충과 발전

(1) 교시탑

충남대학교를 상징하는 교시탑이 1995년에 세워졌다. 본래 교시탑의 자리에는 캠퍼스 이전을 기념하는 시계탑이 세워져 있었으나 개교 43주년과 국책대학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에서 이 시계탑을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학교 마크를 부조하고 교시탑 공원을 조성하였다. 교시탑은 3면 탑신 20.2m의 높이로 설치되었는데, 우뚝 솟은 3개의 기둥은 충남대학교의 교시인 창의, 개발, 봉사의 정신을 상징한다. 교시탑과 함께 교시탑 공원이 조성되었다. 교시탑 공원은 1994년 7월에 공원 조성안을 현상 공모하여 선정된 우수 작품을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해당 공원의 부지 면적은 4,300㎡이며, 녹지를 조성하고 벤치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국제문화회관은 1997년 3월 7일에 기공식을 가진 후 시공한 지 4년여 만인 2000년 7월에 완공되었다. 그 후 국제문화회관은 2002년 1월에 정심화국제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제문화회관의 건립은 1990년에 고 이복순 여사가 평생 모은 부동산을 충남대학교에 기탁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원래 ‘국제문화회관’의 명칭은 고 이복순 여사의 법명을 딴 ‘정심화국제회관(正心華國際會館)’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완공된 현재의 크기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1992년에 건물을 착공하였다. 공사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축 공사가 잠시 중지되었으나, 1995년에 고 이복순 여사가 기탁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70여억 원의 예산을 충남대학교 자체에서 부담할 것을 전제로 대규모의 국제문화회관 건립을 계획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하여 1999년에는 450석 규모를 갖춘 백마홀과 180석 규모를 지닌 대덕홀이 완공되었으며, 2000년 7월에 이르러 1,817석 규모의 정심화홀과 각종 부대시설이 완공되었다.

국제문화회관은 지방 유일의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사회의 예술을 주도함과 동시에 학내외 교육 문화행사를 위한 전당으로 활용할 목적에서 건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문화회관은 충남대학교가 세계화를 향한 교육, 문화, 예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래지향적이고 상징적인 건물이며, 첨단인 동시 통역시설을 비롯하여 움직이는 다층 무대와 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는 완벽한 국제적 문화센터이다. 국제문화회관은 대지 면적 1,291,016㎡에 연면적이 7,730.05㎡인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며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어졌다. 이 국제문화회관은 정심화홀과 백마홀 그리고 대덕홀로 구성되었으며 총 3개의 동으로 나뉜다.

국제문화회관의 1층에는 정심화홀과 백마홀, 대덕홀이 자리를 잡았고, 2층과 3층에는 정심화홀이 위치하였다. 또한 지하 1층에는 기계 전기실과 자연사박물관 등의 관리 시설을 갖추었으며, 건물의 외부에는 주광장인 놀이마당과 분수, 화단 등을 조성하여 국제문화회관의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충남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도 다양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국제문화회관의 건립을 기념하는 ‘문화창조의 빛’은 예술대학 남철 교수의 기념 조형물로, 평화·정의·진리의 실현을 뜻하는 동시에 충남대학교의 교시인 창의·개발·봉사의 정신을 상징한다.

국제문화회관의 대강당은 17m×17m 크기의 무대와 2층 고정 계단식 좌석으로 된 1,817석의 좌석을 갖추어 공연, 음악회, 대규모 행사에 활용되었다. 또한 오케스트라 리프트와 회전 무대, 음향 반사판을 비롯하여 follow spot light, suspension system, placard batten, 조명 및 음향 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물을 갖추었으며, 분장실과 준비실 그리고 덧마루와 피아노 등을 통해 대강당의 면모를 한층 더하였다. 국제문화회관의 백마홀은 학술 발표와 세미나는 물론 공연과 음악회 등 용도로 주로 활용되었다. 백마홀은 총 450석의 계단식 좌석을 갖추었으며, 대강당과 마찬가지로 백마홀에도 suspension system과 placard batten, 조명 및 음향 시설 등이 마련되었고 각종 행사를 위한 VTR, 프로젝트, 분장실, 덧마루, 피아노 등이 구비되었다. 국제문화회관의 대덕홀은 학술 발표와 세미나 등에 주로 활용되었다. 대덕홀은 회의실 및 세미나실, 통역실 등의 부대시설과 플랜카드 걸이대, 조명 및 음향시설, VTR, 프로젝트 등을 갖추었으며, 이동식의 180석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다.

신축된 국제문화회관은 충남대학교의 국제 문화 행사, 각종 세미나 등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

함으로써 충남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각종 문화 행사 개최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민의 문화, 여가 생활의 창달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의 개최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과학 문화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공헌하였다.

(3) 국제교류관 및 국제언어교육센터

2005년 11월 21일에 국제교류관 및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신축 공사가 완공되었다. 공사는 2004년 5월 8일에 착공하였으며 총공사비로 6,295,969천 원이 소요되었다. 그 재원은 발전기금(보령제약) 1,000,000천 원, 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 3,124,000천 원, 기성회 회계 2,171,969천 원이었다. 국제교류관 및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신축 목적은 국제 교류 거점 시설의 건립을 통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집중하고 대학 및 지역사회의 국제 경쟁력을 증대하는 데 있었다. 기존의 외국어교육원은 자연과학대학의 실험실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된 건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어 능력이 취업률을 결정하고, 대학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으므로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각종 외국어 특강 및 외국어 연수 등의 확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제교류관 및 국제언어교육센터가 신축되었다.

국제교류관 및 국제언어교육센터는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의 남측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신축되었다. 신축된 국제교류관 및 국제언어교육센터는 연면적이 5,167.16㎡에 이르며, 지하 1층에 지상 5층의 규모를 지닌 건물로 건립되었다. 신축된 건물의 주요 마감재를 살펴보면 외부는 알루미늄 판넬과 커튼월 유리로 시공하였으며 내부의 벽은 페인트 마감과 인테리어 마감으로, 바닥은 비닐 타일로 시공하였다. 그리고 이 신축 건물은 주요 설비로 냉난방 시설과 엘리베이터 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신축된 국제교류관 및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지상 1층에는 50주년 기념홀, 기부자 메모리얼 프라자, 세미나실, 휴게실, 접수실 등이 배치되었고, 2층에는 행정실, 세미나실, 인터넷 검색실, 유학 자료실 등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3층에는 교수실, 강의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위치하였고, 4층과 5층에는 강의실이 자리하였다. 또한 지하 1층에는 관리실, 당직실,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등을 갖추었다.

(4) 골프교육실습장

1998년 11월 3일에 골프교육실습장이 준공·개관하였다. 대지 면적이 1,800㎡에 이르는 이 골프교육실습장은 학내 예비군 훈련과 학생 군사 훈련 장소로 사용되었던 사격장 조성 부지에 세워졌다. 충남대학교의 자연과학대학 체육교육과와 사회체육과는 교과과정상 골프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설 골프장을 임대하여 골프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들의 시간적인 손실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아쉽게 여기던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 교수가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 개최 시에 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철거한 올림픽 골프장 철탑을 기증 받아 학내에 보관하던 중, 1997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골프 실습장을 건설하게 되어 교수와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총 24타석 규모를 갖추고 있는 이 골프교육실습장은 연면적이 213㎡이며,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의 건물이다. 이 골프교육실습장의 1층과 2층에는 24개의 타석대가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샤워실과 탈의실을 비롯하여 휴게실, 사무실, 숙직실 등의 부속 시설을 갖추었다. 골프교육실습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체육교육과와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의 교과 운영 수업과 선수 훈련 및 연습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 증진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 체육의 진흥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골프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5) 약초원 관리동

1993년 9월 1일에 약초원의 부지가 야외 음악당 남쪽으로 확정되었고 1993년 10월 1일에 약학대학 부속 약초원이 발족하였다. 그 후 2005년 8월 18일에 약초원 관리동의 신축 공사가 착공되었고 2005년 11월 22일에 준공되었다. 공사에 총 165,818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신축된 약초원 관리동은 노천극장 옆의 약초원에 자리하고 있다. 약학대학 약초원은 약용 식물의 재배와 표본 작성을 통해 약용 식물을 연구함으로써 약학 교육의 수준을 향상하고, 나아가 약학의 발전 및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약초원 관리동의 설립 취지에는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학습장으로써의 역할도 포함된다.

신축된 관리동은 연면적 160㎡에 지상 2층의 규모로 된 건물로, 냉난방 설비를 갖추었다. 약초원 관리동의 주요 마감재를 보면 외부에는 적벽돌과 알루미늄 복층 유리가 사용되었고 내부는 몰탈위 수성 페인트로 시공되었다. 신축된 약초원 관리동의 지상 1층에는 원장실을 비롯하여 사무실이 위치하였고, 2층에는 표본실이 자리하였다.

(6) 영동학술림 관리사

2006년 5월 26일에 영동학술림 관리사가 준공되었다.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산 23-1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영동학술림 관리사는 식물 유전자원의 시험·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학생 교육 및 실습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관리사 신축 공사는 2005년 7월 6일에 착공하였으며, 소요된 총공사비는 1,123,743천 원이었다. 영동학술림 관리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냉난방 시설을 갖추었다. 연면적은 780.49㎡에 이르며, 건물의 주요 마감재를 보면 외부에는 변색 치장 벽돌이 사용되었으며 내부는 수성 페인트로 시공하였다. 영동학술림 관리사의 지하 1층은 보일러실이며, 지상 1층에는 연구실과 식당이 위치하였고 2층에는 숙소와 다목적실이 있다.

(7) 학군단 종합 강의동

학군단 종합 강의동의 신축 공사는 2007년 10월 8일에 시작되어 2008년 10월 7일에 완료되었다. 신축된 종합 강의동 건물은 연면적이 706.08㎡에 이르며, 지상 3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이 신축 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는 579,486천 원이었다. 1984년에 경량 철골조 조립식으로 준공된 학생군사교육단 강의실은 23년간 사용하다 보니 시설이 노후화되어 훼손이 심하였다. 이와 더불어 후보생 인원 증가로 인해 종합 강의동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존의 학군단 건물 서쪽 부지에 학군단 종합강의동이 신축되었다.

신축된 학군단 종합 강의동의 주요 마감재를 보면 외부는 외단열 마감 처리를 하였고 내부의 벽은 수성 페인트, 인테리어 마감으로, 바닥은 비닐 타일로 시공하였다. 또한 이 종합 강의동은 냉난방 시설을 갖추었다. 신축된 학군단 종합 강의동의 지상 1층에는 필로티, 계단실 등이 배치되었고, 2층에는 소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이 자리하였다. 그리고 이 종합 강의동의 3층에는 종합 강의실이 위치하였다.

(8) 인조 잔디 축구장 부대시설

2008년 6월 10일에 인조 잔디 축구장이 준공되었다. 충남대학교의 북부 운동장에 조성된 인조 잔디 축구장은 유성구에서 조성 공사를 맡았고, 충남대학교에서는 부대시설과 함께 향후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업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6억 5,333만 원, 시비 6,426만 원, 구비 6,426만 원 등 7억 8,186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충남대학교는 조명탑, 울타리, 스프링 쿨러, 부대 공사 등에 약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충남대학교에 조성된 인조 잔디 축구장은 가로 105m, 세로 70m의 국제 규격을 갖춘 축구장으로 조명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조 잔디 축구장은 충남대학교 학생들의 수업 및 학교 행사,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제외하고는 유성 구민에게 개방하며,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주말 리그 및 유소년 클럽 리그, 유성구 주관 체육행사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인조 잔디 축구장은 유소년 축구의 활성화는 물론 유성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9) 대덕특구 창업지원센터

대덕특구 창업지원센터의 신축 목적은 대덕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벤처 기업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업 지원 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충남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에 대한 학내 창업과 기술 이전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벤처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2010년 12월 10일에 대덕특구 창업지원센터가 준공되었다. 대덕특구 창업지원센터의 신축 공사는 2008년 5월 21일에 착공되었는데,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58번지(대덕테크노밸리 내)에 신축되었다. 이 신축 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는 3,739,350천 원이었으며, 그 재원은 기성회회계 1,718,653천 원, 일반 회계 1,825,998천 원, 산학연협력단 194,699천 원이었다.

신축된 대덕특구 창업지원센터의 연면적은 2,514.72m²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 대덕특구 창업지원센터 건물의 주요 마감재를 보면 외부는 화강석이 사용되었으며 내부의 벽은 수성페인트, 바닥은 비닐 타일로 시공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은 주요 설비로 냉난방 시설을 갖추었다. 대덕특구 창업지원센터 건물의 지상 1층에는 창업 지원실과 안내실 등이 위치하였고, 지하 1층에는 물품 창고,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등이 위치하였다.



제 5 절 행정·재무

1. 중흥기

1) 학사조직의 확대와 재정 규모의 증대

충남대학교는 교육 및 연구 역량 증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사조직의

신설 및 조정이 발생하였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학사조직의 개편 과정을 살피는 것은 곧 충남대학교의 발전 과정을 반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를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989년 3월 제11대 오덕균 총장이 취임하였고, 1989년 6월 12일 농과대학 부속 가축병원이 부속 동물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동년 7월 23일 기획실을 총장 직속의 비법정기구로 신설하였다. 1992년 3월 기획연구실이 법정기구로 신설되고, 기획연구실 산하에 기획담당관실과 연구지원담당관실을 설치하고, 비법정기구로 운영되던 기획실은 기획담당관실에 통합되었다. 1994년 3월에는 단과대 및 대학원 교무·학생과장직 통합운영, 소규모대학 서무과장제 개선, 전문대학원 행정조직 개편, 1~2개학과로 구성된 대학의 학과장은 학장이 겸직, 학장의 비법정연구소장 겸직, 대학상담조교제도 개선 등 6개 행정 개선을 4월 말까지 한정 시행하기로 학무회의에서 결정하였다. 1999년 3월 사회교육원 설립인가(교육부 제244호)와 동월 16일 재단법인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재단 설립(대전광역시 교육청 허가 제6-39호) 및 동월 24일 교육대학원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였다.

2001년 3월 제14대 이광진 총장이 취임하였다. 2001년 9월 1일 학생생활연구소를 폐지하였고 교무처를 교무연구처로, 학생처를 학생지원처로, 기획연구실을 기획정보처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교무연구처에 교무과, 학사지원과, 연구지원과를 배치하고, 학생지원처에 학생지원과, 입학취업과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기획정보처에 기획정보과와 홍보협력과를 배치하고, 사무국에 총무과, 경리과, 시설환경과를 배치하였다. 2002년 8월에는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터를 개소하였고, 9월 국제사업단과 신소재연구소를 통합하여 나노·신소재공학원으로 개편하였다. 2003년 7월 28일 학생기숙사를 학생생활관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2003년 10월 2일 과학영재교육원이 신설되었고, 2003년 10월 20일 생물공학연구소, 암공동연구소, 의공학연구소, 뇌과학연구소, 약학대학 의약품개발연구소, 의과대학 의학연구소·간호과학연구소, 수의과대학 동물의학연구소를 통합한 생명과학연구원을 신설하였다. 2003년 11월 25일 교직부를 교양·교직부로, 사회교육원을 평생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2004년 2월 10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었고, 2004년 2월 26일 백마교양교육관이 개관되었다. 2004년 2월 17일 인터넷침해대응기술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산업대학원 15개 전공을 15개 학과로 변경하였으며, 국제교류부를 국제교류원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2004년 4월 26일에는 충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을, 같은 해 12월 2일에는 산학연지원단을 신설하였다. 2005년 3월 2일 15대 양현수 총장이 취임하였고, 2005년 3월 30일 충남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를 유치하였다. 2005년 6월 15일 정책홍보실을 설립하였고, 2005년 6월 17일 대덕밸리바이오산업인력양성사업단이 누리사업에 선정되었다. 2005년 8월 28일 제5학생생활관(A, B동)을 개사하였고, 2005

년 9월 29일 누리사업에 선정되었다. 2005년 10월 10일 양자물성제어연구소, 여론조사연구소, 중소기업정책연구소, 인문대학부설 통역번역원, 한국어교육원, 언어임상연구원을 설립하였다. 2005년 12월 20일 외국어교육원을 언어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2006년 1월 17일 취업지원센터를 혁신인력개발원으로 개편하고, 2006년 3월 1일 학칙과 8개 대학원 학칙을 통합한 단일학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충남대학교 교무규정 등 교무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학사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지역개발연구소를 공공문제연구소로, 전자파기술연구소를 전자·전기공학연구소로, 환경문제연구소를 환경·생물시스템연구소로 명칭 변경하였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수리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나노공학연구소, 바이오응용화학연구소, 건설방재연구소, 건축연구소, 식물유전체연구소, 과학수사연구소, 국제기술협력연구소, 대덕특허정책연구소를 신설하였다. 같은 해 3월 3일 국제교류관 및 언어교육원을 개관하였고, 5월 1일 기타 행정조직(부학장, 부원장)을 설치·운영하였다. 5월 18일 메카트로닉스인력양성사업단이 누리사업에 선정되었고, 6월 28일 인문대학 부설 언어임상 연구원을 언어치료센터로 명칭 변경하였다. 8월 22일 농업생명과학대학 영동학술림을 개관하였고, 12월 7일 국방연구소를 신설하고, 소프트웨어연구센터를 소프트웨어연구소로 명칭 변경하였다.

2007년 3월 1일 의예과를 폐지(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모집중단)하였다. 5월 2일 대학 학술정보 공동활용 기여도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었고, 5월 14일 공과대학 공학교육센터를 공학교육혁신센터로 명칭 변경하였다. 정치연구소, 역학연구소, 인문학연구원, 장애학생지원센터, 공자학원을 신설하였고, 기획정보과를 기획과로 명칭 변경하였다. 5월 21일 충남대학교가 e러닝지원센터로 선정(대전·충남권역)되었고, 7월 19일 김지환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되었다. 2008년 2월 4일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100명 정원)으로 선정되었다. 혁신인력개발원을 인력개발원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학생처 내에 취업팀을 신설하였다. 정책홍보실을 비서홍보실로 명칭 변경하였고, 산학연지원단을 연구지원본부로 명칭 변경하고 그 속에 연구지원과와 산학연협력팀을 두었다. 아울러 재정총괄본부를 신설하고 그 속에 재정총괄팀을, 국제교류원을 국제교류본부로 명칭 변경 후 그 속에 국제교류팀을, 입학관리본부를 신설하고 그 속에 입학관리과와 입시전문위원실을 두었다. 생활과학대학 내에 여성인력종합교육센터를 신설하였다. 경기지도자연수원을 자연대학소속에서 새로 신설되는 사범대학소속으로 옮겼고, 법률상담소를 법과대학에서 새로 신설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으로 옮겼다. 2009년 9월 30일 신약전문대학원 및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의 설립이 승인되었고, 2009년 12월 7일 연구실 안전관리센터가 신설되었다.

2010년 2월 26일 교수학습지원센터, 정보통신원 이러닝센터, 교양교직부(백마교양동 관련 강의지원

업무)를 대학교육개발원으로 통합 신설하였다. 같은 날 교양교직부를 사범대학 부속기관교직부로, 연구지원본부(연구지원과, 산학협력팀)를 연구지원본부(연구지원과, 산학협력팀, 산학연감사팀)로, 공과대학행정실을 공과대학·분석과학기술대학원·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행정실로 명칭 변경하였다. 11월 2일 국제수자원연구소가 설립되었다. 2011년 5월 31일 연구지원본부의 연구지원과·산학협력팀과 산학연감사팀을 연구지원과·산학협력팀과 산학선진화팀으로 변경하였다. 8월 15일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교통대학) 고등교육연구원이 발표한 ‘2011 세계 500대 대학’ 순위에서 401-500위권 대학에 포함되었고, 9월 14일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가, 11월 25일 청소년창의인재센터가 신설되었다.

2) 교수협의회

1989년은 충남대학교 역사상 직선제 총장선거과정이 두 번째로 실시되었던 해였다. 당시 교수협의회의 역할이 중대하였다.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선출규정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 총장 직선 선거를 주관하였다. 즉 1989년 총장 직선제 이후 교수협의회의 활동은 그만큼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도서, 실험기구 등을 확충하여 내실 있는 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제안(민동근 교수, 철학과, 회보 제2호)과 직선 총장에게 바라는 제안(김원선 교수, 경제학과·박승희 교수, 농화학과, 회보 제2호)도 있었다.

FY93년 예산 편성에 대한 6개항의 요구를 이사회에서 제기(1992)하기도 하였으며, 1993년에는 ‘대학을 걱정하는 교수모임’(대표: 김문규 교수, 농화학과)을 열기도 하였고,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단이 교육부장관을 면담하여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학내 현안에 대해 총장에게 직접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며(1994), 대학 발전을 위해 본부와 교수협의회 회장단과의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1995). 1999년에는 BK21 사업을 맹목적이고, 비교육적·반민주적인 대학통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저지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 발전계획(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000).

초대 교수협의회(1971년 9월 1일)가 출범한 이래, 2006년에는 교수회로 학칙기구화 되기에 이르렀다. 즉 충남대학교 학칙 제8조에 근거하여 전임교수로 구성된 교수회를 학칙기구화한 것이다. 2006년 10월 19일 학무회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1일 충남대학교 교수회규정(충남대학교규정 제1307호)이 공포되어, 교수회를 구성하였다. 교수회는 단과대학 교수회와 전교 교수회로 구분되는데, 그 대의기구로서 교수평의회를 두었다. 전교 교수회는 충남대학교 소속 전임교수로 구성

되는데, 그 기능은 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교수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 교수회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④ 교수회 예산 및 결산, ⑤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학칙의 개·폐, ⑦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⑧ 교육 및 학사운영의 기본방침, ⑨ 대학의 구조 조정과 통합에 관한 사항, ⑩ 교원인사 및 학술연구의 기본방침, ⑪ 예산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전교 교수평의회는 대학의 발전과 운영 및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구체적으로는 교수회의 심의 사항 가운데 ① 및 ③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 전교 교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된 학칙에 근거하여 작성된 교수회 규정이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함에 따라 같은 해 2월 28일 19대 교수협의회(회장 서정복 교수)가 종료되었고, 3월 1일 초대 교수회 회장 선거를 통해 의과대학 김원식 교수가 선출되었다. 3월 28일 초대 교수회(회장 김원식 교수) 출범식 및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5월 22일 「국립대법인화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6월 2일 국립대법인화 저지 범국민대회 서울역집회 및 가두행진에 동참하였다. 9월 27일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14일 제16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선거를 통하여 송용호 후보를 선출하였다.

2008년 3월 1일 교수회 사무실을 경상대 건물 1층(E6동 101호실)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4월 8일 제1차 전교교수평의회를 개최하였다. 4월 15일에는 2008학년도 전교교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법인화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8월 28일 제2차 전교교수평의회에서는 교수회장 선출규정(안)을 제정하고, 각 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10월 1일 충청지역국립대학교 교수 연합회 창립총회를 충북대학교에서 갖고, 초대회장으로 충남대학교 김원식 회장을 선출하였다. 11월 10일 제1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수회장 선출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12월 2일 제2대 교수회장 선거를 통해 사회과학대학 김필동 교수가 선출되었다. 2009년 3월 1일 제2대 교수회(회장 김필동 교수)가 출범되었는데, 3월 25일에는 2009학년도 전교교수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5월 1일 교수회규정 제2차 개정안이 공포(발효)되었다. 5월 7일 제2차 전교 교수평의회 및 전교교수회 임시총회에서는 본부 업무보고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와 함께 교수회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0년 6월 16일 제4차 전교 교수평의회를 개최하여 총장 중간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본부의 법인화 추진 계획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2대 교수회는 2010년 12월 1일 제3대 교수회장 선거를 통해 인문대학 김용완 교수를 선출하였다.

2011년 3월 1일 제3대 교수회(회장 김용완 교수)가 출범하였는데, 같은 해 4월 18일 개최된 전교 교수평의회에서는 교수회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고, 학내 현안인 충남대학교, 공

주대학교, 공주교대 통합 건에 대해 교수회 상임운영위원회가 본부와 협의하도록 위임을 결의하였다. 2011년 5월 26일 전교 교수회 임시총회에서는 3개 대학 통합 추진 건과 관련하여 총장에게 통합 추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의결하였고, 통합관련 교수회 주관 온라인 의견 조사에 중복 투표한 보직 교수의 처리 방안으로 총장에게 해당자의 해임을 건의하고 해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제17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 위원 수를 35인(여성위원 7인 이상, 교수회 임원 6인 포함)으로 하고,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두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의해 11월 15일 제17대 총장임용후보자로 정상철 교수를 선출하였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추진된 국립대학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강행 반대 추가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2011년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6명의 교수가 이에 참여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 3일 서울 백범기념관 및 마로니에 공원에서 성과급적 연봉제를 반대하기 위한 전국국공립대학 교수궐기대회에 참가하였다.

3) 행정직제의 변화와 현황

충남대학교는 급변하는 대학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직제를 개편하였다. 2004년에는 교무연구처의 연구지원과를 폐지하고, 산학연지원단을 지원시설로 신설(산학협력과를 하부조직으로 설치)하였다. 2005년에는 교무연구처를 교무처로, 학생지원처를 학생처로, 기획정보처를 기획처로 처 단위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 단위 조직의 신설·폐지 및 업무조정으로 산학연지원단에 학술진흥과를 신설(현재 1개과에서 2개과로 확대개편)하고, 홍보협력과를 폐지하였다. 부속 시설로 정책홍보실을 신설하고, 과 하부조직을 팀(Team)단위로 운영하였다. 2006년에는 수업의 내실화와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학생처 소속 취업지원센터를 대학본부 부속 시설 형태의 혁신인력개발원으로 개편하고, 입학취업과 소속에서 분리·독립하였으며, 입학취업과를 입학관리과로 명칭변경하였다.

2008년 학생처에 입학부처장, 기획처에 평가과, 본부에 정책기획단을 신설하였다. 조직개혁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외협력추진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우리충대발전자문위원회(비학칙기구)를 신설하였다. 기능확대의 측면에서 산학연지원단을 1개과(산학연지원과) 체제로 운영하였고, 정책홍보실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홍보 기능과 비서 기능을 통합하였다. 이 밖에도 대학원 업무를 대학본부로 이관하였다. 2009년 재정총괄본부 재정총괄팀(재정기획 총괄(발전기금 등)), 학생처 취업팀(혁신인력개발원 취업관련 기능 흡수)을 통합 신설하였고, 혁신인력개발원은 인력개발원으로 기능을 재편하였다. 산학연지원단(산학연지원과)을 연구지원본부(연구지원과, 산학연협력팀)로 하여 산학연협력사업을

강화하였고, 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팀의 기능을 확대하여 국제화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종합민원서비스센터를 관리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를 구현(학생증 및 장학증서 발급, 주차민원 기능 통합 관리)하였고, 비서홍보실 및 정책기획단을 총장 직속으로 배치하였다. 이 밖에도 신설 대학(원)을 위한 행정실을 재배치(10개 행정실 유지)하였고, 전문대학원에 부원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복수 부학(원)장제를 도입하였다.

4) 재정 규모의 변화

대학의 재정 규모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의 발전 속도와 성장 추이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중요하다. 이러한 통계는 예산·결산서를 바탕으로 얻어질 수 있는데, 매년 발간되는 『충남대학교 통계연보』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전체적인 재정 규모의 변화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76〉 연도별 재정 규모의 변천(1989~2011)

(단위: 천 원, %)

연도	구분	일반회계			기성회계			합계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89		17,478,520	57.1	22.5	13,121,907	42.9	13.4	30,600,427	18.5
1990		20,429,919	59.7	16.9	13,868,236	40.3	5.7	34,298,155	12.1
1991		23,954,527	60.6	17.3	15,797,758	39.4	13.9	39,752,285	15.9
1992		29,343,393	62.2	22.5	17,804,604	37.8	12.7	47,147,997	18.6
1993		31,886,732	58.6	8.7	22,534,263	41.4	26.6	54,420,995	15.4
1994		37,904,676	58.4	18.9	26,950,473	41.6	19.6	64,855,149	19.2
1995		47,647,963	60.8	25.7	30,725,214	39.2	14.0	78,373,177	20.8
1996		52,078,265	57.7	9.3	38,115,612	42.3	24.1	90,193,877	15.1
1997		59,413,481	56.8	14.1	45,161,176	43.2	18.5	104,574,657	15.9
1998		60,022,775	56.4	1.0	46,494,218	43.6	3.0	106,516,993	1.9
1999		52,514,979	53.9	-12.5	44,875,376	46.1	-3.5	97,390,355	-8.6
2000		56,909,453	55.3	8.4	45,942,112	44.7	2.4	102,851,565	5.6
2001		61,936,501	55.9	8.8	48,956,996	44.1	6.6	110,893,497	7.8
2002		69,854,953	59.3	-4.0	47,860,197	40.7	9.9	117,715,150	6.3
2003		80,165,746	59.7	14.8	54,225,989	40.3	13.3	134,391,735	14.2
2004		79,328,681	56.8	-1.0	60,247,657	43.2	11.1	139,576,338	3.9

연도	구분	일반회계			기성회계			합계	
		금 액	구성비	증가율	금 액	구성비	증가율	금 액	증가율
2005		84,812,343	54.3	6.9	71,410,248	45.7	18.5	156,222,591	11.9
2006		91,720,365	55.0	8.1	75,018,887	45.0	5.1	166,739,252	6.7
2007		93,315,277	52.9	1.7	83,194,052	47.1	10.9	176,509,329	5.9
2008		98,442,843	50.3	5.5	97,157,272	49.7	16.8	195,600,115	10.8
2009		108,351,391	49.0	10.1	112,753,248	51.0	16.1	221,104,639	13.0
2010		103,326,035	46.1	-4.6	120,664,569	53.9	7.0	223,990,604	1.6
2011		111,020,719	50.0	7.4	110,958,611	50.0	-8.0	221,979,330	-0.9
계		1,360,838,818	54.0	-	1,132,880,064	46.0	-	2,493,718,882	-

이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 규모는 1989년 306억 42만 7,000원에서 2001년에는 1,108억 9,349만 7,000원으로 3.5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1989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1.64%이다. 둘째, 1981년부터 1988년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액 증가율과 기성회계 세출액의 증가율이 큰 차이를 나타낸 것과 대조적으로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세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1.59%, 11.97%로서 비슷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세출액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성비에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89년도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구성비가 각각 57.1%, 42.9%였고 2001년도에는 55.9%, 44.1%였다. 넷째, 2002년 1,177억 원에서 2010년에는 2,239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재정 규모가 커졌으나, 최근에는 총 재정 규모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2011년과 2012년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다섯째, 국고에서 지원되는 일반회계와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성회계의 구성비가 2002년 59.3%: 40.7%에서 2010년 46.1%: 53.9%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감소함으로써 그만큼 학생부담 부분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대학재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성회비의 경우 201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등록금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기성회비에 대한 정부 당국과 부담의 주체인 학생들의 인하 압력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5) 산학협력단 회계(2004~2011)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4년 1월 정관을 제정하고 같은 해 2월 법원에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관리 및 산학협력활동의 총괄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초기의 재정 규모에

있어서도 재정수입의 다각화 및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산학협력단은 대학회계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대학이 수행하는 외부연구비 및 보유무형자산(지식재산, 교육인프라)을 활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연구 및 산학협력, 교육에 투입하였다.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학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산학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학협력단의 재정수입 다각화 및 성장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통해 우리대학교의 산학협력활성화 및 재정 규모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수익구조는 외부로부터 지원되는 연구비 수입과 연구성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학협력단회계의 주요한 수입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 국고보조금 수익: 정부재정지원사업(R&D)사업 지원금
- ❖ 산학협력연구 수익: 민간기업과의 산학공동연구비
- ❖ 기타지원금 수익: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금
- ❖ 기술이전 수익: 대학의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및 이전을 통한 수익
- ❖ 교육운영 수익: 산업체 교육 및 교육운영사업 지원금
- ❖ 기타산학협력 수익: 기타 산학협력활동을 통한 수익

〈표 77〉 산학협력단 수익구조변화 추이(2004~2011)

(단위: 천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고보조금 수익	18,248,000	32,654,353	31,753,732	54,185,080	63,376,456	70,548,505	73,389,959	75,866,185
산학협력 연구수익	3,368,000	7,063,364	1,910,800	3,974,624	51,489,85	4,516,415	4,607,907	4,952,011
기타지원금 수익	347,000	0	836,441	1,307,880	920,369	3,620,656	1,469,541	1,371,353
기술이전 수익	0	139,688	78,081	505,504	193,236	648,677	674,872	415,951
교육운영 수익	0	0	0	8,450	0	0	198,588	233,031
기타산학 협력수익	0	0	19,129	77,651	640	0	1,228,083	1,479,749
합계	21,963,000	39,857,405	34,579,054	59,981,538	69,639,046	79,334,253	80,340,867	82,838,531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4년 200여억 원 규모에서 2005년 300여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06년부터 수익의 다각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7년 600여억 원대로 성장하였고 2007년을 기점으로 평균 9%대의 수익성장을 달성하여 840여억 원의 재정 규모를 달성하였다. 2010년부터는 전분야에 이르는 수익구현 모델을 추진하여 2004년 설립당시 재정 규모와 대비하여 380%의 성장세를 이루어 내면서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기술이전수익, 교육운영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의 다양한 재정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는 산학협력성장의 기반을 확보하였다.

6) 대학발전기금의 조성

(1) 대학발전기금의 조성 배경과 필요성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1990년 2월부터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대학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구성원과 뜻 있는 지역인사들의 참여를 통해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전개하였다.

대학발전기금조성사업은 21세기 충남대학교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1990년 2월 9일에 제1차 대전지역 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충남대학교의 대학발전기금조성사업은 대덕캠퍼스 이전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연구시설과 고급인력이 여전히 부족하여 질적 성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립대학의 재정구조인 국가보조 및 기성회비로는 학교발전을 이룩하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실질적 성장을 꾀하려 하였다.

충남대학교의 발전기금조성사업은 전국 국립대학 중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교수·학생·직원·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뜻 있는 지역사회의 기관단체·기업·인사들의 호응을 얻어 활발히 진행되었다. 발전기금 조성 첫해에 약 50억 원의 부동산을 기탁한 이복순 할머니, 3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전달한 고 이천구 대흥인쇄소 사장, 재일 동포 김쌍금 할머니, 성기호 성스튜디오 사장, 윤덕병 (주)한국야쿠르트 사장, 임복순 여사 등 많은 분들이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기탁해 주었다. 선경그룹에서 60억 원 상당의 임야를 기증했으며, 한국담배인삼공사 50억 원, LG그룹에서 20억 원, 동아그룹 15억 원, 한화그룹 15억 원, 한국이동통신 5억 7천만 원 등 국내 각 기업체에서 적지 않은 발전기금을 기탁하였다. 또한 충남대학교의 총동창회장이었던 계룡 건설의 이인구 회장이 1억 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하여 졸업동문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그 결과 1994년 발전기금 200억 원을 달성하였고, 1998년에는 300억 원을 달성하였다.

이 같은 성과는 충남대학교의 발전 계획과 이를 지지하는 지역 사회의 호응이 결합된 결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그동안 양적이고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하여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소홀히 했다는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학신설에 비해 대학 진학자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으로써 머지않아 대학이 경쟁체제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모든 대학들이 대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충남대학교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교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90년 2월부터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009년 외부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하여 직원 확충 등 재단을 정비하고 거액집중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유력 동문 및 지역인사들을 발굴하여 관계개선과 예우를 통한 전략적이고 과학적인 모금방법을 도입·시도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50억 원 이상의 모금실적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기부문화의 효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 故정심화 이복순 여사의 기부를 받은 충남대학교는 2010년 故함정옥 선생에게서 10억 원, 2015년 故성옥심 여사에게서 4억 원을 기탁 받았다. 2012년에 취임한 정상철 총장은 충남대학교 고유의 장학제도 ‘CNU 1대1 장학멘토링’ 운동을 전개하여 단순히 장학금 지급이 아닌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는 멘토(기부자)를 양성하기도 하였다.

(2) 기금출연현황

1990년 2월 처음 시행된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은 2011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84,220여 명의 뜻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출연한 기금은 1,245억 8,421만 3,224원(2021년 12월 31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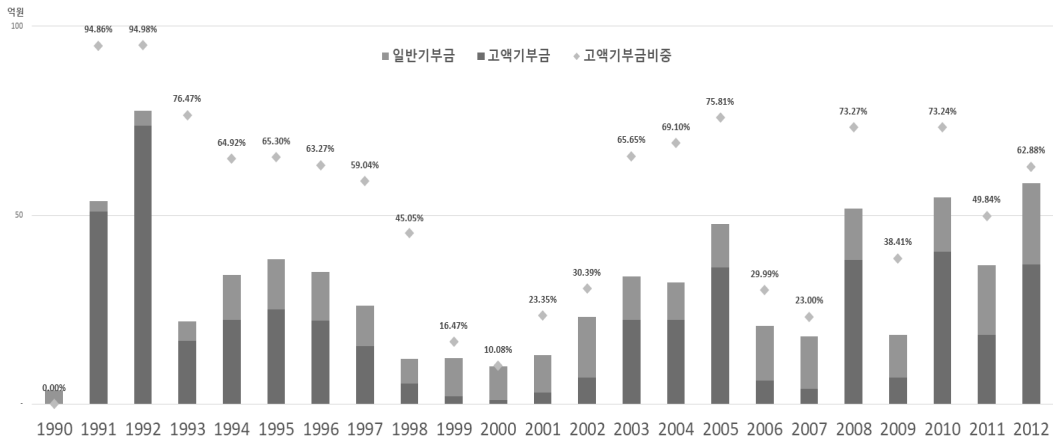
〈표 78〉 대학발전기금의 내역(2009~2011)

(단위: 백만 원)

항 목	금 액				신 립 액				기 탁 액			
	2009이전	2010	2011	계	2009이전	2010	2011	계	2009이전	2010	2011	계
현 금	17,767	5,838	956	24,561	16,949	877	1,049	18,875				
도 서	241	1	7	249	241	1	7	249				
기자재	1,329	21	62	1,412	1,329	21	62	1,412				
부동산·기타	12,155	0	0	12,155	12,155	0	0	12,155				
계	31,492	5,860	1,025	38,377	30,674	899	1,118	32,691				

(3) 연도별 고액기부자 현황

연도별 고액기부자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그림 5] 연도별 고액기부자 현황

(4) 발전기금 조성현황

2002년 ‘개교 50주년’ 행사를 계기로 고액기부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슈가 사라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그 후 발전기금 기부자는 2004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부자 수의 꾸준한 증가는 향후 소액모금캠페인 실행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집중모금 캠페인을 통한 체계적인 발전기금 모금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2008년(30억), 2010년(10억) 우리은행의 기부금(10억)을 제외하고 판단했을 때, 집중모금 캠페인을 통해 기부금의 증가세가 나타났고, 2009년에는 조용한 집중모금캠페인의 일환으로 잠재기부자 개발과 관계 개선, 지역 및 동문과의 대화에 주력하였다. 2009년 말 ‘우리충대 발전기금위원회’ 출범과, 잠재기부자들과의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2010년 대대적인 모금캠페인의 대외 공표를 통한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기부금의 비약적인 모금이 이루어졌다. 특히 동문의 모금비중이 항상 적었던 가운데, 2009년도 이후에는 비동문과의 차이를 좁히면서 동문 모금비중이 2011년도에 처음으로 비동문의 모금액을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09년도부터 실시한 모금캠페인의 일환으로 동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한 결과, 동문들의 모금비중이 과거 대비 꾸준히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에는 상대적으로 비동문, 고액기부가 적었으나 동문들의 모금참여 증가로 전체적인 모금액은 높게 나타났다(비동문

고액기부 의존도 감소). 향후 안정적인 발전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2011년도와 같은 동문들의 소액 모금참여가 증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철 총장이 취임한 2012년 1월 21일 이후부터 4월 20일까지 기부자들은 51억 3,400만 원을 약정하였고, 이 가운데 8억 6,400만 원(약정액의 17%)을 납입하였다. 특히 CNU 1대1 장학멘토 링운동기금은 약정액 11억 2,300만 원에 1억 500만 원(약정액의 9%)을 납입하였다.

〈표 79〉 발전기금 조성현황(2002~2011)

(단위: 원)

년 도	구 분	납입인원	납입건수	약정금액 (보완)	납입금액
2002		3,675	3,737	2,625,582,350	2,303,102,350
2003		2,315	2,361	3,226,767,163	3,370,882,163
2004		795	935	3,201,695,818	3,203,670,818
2005		1,160	1,195	4,914,789,793	4,742,559,693
2006		1,189	1,218	3,996,080,094	2,058,910,094
2007		1,408	1,519	6,515,014,144	1,775,703,300
2008		2,378	2,563	6,580,177,672	5,186,137,672
2009		2,238	2,277	1,467,313,646	1,822,218,976
2010		2,492	2,569	5,531,399,409	5,468,738,161
2011		2,304	2,405	3,845,917,422	3,651,888,940
합 계		19,954	20,779	41,904,737,511	33,583,812,167

〈표 80〉 주요고액기부자 및 기부총액(1990~2012)

기부년도	기부총액(원)	주요고액기부자	고액기부 금액(원)	비고
1990	371,034,100	오덕균 총장 재임		
1991	5,376,075,000	• 故 정심화 이복순 여사	50억	부동산
1992	7,759,194,200	• SK 故 최종현 회장	60억	부동산 현물
		• 충청은행 성기욱 사장	5억	
		• 동아 최원석 회장	5억	
		• 한국화약	2억 5,000	
		• 한국통신	1억 2,000	
1993	2,178,867,340	정덕기 총장 취임		
		• 한국화약	7억 5,000	현물
		• 현대전자	1억 6,000	

기부년도	기부총액(원)	주요고액기부자	고액기부 금액(원)	비고
		• 동아 최원석 회장	5억	
1994	3,403,149,530	• 충청은행 성기욱 사장 • 한국통신 • 동아 최원석 회장 • 계룡 이인구 명예회장 • 한국화약 • 대전시	3억 1억 8,000 5억 3억 5,000 5억 3억 8,000	현물
1995	3,812,935,390	• 대전시 • 한국이동통신 • 삼성생명 황학수 사장	20억 1억 9,000 1억	
1996	3,478,476,901	• 한국이동통신 • LG 구본무 명예회장 • 한국인식기술 이인동 사장	1억 20억 1억	현물
		윤형원 총장 취임		
1997	2,592,087,176	• 서종규님 • 이천구 • 충청남도 • 대전시 • KT&G 김영태 단장 • 민계희(장학기금)	2억 2억 8,000 42억 3,982만 4,630 42억 3,982만 4,630 2억 1억	
1998	1,200,889,514	• 삼성SDS 남궁석 대표 • 조양모방 민병오 회장	2억 4,000 3억	현물 현금2억/현물1억
1999	1,214,059,400	• 한국아쿠르트 윤덕병 회장	2억	
2000	991,911,332	• 임복순 여사	1억	
		이광진 총장 취임		
2001	1,284,815,700	•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 한국아쿠르트 윤덕병 회장	1억 2억	
2002	2,303,102,350	• 임덕수, 박현숙 • 의대재직동문교수 • 하나은행 • (주)SK텔레콤 • 금성건설 김주일 회장 • 한국아쿠르트 윤덕병 회장	1억 1억 1억 2억 1억 1억	
2003	3,370,882,163	• 화일전자 윤봉섭 회장 • 하나로통신 • 보령제약 김승호 회장 • 박영신, 감진성(감민호 장학금)	1억 1억 10억 1억	현물
2004	3,203,670,818	• 삼성전자 • 외국어교육원 • 서라벌군사연구소이종학 소장	6억 1억 10억	현물 현물 부동산

기부년도	기부총액(원)	주요고액기부자	고액기부 금액(원)	비고
2005	4,742,559,693	양현수 총장 취임		
		• 이놉스 대표 • 하나은행	22억 10억	현물
2006	2,058,910,094	• 하나은행 • 송자학연구재단 • 한국야쿠르트 윤덕병 회장	2억 1억 1억	
2007	1,775,703,300	• 양현수 총장 사퇴 • 하나은행	2억	
2008	5,186,137,672	송용호 총장 취임		
		• (주)우리은행 • 하나은행 • 충남대학교 총동창회 • 한국야쿠르트 윤덕병 회장 • 대전상공회의소	30억 4억 2억 1억 1억	
2009	1,822,218,976	• 하나은행 • 서라벌군사연구소이종학 소장	4억 3억	
2010	5,468,738,161	• (주)우리은행 • (재)미래국제재단 • 김봉주 명예교수(영문학과) • 김풍현 • 충남대학교병원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타이어뱅크(주) • 하나은행 •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10억 3억 1억 5,000 1억 5,000 5억 9억 1억 3억 6억	부동산 및 현물 유가증권
2011	3,651,888,940	• 하이에스소프트(주) • (재)미래국제재단 • 충남대학교병원 • (주)금성백조주택 정성욱 회장 • 하나은행 • (주)라이온캠텍 박희원 회장	1억 2,000 4억 5억 3억 2억 3억	현물
2012	5,847,420,350	정상철 총장 취임		
		• SK C&C • (주)포시에스 • (주)라이온캠텍 박희원 회장 • 김종숙(장면전대통령 며느리) • (주)우리은행 • 국어국문학과 동창회 • 하나은행 • 충남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다우종합건설(주)	2억 5,000 2억 3,000 2억 1억 5억 1억 5억 1,000 5억 3억	

기부년도	기부총액(원)	주요고액기부자	고액기부 금액(원)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대학교병원장 • 오인화(故김원사 교수 부인) • (재)삼성복지재단 • (재)미래국제재단 	5억 1억 1억 5,000 2억	
합 계			522억 6천	

7) 국립대학교 특수법인화 추진

법인화는 대학 경영의 자율성 확보 및 개방형 운영체제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충하며, 급변하는 대학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구체적 추진 목표는 ① 충남대학교가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입하기 위하여 발전 동력인 대학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충하는 것과 ② 현행 국립대학체제에서 벗어나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전환하는 것이다.

그 추진 경과를 보면, 2005년 9월 대전·충남권역 국립대학 연계 통합대학과 법인화 연구, 2006년 4월 충남대 특수 법인화를 대비한 선결과제 연구, 2007년 3월 특수 법인화에 대비한 2007년도 추진과제 연구, 2007년 5월 22일 ‘국립대 법인화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공청회 개최(충남대학교 교수회), 2008년 5월 23일 국립대 법인화 대토론회 개최(충남대학교 교수회), 2009년 7월 법인화 준비위원회 구성, 2009년 12월 30일 법인화 연구 보고서 작성, 2010년 2월 법인화 연구보고서 간부회의 보고, 2010년 5월 13일 법인화 추진계획 수립,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법인화 설명회 개최(9회), 2010년 6월 3일 법인화 위원회 구성, 2010년 9월 9일 법인화 초청 강연회 개최, 2010년 10월 5일 동문 초청 법인화 설명회 개최, 2010년 10월 1일~10월 29일 법인화 인식조사 실시(교직원 학생 시민 대상), 2010년 12월 21일 법인화 위원회 2차 회의 개최(법인화보고서(초안)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시켰으나, 2011년 3월 세종시 및 3개 대학 통합 논의로 인해 법인화 추진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와 같은 추진결과에 기초하여 충남대학교 법인화 보고서(초안)를 마련하였고, ‘국립대학법인 충남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초안’을 작성하였다.

8) 법인 조직의 설립

(1) 재단법인 산학연 연구재단 설립 운영

충남대학교 산학연 연구재단은 1999년 8월 16일에 설립되었다. 그 목적은 산학연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신소재분야의 국책지원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1999년 9월 8일 산학연교육연구재단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었고, 2000년 9월 4일 산학연교육연구재단 법인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산학연교육연구관은 ① 산학연 협동을 통한 기술개발 및 연구, ② 국정특성화 사업분야에 대한 기술활용 및 산업화 추진, ③ 창업보육을 통한 벤처기업의 양성 및 지원, ④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선도기술 보유, ⑤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거점 역할의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산학연교육연구관은 ① 산학연 협동체제의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② 벤처창업의욕을 확산하고, 성장기업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하며, ③ 고가 실험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④ 벤처창업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⑤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는 R&D 연구를 활성화하고, ⑥ 학생 창업의 실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립화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학연교육연구관을 토대로 한 산학협동 활용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공간으로의 활용이다. 둘째, 연구 및 기술개발 공간으로의 활용이다. 셋째, 첨단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기술 관련사업과 창업 공간으로의 활용이다. 넷째, 테크노마트 센터(창업보육실)를 임대하여 ① 기술집약, 신상품 개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창업 보육 및 성장, ② 창업단계부터 자립화단계까지의 행정지원, 자금알선 및 성장유도, ③ 공동기기센터, 정보지원센터(정보통신관), 교육센터 등의 창업 인프라, ④ 대외협력 자문단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기업, 금융기관 등과의 다각적인 협조체계의 구축 등을 통하여 입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임대연구소로의 활용이다. 여섯째, 산학연교육연구관의 입주업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의 활용이다. 일곱째, 기타 ① 21C 정보화 산업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사업추진, ② 벤처 신상품, 신기술 상설전시장(테크노마트) 운영, ③ 지역 벤처발전 협의회 설립, ④ 인터넷 홍보(입주업체 홍보 및 사이버 테크노마트 운영), ⑤ 벤처 종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⑥ 테크노마트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등의 추진사업을 위한 장으로 활용한다.

(2) 충남대학교병원의 법인화

1972년 7월 1일, 충남대학교병원이 개원하였다.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은 1995년 8월 20일에 법인화 되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한 전통 있는 지역선도병원으로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소아병원을 갖추었고, 대전·충청권역 응급의료센터를 개원하는 등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중부권 최초의 3차 진료기관으로서 1일 평균 2,500여 명의 외래환자와 900여 입원환자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1,300여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의료법인 충남대학교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의학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진료처(간호부, 약제부, 교육담당),

사무국, 기획조정실로 구성되고, 진료과목은 내과(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조직병리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이다.

(3) 출판문화원의 법인화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구 충남대학교출판부)은 1974년 설립되었다. 출판문화원은 1990년 6월 28일, 학술도서의 출판과 대학 학사업무의 지원 및 출판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으로 발족하였다. 출판문화원은 ① 교수들의 순수한 학술연구 성과 및 전공교재 등의 도서를 출간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②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교양서적들을 기획하고 제작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양 함양을 꾀하며, ③ 학내 연구소의 논문집, 학교간행물 및 자료를 인쇄하고,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